

# 베토벤:

#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Op. 43)

투르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레이프 세게르스탐(지휘)

장엄한 구조미가 돋보이는 탁월한 연주, '인간다움'에 이르는 구원의 영웅적인 서사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올 해 하반기부터 낙소스 레이블에서는 베토벤 작품 세계의 다양한 면을 조망할 수 있는 음반들을 선보이고 있다. 워렌 리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피아노 버전, 8.573974)과 세게르스탐의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8.573852)에 이어 이번 달에 출시된 두 장의 음반 중 하나는 세게르스탐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관현악 버전)이다. 시벨리우스의 관현악 작품에서 보여준 세게르스탐만의 장엄한 구조미와 '인간다움'에 이르는 구원의 영웅적인 서사는 음반 전체에 요동친다. 미카엘 할라스 지휘 오케스트라 버전(8.553404)을 대체할 만한 탁월한 연주.

8573853 [추천음반]

# **NAXOS** New Releases



#### 라벨: 피아노협주곡 &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 치간느(바이올린 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

프랑수와 듀몽(피아노), 제니퍼 길버 트(바이올린), 리옹 내셔널 오케스트 라(연주), 레너드 슬레트킨(지휘)

천둥처럼 휘몰아치는 악센트, 잠비처럼 아련한 인상이 교차하는 꿈결 한 자락



지오반니 살비우치: 실내안 작품진 자비나 폰 발터(소프라노), 앙상블 위베르브레틀(연주) 피에르파올로 마우리치(피아노 & 지휘)

새롭게 조명되는 미완성의 꿈. 대담한 신고전주의적 색채

8574049



#### 요아힘 라프: 바이올린 소나타 전 곡 1집

슈나이더(피아노)

애정하는 악기에 담은 생의 기로. 독립과 안정의 순간을 대변하는



#### 아론 제이 커니스: '플루트 협주곡' & '교향곡 2번' & '(플루트와 오케스 트라를 위한) 에어'

마리나 피치니니(플루트), 피버디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레너드 슬래트킨 & 마린 알솝(지휘)

고요에서 파국으로 치닫는 강렬한



# 베토벤: 피아노를 위한 작품과 편곡 작품집

'군사'와 관련된 베토벤의 알려지지 않은 피아노 작품들



#### 브람스: 독일 레퀴엠(1871년 런던 버전)

미첼 아레이자가(소프라노), 휴 러 셀(바리톤), 매들린 슬레트달 & 크 레이그 테리(피아노), 벨라 보스(합 창), 앤드류 류이스(지휘)

남은 자 - 인류의 평안을 기원하는 브람스의 의도와 상통하는 편곡



#### 알베니즈: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이스트-웨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연 작품 전곡

기품 있는 피아노 선율과 관능미 넘 치는 목소리의 환상적인 결합



#### 알베릭 마냐르: 교향곡 2 & 4번 프 라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페브리

스 발론(지휘)

프랑스의 브루크너 알베릭 마냐르 의 교향곡, 빛나는 영감과 웅장한

8574082



#### 게라 필사본에 수록된 17세기 스퍼 인 세속 성악곡 5집

호세 안토니오 로페즈(바리톤), 브루 노 포스트(하프시코드), 아르스 아틀 란티카(연주), 마누엘 빌라스(하프 &

세속의 희로애락, 신화와 자연을 노 래하는 고아한 선율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81호 October 2019



# \*Key Issue

EuroArts 2019 베를린 필 유로파콘서트 DVD + BD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올라 김 '1939' - 바이올린 협주곡 모음집 CD '마중물' 시인 임의진 & '이등병의 편지' 김현성의 콜라보 〈심야버스〉 CD

# \*Cover Story

2019 서울시향 올해의 음악가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CD

음악을 담는 문화적 그릇 **Aulos** media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분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바인버그: 실내 교향곡 1 & 3번

주), 로스티슬라프 크리머(지휘)

인버그 탄생 100주년 기념 음반

8574063

가려진 형극의 시간을 찾아서 - 바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소너스/ 드림레코드

# **Key Issue**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올라 킴 '1939' - 바이올린 협주곡 모음집 CD 3
EuroArts 2019 베를린 필 유로파콘서트 DVD + BD 4
'마중물' 시인 임의진 & '이등병의 편지' 김현성의 콜라보
〈심야버스〉CD

# **Cover Story**

2010	서운시향	오해이	으아기	크리스티	아 데츠	ᇎ	D
2013	시절시장	크에늬	급극기	그니스니	한 네들	ᄓᆖᆫ	U

# CD

Accentus	6-8
Alba	8-9
ARC	10
ASO	10
Bachstiftung	11
Bento Records	12
BR Klassik	. 12-15
Calliope	. 16-19
CD Accord	19-20
Cedille	20
Dacapo	21
Divine Art	22
Divox	22
Dynamic	23
Gramola	24
Grand Piano	25-27
IBS	27-29
Indesens	30-31
Naxos	32-50
Ondine	51-52
OpusArte	53
Orchid	53-54
Paladino	55
Paraclete	56-57
Proprius	58
Resonus	58-59
Rondeau	59
Siba	60

Silk Road 60	0-61
Solo Musica 6	1-63
Sono Liminus	3-64
Steinway & Sons	4-65
Stone	66
Tactus	66
Toccata	7-68
Tonkunstler	69
Winer Symphoniker	69

# DVD & Blu-ray & LP

71-72
73-75
76-86
87-90
91-93
94
95-98
. 99-102
103

# LP

Accentus	104
BR Klassik	104
Divine Art	106
Silk Road	106

##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올라 킴 바이올린에 담은 역사의식, 기획력, 연주력의 삼위일체 '1939'

# -월턴·하르트만·바르톡 바이올린 협주곡 모음집

뉴욕타임즈가 '눈부신 화려함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춘 드문 솔로이스트'라고 묘사한 파비올라 킴의 월턴·하르트 만·바르톡의 대표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을 담은 앨범(2CD)이다. 앨범명 '1939'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를 뜻 한다. 그 해를 기점으로 세 작곡가가 남긴 작품은 시대의 거울이자. 20세기 음악의 기법이 최고치로 녹아든 작품들 이다. 파비올라 킴과 지휘를 맡은 케빈 존 에두세이의 호흡은 20세기 현대음악에 대해 수학적이고 계산적으로 접근 했던 기존 음악가들과 달리 작품에 깃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에 대해 따스한 정서와 고귀한 슬픔의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젊은 음악가가 보여줄 수 있는 음반 구성력과 역사의식 진지한 연주력을 단번에 체험할 수 있는 음 반이다.



SM 308 [2CDs]

- 월턴·하르트만·바르톡 바이올린 협주곡 모

케빈 존 에두세이(지휘), 뮌헨 심포니 오케스트 라, 파비올라 킴(바이올린)

뉴욕타임즈가 '눈부신 화려함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춘 드문 솔로이스트'라고 묘사한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올라 킴의 참신한 기획력과 진지한 연주력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음반(2CD)이다. 이 음반은 2019년 6월에 전 세계적으로 발매되었다. 2018년은 제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이 되던 해로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음악으로 평화를 외쳤 고, 2019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80주년이 되는 해. 음반명 '1939'는 히틀러가 체코를 전격적으로 침공하고 이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전세계를 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었던 해를 지칭한다. 이 음반에 수록된 3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전쟁의 불길 이 치솟던 1939년을 기점으로 세상에 나온 곡들이다.

① 윌리엄 월턴(1902~1983)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하이페츠의 의뢰로 1939년에 작곡 되어 같은 해 12월 로진스키 지휘/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하이페츠의 협연 으로 초연되었다.

② 1939년에 작곡된 카를 하르트만(1905~1963)의 독주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 라를 위한 장송 협주곡은 1940년 2월 상트갈렌(스위스)에서 '애도의 음악 Musik der Trauer'로 초연되었다

③ 바르톡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은 헝가리가 파시즘의 손아귀에 떨어지려는 시기에 작곡되어 바르톡의 불안과 전쟁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다. 1939년 멩겔베르크가 지휘 하는 콘서트헤보우 오케스트라와 졸칸 세케이의 협연으로 초연되었다.

파비올라 킴과 지휘를 맡은 케빈 존 에두세이의 호흡은 20세기 현대음악에 대해 수학 적이고 계산적으로 접근했던 기존 음악가들과 달리 작품에 깃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에 대해 따스한 정서와 고귀한 슬픔의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2005년 아스펜 국제 음악제 협주곡 부문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미국 리빙스턴 심포 니 영아티스트 오디션과 버겐 필드, 코르푸스 크리스티콩쿠르 2위, 2010 얼빙 엠 크라 인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독일 쾰른체임버, 북체코 필하모닉, 미국 아스펜심포 니, 부다페스트심포니, 로마심포니 등 해외 유명 악단과의 협연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 을 이어가고 있다. 에두세이는 2013년부터 뮌헨 심포니의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 다

# 오르세미술관 작품과 함께 만나는 베를린 필의 생일파티

# 2019 베를린 필 유로파콘서트 바그너 · 드뷔시 · 베를리오즈 모음

베를린 필은 창립일(1892.5.1)을 기념하기 매년 5월 1일마다 명승지에서 공연하는 유로파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은 파리의 명물 오르세미술관에서 하딩(파리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의 지휘로 선보였다. 바그너 · 드뷔시 · 베를리오즈 작품은 독일과 프랑스의 문화적 동맹을 더운 끈끈히 이어주고, 18년 만에 베를린 필과 호흡을 맞춘 터펠이 보탄의 아리아로 장방형 미술관을 감동 깊게 울린다. 지휘자의 정면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기술(Conductor Cam)이 더해졌고, 터펠 인터뷰와 오르세미술관 소개가 보너스 영상으로 수록되었다. 음악 마니아뿐 아니라 미술마니아라도 100퍼센트 만족시키는 미술관 내부 촬영이 압권이다.



EuroArts 2067788 [2DVDs]
EuroArts 2067784 [Blu-rav]

## [보조자료]

베를린 필은 1991년부터 매년 5월 1일에 유럽의 명승지를 순회하는 유로파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다. 베를린 필의 창립일(1892년 5월 1일)을 기념하는 이 콘서트는 발트뷔네 콘서트와 더불어 애호가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기 념 콘서트이다. 상임지휘자가 아니라 객원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 공연 은 유럽 주요 도시와 명승지를 순회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그동안 프라하·마드리드·런던·피렌체·상트페테르부르크·스톡홀름·베를린·이스탄불·리스본·아테네·부다페스트·모스크바·나폴리·빈등의 유럽 주요 도시의 명승지에서 공연을 가져온 유로파 콘서트는 2019년 파리 오르세미술관에서 관객을 맞았다. 이번 공연은 독일과 프랑스의 외교와 우정을 빛내고 상징한 자리로, 파리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인 다니엘 하당이 지휘봉을 잡았다. 레퍼토리도 독일을 대표하는 바그너와 프랑스를 상징하는 베를리오즈와 드뷔시의 조합이다.

(1)바그너 '파르지팔'(Karfreitagszauber), (2)베를리오즈 '트로이 사람들' 중 '왕실의 사냥과 폭풍우', (3)드뷔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 곡, (4)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전반부를 장식한다. 과거에 기차역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오르세미술관은 긴 장방형의 공간이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길게 펼쳐진 미술관 복도에 앉은 관객들의 모습과 군데마다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 내장재의 부분을 이루는 장식과 오르세미술관의 상징과도 같은 거대한 시계가 화면에 들어온다. 메뉴의 'Conductor Cam(Picture in Picture)'를 선택하면, 스크린의 왼쪽 상단에는 정면에서 촬영한 하당의 모습도 나온다. (5)베를리오즈 '로미오와 줄리엣' 중 러브신이 나오고, (6)터펠이 등 장하여 바그너 '발퀴레' 중 보탄의 아리아(Leb wohl, du kühnes, herrliches Kind!)를 선사한다. 터펠과 베를린 필과 18년만의 만남이다. (7)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이 막을 내린다.

오르세미술관의 내부와 전시품과 함께 독일 · 프랑스의 명작을 만날 수 있는 영상. 보너스 필름에는 (1)브라이언 터펠 인터뷰(13:50), (2)오르 세미술관 소개(17:55/영 · 독어 더빙)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오르세미술관을 소개한 영상은 이 곳을 가보지 못한 이들에게 미술관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영상이다

# 2019년 서울시향 올해의 음악가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CD** 베토벤과 시벨리우스가 만난 이유

나란히 담긴 베토벤(고전)과 시벨리우스(낭만)의 협주곡은 1806년과 1905년에 태어나 한 세기의 시간차를 지녔고, d 단조로 구성되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테츨라프(2019 서울시향 올해의 음악가)는 두 곡이 '불멸의 깊이와 느낌을 지닌 작품'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변치 않는 고전의 성지에 두 작품을 나란히 올려놓는다.



ODF1334-2

2019년 서울시향 올해의 음악가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로빈 티치아티(지휘),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바이올린)

2011년 온딘(Ondine)에서 출시된 멘델스존·슈만 협주곡 음반과 2017년 바흐 소나 타와 파르티타 앨범은 테츨라프에게 상복을 안겨준 명반이다. 로빈 티치아티(베를 린 도이치 심포니)와 함께 한 이 음반도 전작을 뛰어넘을 기세로 가득하다. 테츨라 프만의 과감한 진행에 동조하며 함께 힘을 실어주는 티치아티의 지휘도 눈여겨 볼 것. 특히 도이치 심포니에서 교향곡녹음에만 주력해온 티치아티의 협주곡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해설지에는 테츨라프의 장문 인터뷰가 수록.

#### [수록곡]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1–3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61 **JEAN SIBELIUS (1865–1957)** 

4-6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 47

CHRISTIAN TETZLAFF, violin
DEUTSCHES SYMPHONIE-ORCHESTER BERLIN ROBIN TICCIATI, conductor

4 아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5





ACC30489 [2CDs] 아바도의 마지막 노래가 된 브루크너의 마지막 교향곡(9번)

2012 · 13년 루체른 실황 -브루크너 교향곡 1번(빈 버전) · 9번(노박 버전)-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 아바도의 마지막 노래가 된 브루크너의 마지막 교향곡(9번),그리고 1번

2019년 9월에 발매된 본 앨범은 2장의 CD로 구성됐다. 브루크너 교향곡 1번은 2012년 실황, 1891년 빈 버전. 여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연주는 과거에 같은 레이블을 통해 발매돼 화제를 낳은바 있으며, 데카·DG에 있는 같은 작품의 세 번째 녹음으로 아바도가 이 곡에 대한 애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향곡 9번은 노박 버전, 2013년 실황이다. 아바도는 이 연주를 끝으로 위암이 악화되었다.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초연한 흐름과 관대한 음향의 드라마를 엮어 나간다. 해설지(46쪽/독·영)는 본 공연에 대한 든든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아바도의 브루크너철학을 담은 '시작과 끝', 2012~13년의 브루크너 연주에 대한 전세계 유력지의 리뷰가 담겨 있다.

#### [보조자료]

클라우디오 아바도(1933~2014)는 베를린 필하모닉(1989~2002)은 물론 2003년 창단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LFO), 2004년 창단한 오케스트라 모차르트(OM)와 함께 하는 동안 영상물을 아끼며 내놓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오히려 고인이 된 지금, 그의 기념비적인 공연을 담은 영상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2019년 9월에 발매된 앨범은 2장의 CD로 구성. 2장의 CD에는 브루크너 교향곡 1번, 교향곡 9번이 동봉되어 있다. 교향곡 1번은 같은 레이블을 통해 예전에 발매되어 명성을 얻은 재수록 음반이다. 교향곡 9번은 2019년 5월에 발매된 'ABBADO: THE LAST YEARS'(ACC60461)의 영상에서 추출한 실황음원이다.

교향곡 1번은 2012년 실황으로 1891년 빈 버전이다. ①알레그로(12:04) ②아다지오(12:44) ③스케르초(8:40) ④피날레(16:44)로 여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아바도는 특이하게도 브루크너의 그 어떤 교향곡보다 1번에 남다른 애착을 가졌다. 젊은 시절 데카(Decca)에서, 1990년대 중반에 DG에서 빈필과 녹음한 적이 있는데, 2012년 루체른 실황은 세 번째 녹음이 된다. 특히 첫 번째 버전 '린츠'가 아닌, 두 번째 버전 '빈'을 연주하여 더 욱 음악적 완성도가 높다.

교향곡 9번은 노박 버전으로 2013년 실황이다. 슈베르트의 '미완성'을 함께 지휘했던 이 공연 이후 아바도의 위암은 악화되었고, 2014년 1월 20일에 볼로냐에서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났다. ①페이에를리히, 미스테리오소(26:47) ②스케츠로(11:03) ③아다지오(25:16) 구성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초연한 흐름과 관대한 음향의 드라마를 엮어 나간다.

아바도의 만년과 마지막 모습을 담은 여러 영상물과 음반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음반은 속세를 초월하며 천상의 소리를 인간세에 퍼뜨리고자 했던 '브루크너'를 통해 '아바도'를 기억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후한 해설지(46쪽/독·영)도 본 공연에 대한 든든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아바도의 브루크너 철학을 담은 '시작과 끝', 2012~13년의 브루크 너 연주에 대한 전세계 유력지의 리뷰가 담겨 있다.



ACC30477

노거장 '블롬슈테트'가 담담하게 조명한 말러의 마지막 완성작 말러: 교향곡 9번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지휘)

노거장 '블롬슈테트'가 담담하게 조명한 말러의 마지막 완성작

조기 말러 연구의 권위자였던 파울 베커는 말러의 '교향곡 9번'에 제목을 붙인다면 '죽음이 내게 말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7월에 92세를 맞이하게 되는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는 자신의 인생과 경력을 총결산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 '9번'을 각별한 애정과 진중함으로 대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감정적이거나 억지스러운 기색 없이 자연스러운 해석을 추구하고 있다. 밤베르크심포니역시 기계적이거나 무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주하며, 녹음 역시 모든 악기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포착하고 있다. \*Recorded at Konzerthalle Bamberg June 2018



ACC304651 [Academie France - Chine]

쇼팽: 소나타 2번, 발라드 1번, 네 개의 마주르카, 폴로네이즈, 뱃노 래 등

첸수에홍(피아노)

#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선명한 선과 시를 읊듯 감상적인 음율

중국 중북부 간쑤성 출신인 첸수에홍은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신동으로 알려졌으며, 베이징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중국TV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가 특히 좋아하는 레퍼토리는 쇼팽으로, 단조로우면서도 힘이 있고, 투명하면서도 풍부한 음향을들려준다. 〈소나타 2번〉은 악장 간의 폭넓은 간극을 더욱 강조하면서 격렬한 드라마를 만들고, 〈발라드 1번〉은 담백한 어조로 한 편의시를 읊는다. 〈네 개의 마주르카〉와 〈뱃노래〉는 선율에 담겨진 서정을 고독하게 노래하는 반면, 〈폴로네이즈〉에서는 밝은 기쁨과 격렬한 열정을 표현하다.



ACC304652 [Academie France - Chine] 슈만: 아베크 변주곡, 유모레스크, 소나타 1번 장청(피아노)

#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와 슈만 콩쿠르 우승으로 빛나는 젊은 세대의 대표 피아니스트

장청은 홍콩 북쪽 선전(심천) 음악원과 텍사스 크리스천 음악대학,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공부했으며, 2011년에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와 2016년 슈만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중국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각광받고 있다. 그는 특히 슈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곡 연주에 도전하고 있다. 이 앨범에서 그의 슈만에 대한 애정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베크 변주곡〉은 각 곡마다 섬세한 서정미를 불어넣으며,〈유모레스크〉에서는 다양한 표정을 지닌 타건을 들려준다. 반면에 〈소나타 1번〉은 진지하고 중후한음색이 매력적이다.



ACC304653 [Academie France - Chine] 스크리아빈: 소나타 1, 5, 6, 8번 체유지에(피아노)

#### 근대 러시아를 대표하는 감수성의 극치, 스크리아빈의 대표적인 소나타

천윤지에는 상하이 서남쪽 자싱 출신으로, 상하이 음악원과 맨해튼음악학교, 줄리아드 음악학교,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수학했다. 그는 12세에 중국 내셔널 피아노 콩쿠르와 1994년 중국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2010년 윤이상 콩쿠르에서도 우승했다. 그리고 2011년에 베이징 음악원에 최연소 교수로 부임했다. 이 음반은 스크리아빈의 고전적이면서도 농도 짙은 감수성으로 가득한 1번부터, 개성적인 음계와 독특한 화음을 사용한 8번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네 곡의 소나타를 수록하여, 그의 신비한 음악세계를 조망하고 있다.

6 아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7



ACC30466

바흐: 칸타타 19, 149, 158, 169번

게힝어 칸토라이, 한스-크리스토프 라데만(지휘)

# 히스토릭 오르간과 바로크 악단 및 소규모 합창단이 이루는 훌륭한 조화

바흐의 칸타타 19번과 149번은 '성 미카엘 축일'을 위한 곡으로, 천 사를 표현하기 위해 비교적 규모가 크며, 금관의 화려한 연주가 돋보인다. 칸타타 158번은 부활절 후 첫 주에 불렸던 곡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로 구원과 속죄 등을 노래한다. 바이올린의 현란한 독주가 강한 인상을 준다. 칸타타 169번은 '삼위일체 축일' 후 여덟 번째 주일을 위해 작곡된 곡으로, 오르간 협주곡을 방불케 하는 신포니아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오르간의 활약이 귀를 사로잡는다. 히스토릭 오르간의 음량과 음색은 바로크 악단 및 소규모 합창단과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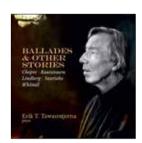
ACC80498 [3 for 2]

시마노프스키: 교향곡 2번/ 루토스와프스키: 첼로 협주곡,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등

고티에 카퓌송(첼로), 폴란드 국립 방송 교향악단, 알렉산더 리브라이히(지휘)

# 20세기 폴란드 음악을 대표하는 두 거장의 관현악 작품에서 듣는 낭만적 감수성과 상상력

통영국제음악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알렉산더 리브라이히가 20세기 폴란드 음악을 대표하는 카롤 시마노프스키와 비톨드 루토스와프스키의 관현악 작품을 연주했다. 시마노프스키는 바이올린 협주곡과 소수의 바이올린을 위한 실내악곡들만이 잘 알려져 있는데,이 음반을 통해 R 슈트라우스의 영향을 받은 낭만적인 서정과점차 자신만의 관능적 표현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루토스와프스키의 〈첼로 협주곡〉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은 국내에서 연주되어 큰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그의 놀라운 음악적 상상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ABCD437

쇼팽: 네 개의 발라드/ 라우타바라: 소나타 2번 '불의 설교'/ 사리 아호: 발라드 등

에리크 T. 타바셰르나(피아노)

# 강력한 타건과 열정적인 표현으로 압도하는 피아노 사운드의 신세

타바셰르나는 시벨리우스 음악원의 명예교수로, 쇼팽의 네 개의 '발라드'와 핀란드를 대표하는 네 명의 작곡가의 작품을 수록했다. 그는 강력한 타건으로 쇼팽의 발라드에 남다른 호소력을 실어, 열 정적인 감동을 피부로 전달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라우타바라의 '불의 설교'에서 자극적이고 야만적인 제스쳐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린드베리의 '피아노 주빌리'에서는 음 사이의 여운에서조차도 긴장을 유지한다. 사리아호의 '발라드'는 과감한 운동성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며, 시벨리우스 아카데미 교수인 매튜 위탈의 '유리의 앞사귀'는 영롱한 사운드의 극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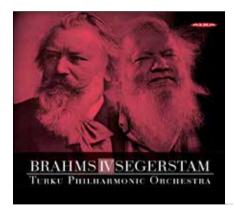
ABCD444 1-2 [**2CD for 1.5**]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 해석의 폭이 넓은 오늘날을 위해 제시하는 새로운 표준

첼리스트 마르코 윌뢰넨은 1990년 투르쿠 스칸디나비아 콩쿠르에서 2등을 차지했으며,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결선에 올랐다. 그리고 1996년 뉴욕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는 현재 시벨리우스 음악원 교수이며, 독주자와 실내악 연주로서 활동하면서 유수한 음악제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그가 연주한 바흐의 첼로 모음곡은, 시대악기 연주부터 극적인 연주에 이르기까지 해석의 폭이 넓은 오늘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안정된 리듬과 적절한 템포, 과장되지 않은 다이나믹이 만드는 온건한 매력은 그의 연주에 깊이 빠져들게 한다



www.alba.fi





ABCD432 [SACD]

브람스: 교향곡 4번/ 세게르스탐: 교향곡 295번

투르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레이프 세게르스탐(지휘)

#### 브람스를 바라보는 세게르스탐의 독특한 관점

투르쿠는 13세기경부터 존속하는,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다. 레이프 세게르스탐은 2012년부터 투르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 세게르스탐의 브람스는 편성이 비교적 소규모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음역과 팀파니를 강조해 독특한 무게감을 지니며, 템포 역시 많은 대목에서 기존의 연주들과 다르다. 음반 말미에 실린 세게르스탐의 '교향곡 295번'(그는 교향곡을 320곡 넘게 썼다)은 핀란드의 현대음악을 알리는 데 헌신했던 지휘자 울프 쇠더블롬을 추모하고자 쓴 곡으로, 독특한 음향효과가 가득하다.



ABCD443

헤이니넨: 세 개의 보스턴 소나타, Op. 134

카이야 사리케투(바이올린), 유하니 라게르스페츠(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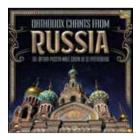
#### 보스턴에서의 다양한 인상을 모더니즘적인 필치로 재치 있게 그린 바이올린 소나타

핀란드의 작곡가 파보 헤이니넨은 모더니즘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언어로 발전시킨 작곡가로, '메타모더니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쇤베르크와 같은 무조성을 들려주면서도 그의 스승인 베른트 알로이스 침머만과 같은 폭넓은 감성적인 정서를 전달한다. 이 음반은 2014년에 작곡된 세 개의 '보스턴 소나타'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시벨리우스 음악원 교수인 카이야 사리케투의 위촉으로 작곡되었다. 이 곡은 작곡가가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의 다양한 인상을 음악으로 그린 것으로, 다양한 악상으로 여러 장소를 재치 있게 표현한다.

8 이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9

**ARC** 

www.arcmusic.co.uk



ARC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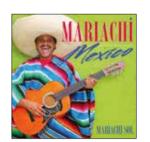
EUCD2850

#### 러시아 정교회 성가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옵티나 푸스틴 남성 합창단

#### 엄숙하면서도 자유로운 선율이 어우러진 러시아의 정통 성가

기독교 문화를 바탕에 둔 나라들은 낭송과 단선율의 독특한 성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나라마다 개성적인 특징이 있다. 정교회 (orthodox)의 나라인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정교회 성가는 멜로디의 흐름이 자유로우며, '옥타비스트'라고 불리는 초저음 베이스 성부를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열두 곡을 수록한 이음반에서 러시아 정교회 성가의 이러한 매력을 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즈나메니 찬트'와 함께, '키에프 찬트', '옵티나 푸스틴 수도원 성가' 등, 엄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져 독특한 종교적 감흥을 체험하게 한다



EUCD2847

# 마리아치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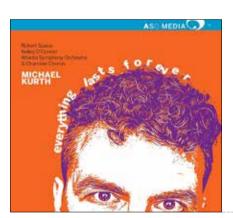
마리아치 솔

# 멕시코를 대표하는 거리음악 '마리아치'의 모든 것!

'마리아치'는 멕시코의 전통 거리음악으로, 작은 기타인 '비우엘라'와 저음을 담당하는 큰 기타인 '기타론'을 중심으로 바이올린, 트럼 펫, 하프 등 다른 악기가 추가되며, 구성진 추임새나 노래가 포함되기도 한다. 빠른 리듬으로 매우 즐겁고 흥겹게 연주되다가도, 애수를 머금은 서정적인 노래도 있고, 또한 컨트리 음악 스타일로 질주하기도 한다. 정상의 마리아치 연주단인 '마리아치 솔'은 이 한 장의 음반에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마리아치를 연주했다. 일상에서 웃고 울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멕시코 민초들의 매력적인 흥 또한 들어있다.

# ASO Media

www.atlantasymphony.org





CD\_1011

#### 마이클 커스: 모든 것은 영원하다. 천 마디의 말. 현기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미제레레 등

애틀랜타 심포니, 로버트 스파노(지휘), 켈리 오코너(메조소프라노), ASO 실내합창단

####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컨템포레리 로맨틱 뮤직의 최전선

마이클 커스는 상상하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담는 작곡가이다.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더블베이스 연주자이기도 한 그는, '애틀랜타 매거진'에서 '2017년 최고의 신진 작곡가'로 선정되었으며, 로즈웰 리버사이드 챔버 플레이어즈의 상임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애틀랜타 심포니에 의해 다수 초연되었는데, 이 음반에는 그중 세 곡을 수록했다. 바흐와 멘델스존, 라흐마니노프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만큼, 이 작품들은 탄탄한 형식미와 서정적인 멜로디. 환상적인 화음을 들려준다.

# Bachstiftung

www.bachstiftung.ch





B669

#### 바흐: 칸타타 28집(BWV.51 & 59 & 136)

시빌라 루벤스 & 조안 룬(소프라노), 마르쿠스 포스터 & 얀 뵈르너(알토), 발터 지껠 & 요하네스 칼레슈케(테너), 에케하르트 아벨레(베이스), 장크트갈렌 J.S. 바흐 협회 오케스트라(연주), 장크트갈렌 J.S. 바흐 협회 합창단(합창), 루돌프 루츠(지휘)

#### 신의 사랑, 오랜 기다림과 성취

화제의 시리즈, 스위스 장크트갈렌 바흐 재단의 '칸타타 28집'. "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찾으소서"(BWV.136), "나를 사랑하는 자는"(BWV.59), "환호합니다. 하나님을, 온 땅에서는"(BWV.51)의 세 작품(트랙 순)이 수록되었다.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는 짧은 편이지만, 신의 사랑에 대한 찬양과 강렬한 염원, 오랜 기다림 끝에서 마침내 흔들림 없는 확신과 현현에 이르는 감격의 여정은 마지막 트랙의 '할렐루아(주를 찬양하라)'로 압축된다. 마치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를 보는 듯한 흐름, 언제나 그렇듯 오롯한 해석과 잔향은 벅찬 여운을 한껏 끌어올린다.



#### B621 [2CDs]

#### 바흐: 요한수난곡(BWV 245)

다니엘 요한슨(복음사가, 테너), 페터 하베이(예수, 베이스), 마티아스 헬름(빌라도, 베이스), 율리아 도일(소프라노), 알렉스 포터(알토), 장크트갈렌 J.S. 바흐 재단 오케스트라(연주), 장크트갈렌 J.S. 바흐 재단 합창단(합창), 루돌프 루츠(지휘)

# 경건과 극적 색채의 위풍당당한 결합

〈스위스 장크트갈렌 바흐 재단 바흐 칸타타 시리즈〉의 팬이라면 한 번쯤 고대했던 음반이 드디어 출시되었다. 그리스도 수난의 내적 통찰을 아우르고 있는 '요한 수난곡', '예정된 승리'를 위해 '예비된' 통과 의례 - '예정된 고난'의 순간을 그리고 있는 '요한수난곡'의 주제는 그리스도 수난을 대하는 경건과 고통이 격렬하게 뒤섞이며 다른 수난곡과 구분되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루돌프 루츠는 이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악단 본연의 오롯한 색채를 역동적으로 이끌며, 교회 음악과 오페라적인 요소의 '내밀한 맞물림'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의 특징에 충실한 해석을 보여준다. '경건과 극적 색채의 위풍당당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본 음반은 '마태수난곡'(8006)과 'b단조 미사'(8384)에 이은 기념비적인 성과물로 꼽기에 부족함 없다 하겠다. 강력 추천한다.



B67

#### 바흐: 칸타타 28집(BWV.5 & 227 &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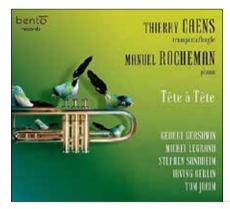
미리암 베르니-베를리(소프라노), 얀 뵈르너(알토), 게오르그 포퓰리츠 & 라파엘 헨(테너), 마누엘 발저 & 스테판 맥레오드(베이스), 장크트갈렌 J.S. 바흐 협회 오케스트라(연주), 장크트갈렌 J.S. 바흐 협회 합창단(합창), 루돌프 루츠(지휘)

# 두려움과 망설임의 극복, 신의 은총을 향한 긍정과 확신의 목소리

스위스 장크트갈렌 바흐 협회의 '바흐 칸타타 28집'에는 '나는 어디서 피난처를 찾을 것인가'(BWV. 5), '저는 당신을 가시도록 않을 것입니다'(BWV. 157), '예수, 나의 기쁨'(BWV. 227)이 수록되었다. 장례식을 위해 작곡된 두 편의 작품과 병자를 고치는 예수의 모습을 담은 한 편의 작품은 신(절대자)의 구원과 사랑, 인간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의 뜻을 긍정하고 시인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내려놓음, 두려움과 망설임을 극복하고 신의 영원한 사랑을 향해 무한한 확신의 목소리를 내는 여정. 특히, '예수, 나의 기쁨'은 시리즈 어떤 음반보다 확신으로 귀결되는 가슴 뭉클한 반향으로 가득하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 제목이 떠오르게 하는 음반.

# Bento Records (indesens)

www.indesensdigital.fr



BT001

## 티에리 캉스 트럼펫곡집 – 거슈윈 · 레그랑드 · 손더하임 · 베를린 · 조빙

티에리 캉스(트럼펫), 마누엘 로체만(피아노)

## 로맨티시즘 트럼페터의 현대판 세레나데

1958년 생의 티에리 캉스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트럼페터이다. 클래식은 물론 현대음악·재즈·대중가요까지 섭렵하는 분야는 다양하다. 이 앨범은 거장이 어깨의 힘을 잔뜩 뺀 앨범으로 거슈윈, 미쉘 레그랑드, 손더하임, 이르빙 베를린, 톰 조빙의 대표곡 15곡이 수록되어 있다. 캉스는 까다로운 클래식 주법을 버리고 복고적인 뉘앙스와 정서로 자유를 노래한다.

카랑카랑한 사운드보다 플뤼겔혼을 연상시키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연출하며, 마누엘 로체만의 경쾌한 피아노가 함께 한다.

# **BR Klassik**

www.br-klassik.de





# 900175 [10 SACD] [한정발매]

#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BR Klassik) 레이블 10주년 기념

마리스 얀손스(지휘),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 · 합창단, 성악가 10명(하이든 · 베토벤)

#### 초고음질로 만나는 얀손스의 금자탑 BEST 10

실황보다 더 실감나는 음질을 연출하는 SACD로 얀손스가 지휘한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의 명연주들 중 하이라이트를 만나볼 수 있는 세트물(10CD)로, 2009년에 설립한 자체 레이블(BR-KLASSIK) 10주년 기념물이다.

얀손스는 2003년부터 BRSO의 수석지휘자로 부임해 지휘자와 악단 모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BR-KLASSIK'을 통해 내놓는 앨범들은 세계음반사를 바꾸고 있다. 이 같은 얀손스의 베스트 리스트 중 뮌헨 가슈타익홀에서 녹음된 실황(2006~17) 중 최고의 10장을 모았다. 베토벤 '합창', 브람스 교향곡 2번 · 3번, 브루크너 교향곡 7번 · 8번, 하이든 서곡(Hob.la:7) · 교향곡 88번 · 하르모니 미사, 말러 교향곡 5번 · 교향곡 7번 · 교향곡 9번,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가 수록. 해설지(34쪽 분량/영·독어)에는 지휘자·악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실히 들어있다.

## [보조자료]

실황보다 더 실감나는 음질을 연출하는 SACD로 안손스가 지휘한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의 명연주들 중 하이라이트를 만나볼 수 있는 세트물(10CD)이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O)은 2009년에 설립한 자체 레이블(BR-KLASSIK)에서 수많은 CD를 발매했다. 말러 교향곡 6번 녹음(2016) 등으로 디아파종 도르 등 국제적인 음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 상임지휘자 얀손스는 2003년부터 BRSO의 수석지휘자로 부임해 지휘자와악단 모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BR-KLASSIK'을 통해 베토벤 사이클을 비롯해 드보르자크 · 브루크너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스트라빈스키 등의 녹음을 통해 21세기의 명반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얀손스의 리스트 중 뮌헨 가슈타익홀에서 녹음된 2006년 실황부터 2017년까지 최고의 10장을 모았다.(※괄호는 실황 연도)

## [음반별 수록곡]

① [SACD 1] **베토벤 9번 '합창'** (2007, 바이에른방송합창단, 스토야토바(소프라노), 브라운(알토), 쉐하데(테너), 볼레(베이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Symphonie Nr. 9 d-Moll / D minor, op. 125

Krassimira Stoyanova - Sporan / soprano Lioba Braun - Alt / alto Michael Schade - Tenor / tenor

Michael Volle – Bass / bass Michael Gläaser – Choreinstudierung / chorus master

Chor und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Mariss Jansons – Dirigent / conductor

Live-Recording: Vatikan (Rom), Aula Paolo VI, 26/27 Oktober 2007

## ② [SACD 2] 브람스 교향곡 2번(2006), 교향곡 3번(2010)

JOHANNES BRAHMS 1833-1897 Symphonie Nr. 2 D-Dur / D major, op. 73

Live-Recording: Munich, Herkulessaal der Residenz, 16/17 Mäarz 2006

Symphonie Nr. 3 F-Dur / F major, op. 90

Live-Recording: Wien, goldener Saal des Musikvereins, 16. Januar 2010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Mariss Jansons Dirigent / conductor

# ③ [SACD 3] 브루크너 교향곡 7번(2007)

ANTON BRUCKNER 1824–1896 Symphonie Nr. 7 E-Dur / E major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Mariss Jansons Dirigent / conductor

Live-Recording: Wien, Großer Saal des Musikvereins, 4. November 2007

# ④ [SACD 4] 브루크너 교향곡 8번(2017)

ANTON BRUCKNER 1824-1896 Symphonie Nr. 8 c-Moll / C minor (NEW ON SACD) (Fassung 1890 / Version 1890)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Mariss Jansons Dirigent / conductor

Live-Recording, Munich, Philharmonie im Gasteig, 13–8. November 2017

⑤ [SACD 5] 하이든 서곡 Hob,la:7, 교향곡 88번 Hob,l:88, '하르모니 미사' Hob, XXII:14 (2016, 바이에른방송합창단, 하르텔리우스 · 크냅 (소프라노), 슈미트(알토), 엘스너 · 쉬네이테르(테너), 셀리크(베이스))

JOSEPH HAYDN 1732-1809 Sinfonia D-Dur / D major Hob. la:7 / Overtura

Symphonie G-Dur / G major Hob. I:88 / Messe fü Soli, Chor und Orchester B-Dur Harmoniemesse

Mass in B flat major Harmony Mass Hob. XXII:14

Malin Hartelius Sopran / soprano Michaela Knab Sopran / soprano (Credo) Judith Schmid Alt / contralto

Christian Elsner Tenor / tenor Bernhard Schneider Tenor / tenor (Credo) Franz-Josef Selig Bass / basso

Chor des Bayerischen Rundfunks Peter Dijkstra Einstudierung / production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Mariss Jansons Dirigent / conductor

Live-Recording: Waldsassen, Basilika: 7. Oktober 2008

# ⑥ [SACD 6] 말러 교향곡 5번(2016)

GUSTAV MAHLER 1860-911 Symphonie Nr. 5 cis-Moll / C sharp minor (NEW ON SACD)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Mariss Jansons Dirigent / conductor

Live-Recording: Munich, Philharmonie im Gasteig, 10-11. Mäz 2016

# ⑦ [SACD 7] 말러 교향곡 7번(2007)

GUSTAV MAHLER 1860-911 Symphonie Nr. 7 e-Moll / E minor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Mariss Jansons Dirigent / conductor

Live-Recording: Munich, Philharmonie im Gasteig, 5-9. Mäz 2007

## ⑧ [SACD 8] 말러 교향곡 9번(2016)

GUSTAV MAHLER 1860-911 Symphonie Nr. 9 D-Dur / D major (NEW ON SACD)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Mariss Jansons Dirigent / conductor

Live-Recording: Philharmonie im Gasteig, 20./21. Oktober 2016

#### ⑨ [SACD 9]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2016)

Symphonie Nr. 7 C-Dur / C major, op. 60 (NEW PRODUCTION) "eningrader"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Mariss Jansons Dirigent / conductor

Live-Recording: Munich, Philharmonie im Gasteig, 9-12. Februar 2016

## ⑩ [SACD 10]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2009),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2010)

PJOTR I. TSCHAIKOWSKY 1840-893 Symphonie Nr. 5 e-Moll / E minor op. 64

Francesca da Rimini op. 32 / Fantasie nach Dante fü Orchester / Symphonic fantasy after Dante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Mariss Jansons Dirigent / conductor

Live-Recording: Munich, Philharmonie im Gasteig, 9. Oktober 2009 (Symphonie Nr. 5); 1/2. Juli 2010 (Francesca da Rimini).



#### 900179

# 2007 뮌헨 헤라클레스홀 실황

-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 지휘대의 '거인'이 노래하는 말러

마리슨 얀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얀손스와 로열 콘세스토헤보(RCO)의 말러 녹음에 매료된 이들이 바이에른 방송교향 악단(BRSO)의 '얀손스표 말러'를 궁금해 하는 이들에게, 약손스는 꾸준히 답이라도 하듯 자체 레이블을 통해 말러를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교향곡 2번·5번·7번·9 번이 나왔다. 이 앨범은 2003년 BRSO에 취임한 그가 2007년 3월 헤라클레스홀에 서 선보인 실황이다. 그 어떤 지휘자의 연 주보다 섬세하다. 교향곡 1번 특유의 강약 과 대소(大小)의 극단적인 대비감이 선명 히 살아 있으며, 얀손스 특유의 박진감이 서린 지휘력과 음반 기술력의 훌륭한 합작 이다. 현장의 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소 음을 극도로 제어한 투명한 그릇 같다. 연 주를 하던 해(2007)에 출시된 RCO 음반과 비교하여 듣는 재미도 쏠쏠하다.



#### 900717

# 1956~57 클렘퍼러 뮌헨 실황

- 하이든 '시계' · 브람스 교향곡 4번

오토 클렘퍼러(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 그들의 '귀한 만남'을 기억하는 음반

오토 클렘퍼러(1885~1973)는 20세기 위대 한 독일 지휘자 중 한명이다. 여러 오페라 극장에서 명성을 쌓아가던 그는 나치정권 을 피해 미국으로 무대를 옮겼다가 2차 세 계대전 후인 1947년에 부다페스트를 기점 으로 다시 고국과 유럽땅을 밟는다. 71세의 노장이 된 그는 1956년 4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첫 지휘를 맡고 1969년까지 11 회의 공연을 갖는다. 본 앨범은 1956년 하 이든 교향곡 101번 '시계'과 1957년 브람스 교향곡 4번 실황녹음(뮌헨 헤라클레스홀)으 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역사적 순간 들이 쌓여 있는 'BR-KLASSIK ARCHIVE' 시리즈의 일환이다. 60여년 전의 녹음이지 만, 최상의 음질과 사운드디자인이 클렘퍼 러 특유의 과감한 해석, 무게를 탑재하되 날쌔게 돌진하는 속도감을 느끼게 한다.



#### 900184

# 2016 뮌헨 가슈타익 실황

-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 마리스 얀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 슬퍼도 흐트러지지 않는, 꼿꼿한 슬픔

쇼스타코비치(1906~1975)의 15개 교향곡 중 중허리를 이루는 교향곡 7번, 1941년 전 쟁의 포화에 휘말려 들었던 도시 '레닌그 라드'의 비극을 담은 이 작품을 통해 우리 는 얀손스가 '세계의 지휘자' 이전에, 러시 아의 비극을 공유한 '라트비아 출신의 지 휘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2016년 2월 뮌헨 가슈타익홀 실황으로, 얀 손스는 피에 흐르는 역사적 고통을 표출 하기라도 하듯 분위기는 심오하게 가져가 되. 어둠과 비극의 사운드 속에서도 작은 음 하나로 흐리지 않는 명료한 집중력을 보여준다. 느리게 걷는 3악장(아다지오/라 르고)는 숨이 막힐 정도의 아픔과 고통으 로 다가온다. '레닌그라드'에 있어서 이 음 반 한 장이면 경전을 소유하는 격이다.



900104 스페셜 가격 [한정판매]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BR) 레이블 10주년 기념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live-Recording, 9.10.2009) (CD + BR 카탈로그 2019)

마리스 약손스(지휘),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

#### '최고의 최고'로 10주년을 기념하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0)은 2009년에 설립한 자체 레이블(BR-KLASSIK)에서 수많은 CD를 발매했다. 말러 교향곡 6번 녹음(2016) 등으로 디아파종 도르 등 국제적인 음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 상임지휘자 얀손스는 2003년부터 BRSO의 수석지휘자로 부임해 지휘자와 악단 모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BR-KLASSIK'을 통해 베토벤 사이클을 비롯해 드보르자크 · 브루크너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스트라빈스키 등의 녹음을 통해 21세기의 명반을 쏟아내고 있는 중. 이같은 얀손스의 리스트 중에 2009년 발매작 차이콥스키 '비창'은 10년이 흐른 지금(2019)까지도 가장 사랑 받는 앨범이다. 'BR-KLASSIK'이 레이블 창립 10주년으로 이 음반을 새롭게 내놓은 이유는 음반이 돌아가는 순간 진가가 나타난다. 2009년 10월 9일, 뮌헨 기슈타익 극장 실황. 얀손스는 그 특유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이 비극의 명작을 거침없이 요리해나간다. 실황녹음의 탁월한 생동감도 일품. 그간의 음반들이 고급의 퀄리티인만큼 고가였던 반면, 이번 음반은 기념반이기에 더 많은 마니아들과 만나기 위해 특별가격으로 책정되었다는 것도 잊지 말자.

\*\* 구, BR900105 / 바코드 번호: 4035719001051와 동일한 음반입니다.



#### 900526

## 2019 뮌헨 실황-드보르자크 '스타바트 마테르' Op.58

호워드 아맨(합창지휘),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줄리아 클레이터(소프라노), 게르힐트 베르거(메조), 드미트리 코르차크(테너), 테레크 나츠미(베이스), 율리우스 드레이크(피아노)

#### 종교를 뛰어넘는. 합창의 맑은 영혼

드보르자크(1841~1904)의 '스타바트 마테르'는 삼십대 후반의 드보르자크가 사랑했던 두 딸이 죽음을 맞이하자,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을 이겨낸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용기를 얻어 쓴 작품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부활의 희망이 성모의 눈을 통해 생생히 그리고 있다. 합창음악의 거장인 호워드 아맨(1954~)의 지휘와 연주는 이 작품이 종교음악이지만, 세련된 연출과 음향감을 통해 종교를 초월하여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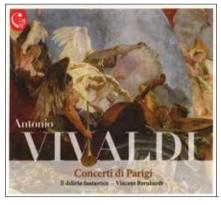
뮌헨 오페라극장,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만이 뮌헨의 명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음반을 듣는 즉시 바이에른 방송합창단의 내력과 존재를 찾아보게 된다.

\* 프린츠 레제텐 극장 2019년 3월 실황

14 이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15

# Calliope

www.calliope-records.com





CAL1740

#### 비발디: 파리 협주곡집

일 델리리오 판타스티코, 벵상 베른하르트(지휘)

# 개성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며 큰 명성을 얻기 시작했던 시기의 대표작

비발디의 '파리 협주곡집'은 1720년대 초에 작곡되어 프랑스인 여행가에게 판매된 후, 18세기에 파리음악원 도서관에 있었으며, 프랑스 국립 도서관으로 이관되어 현재 이곳에 보관 중이다. 이 작품들은 베네치아 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식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악보집에 수록된 열두 개의 협주곡 중 2번과 5번 단 두 곡만이 새로 작곡된 곡이며, 다른 곡들은 모두 토리노 국립 도서관에 보관 중인 다른 곡들을 편곡하고 축소한 버전이었다. 그래서 이 음반은 2, 5번을 제외한 다른 곡들은 토리노의 악보로 연주하여, 원작의 온전한 형태로 들려준다.

\*\* '쇼크 드 클라시카 수상'



CAL1741

# 하이든: 첼로 협주곡 1, 2번

크세니아 야코비츠(첼로), 성 조지 스트링스

## 음악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순수하고 정 갈한 연주

세르비아 출신의 첼리스트 크세니아 야코 비츠는 9세에 베오그라드 필하모닉과 협 연했으며, 국가장학금으로 모스크바 음악 원에서 로스트로포비치를 사사했다. 이후 제네바에서 피에르 푸르니에를, 데트몰트 에서 앙드레 나바라에게서도 배웠으며, 가스파르 카사도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현재 데트몰트 음대에서 첼로를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과장된 드라마로 음악 외적 시나리오를 만들기보다는, 음악적인 표현 에 집중하여 음악이 말하고자 하는 추상 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순수하고 고결한 이미지로 음악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감 상할 수 있도록 한다.



CAL1743

# 라흐마니노프: 비가 삼중주 1, 2번

앨런 볼(피아노), 베르나르 마테른(바이올 린), 엘리자베스 보시에(첼로)

# 눈물을 가득 머금은 내면적 슬픔을 노래하 는 라흐마니노프의 낭만적 실내악

라흐마니노프가 초기에 남긴 두 곡의 피아노 삼중주곡에는 '비가 삼중주'라는 독특한 제목이 붙여져 있다. 이 작품들은 슬픔의 정서가 가득하면서도, 극적인 표현력과함께 과장되지 않는 절제미를 갖추고 있어. 연주자와 애호가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앨런 볼은 줄리어드에서 '음악의거장' 청호를 받았으며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정상급 피아니스트이며, 바이올리니스트 베르나르 마테른은 에콜 노르말 교수이자 아브르 국립 관현악단 음악감독이다. 첼리스트 엘리자베스 보시에는 앙드레 나바라의 제자로, 뫼동 음악학교 교수이다.



CAL1744

## **슈만: 카니발, 크라이슬러리아나** 스테판 블레(피아노)

## 강렬한 타건이 만드는 영롱하고 경쾌한 음색의 매력

스테판 블레는 호로비츠의 조수였으며, 20세기 미국의 피아노 거장 바이런 재니스의 제자이다. 그는 10대에 리스트의 음반을 녹음할 정도로 완벽한 기교를 지난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현재 에콜 노르말 교수이다. 그가 연주하는 슈만의 〈카니발〉은 선율을 강렬하게 드러내어 피아노로 부르는 노래로서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명징한 터치로 각 소곡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 〈크라이슬러리아나〉는 강렬한 타건이 만드는 영롱하고 경쾌한 음색으로 모든 음에 활력을 부여한다.



CAL1745

# 베토벤: 함머클라비어 소나타, 여섯 개의 바가텔

피에르 레아슈(피아노)

## 가벼운 타건과 청명한 음색으로 무게감을 덜어낸 진정한 베토벤의 모습

피에르 레아슈는 바두라—스코다, 베이센베르크 등으로부터 수학했으며, 루빈스타인 콩쿠르 등 여러 콩쿠르에서 1등상을 받았다. 현재 카탈루냐 고등음악원 교수이다. 베토벤의〈함머클라비어 소나타〉는 당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던 해머 시스템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화음과 리듬을 중심으로 피아노를 타악기처럼 사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준다. 레아슈는 가벼운 타건으로 무게감을 덜어내어 베토벤 당시의 청량한 음향을 들려준다. '바가텔'이란 하찮다는 뜻이지만, 레아슈는 〈여섯 개의 바가텔〉에서 베토벤이 음표 뒤에 숨겨둔 진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CAL1746.4 **[4CDs]** 

# 브람스: 바이올린 · 첼로 · 클라리넷(비올라) 소나타 모음곡집

제니아 얀코비(첼로)/ 실라이크 아벤하우스(피아노), 알렉산드르 브 뤼실로프스키(바이올린)/ 잉게르 쇠데르그렌(피아노), 얀 탈리히(비올라)/ 스타니슬라프 보귀니아(피아노), 귀 던게인(클라리넷)/ 장프랑수와 헤세(피아노)

## 이 음반 하나로 브람스 명곡과 명연주 해결!

4장의 CD에 브람스(1833~1897)가 각 악기별로 남긴 유명 소나타 가 담겨 있다. 첼로 소나타 1·2번(CD1), 바이올린 소나타 1·2·3 번(CD2), 클라리넷 소나타 1·2번 비올라 편곡 버전(CD3), 클라리넷 소나타 1·2번(CD4)이다. 특히 브람스가 남긴 클라리넷을 위한 특권을 비올라로 만날 수 있는 CD3와 CD4는 이 음반이 주는 큰 매력 중 하나. 독주악기는 물론 피아노의 터치와 음향도 생생하게 전해진다. 하나의 CD로 명곡들을 한 손에 쥐는 맛과 더불어 연주와 각 악기들을 배려한 녹음환경이 뛰어나다. 해설지에는 연주자소개, 간략한 곡목 소개 수록.



CAL1747

# 라벨: 현악사중주 F장조/ 시마노프스키: 현악사중주 1, 2번 요아힘 사중주단

# 20세기 초 프랑스와 폴란드의 두 거장이 노래한 최후의 낭만적 사 중주

요아힘 사중주단은 근대의 프랑스와 폴란드의 곡을 연주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독특하고 희귀한 레퍼토리와 완벽한 해석으로 명성 을 얻고 있다. 라벨과 시마노프스키의 사중주곡을 수록한 이 음반 에는 요아힘 사중주단의 설립 취지와 정체성이 담겨있다. 시마노프 스키의 음악은 농염한 선율과 신비로운 화음으로 들을 때마다 새 로운 감흥을 준다. 요아힘 사중주단의 연주는 이러한 시마노프스키 의 특징을 드러내어, 그만의 음악적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그린다. 라벨의 사중주곡에서는 유쾌한 선율과 풍부한 화음을 교차시켜 기 분을 한껏 들어 올린다.



CAL1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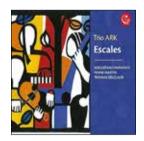
# 마담 아델라이드의 바이올린

앙상블 캉텡 르 쥔

# 18세기 중반 프랑스 왕가에서 연주되었던 고전 양식의 작품들

루이 15세의 딸이었던 마담 아델라이드와 빅투아르 드 프랑스는 상당한 수준의 음악가이자 열렬한 애호가로서, 뛰어난 음악가들과 함께했다. 그들에게 작곡을 가르쳤던 앙투안 도베르뉴와, 그들에게 작품을 헌정했던 줄리앙-아마블 마티외, 바이올린의 거장이었던 장-피에르 귀뇽이 그들이었다. 이 음반은 18세기 중반 부르봉 왕가에 울려 퍼졌던 이들의 작품을 수록했다. 이 작품들은 쿠프랭과 라모 등 18세기 초에 꽃피웠던 프랑스 바로크의 정형화된 춤곡 전통에서 서서히 벗어나, 이탈리아 고전의 영향을 받은 우아하고 단아한 특징을 들려준다.

16 이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CAL1749

**기항지** 트리오 아르크

## 민속 음악과 클래식이 결합한 트리오 아르크의 아름다운 프로젝트

사람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으로 민속 음악만한 것이 있을까? 파리에서 결성된 '트리오 아르크'는 이 앨범에서 민속 음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수록했다. 라흐마니노프의 〈비가 삼중주 1번〉은 러시아의 향취가 느껴지며, 마르탱의〈아일랜드 민요 선율에 의한 삼중주〉는 경쾌한 리듬에 감흥이 고조된다. 델클로드의 〈세벤느의 기항지〉는 프랑스 남부 산지의 모습을 그리며, 겐리크 바그너와 고렐로바의 벨로루시의 음악은 감각적이다. 〈세파라드의 민요〉는 유대선율을 기반으로 트리오 아르크의 세련된 편곡을 들을 수 있다.



CAL1857

브람스 · 리게티 - 호른 트리오

앙드레 카잘렛(호른), 귀 코멩탈레(바이올린), 키릴 휴브(피아노)

#### 브람스와 리게티는 호른을 어떻게 요리할까

브람스(1833~1897)와 리게티(1923~2006)를 대표하는 호른 3중주 2곡이 수록된 앨범으로, 브람스의 낭만성과 리게티로 대변되는 현대음악의 묘미를 흔치 않은 트리오 구성으로 감상할 수 있다. 두곡은 호른 3중주 중 가장 많이 커플링되는 곡. '호른' 트리오라는 구성의 미학을 대변이라도 하듯 녹음은 호른 소리에 근거리감을 더하여 진행되었다. 카잘렛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호르니스트로, 지금의 연륜과 무게보다는 젊은 시절의 실험성과 파격성이 더 와 닿는 앨범이다.



CAL1858 [2 for 1.5] 베토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전곡 크세니아 야코비츠(첼로) 네나드 레치치

크제니아 아코미스(젤토), 네나트 레시시 (피아노)

# 베토벤의 작품에서 누리는 환상적이고 경 이로운 경험

첼리스트 크세니아 야코비츠는 로스트로 포비치와 푸르니에, 나바라의 제자이며, 가스파르 카사도 콩쿠르 우승자이자 데트 몰트 음대 교수이다. 피아니스트 네나드 레치치는 피에르-로랑 에마르의 제자로, 쾰른 음대에서 가르치고 있다. 실내악 연주자로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이 두연주자는, 이 앨범에서 베토벤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을 덜어내고, 음악이 말하는 메시지에 진정성있게 접근한다. 그래서 야코비츠의 첼로는 노래하며, 레치치의 피아노는 가볍게 공감을 누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에서 이러한 환상적인 경험은 흔치 않을 것이다.



CAL1859

# 차이콥스키 · 피아솔라 '사계' 피아노 트리오 편곡버전

자스미나 쿨라클리히(피아노), 레프 마슬로 프스키(바이올린), 이고르 크리트첸코(첼로)

## '사계'의 피아노 트리오 편곡, 원곡을 뛰어 넘다

단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던 차이콥스키 (1840~93)와 피아솔라(1921~1992)가 트리오 '보엠'을 다리 삼아 만난다. 첫눈에 알 수 있는 것이 트리오 보엠이 '계절'을 테마로 했다는 것. 그렇게 두 사람의 대표 작 '사계(四季)'가 만나 '팔계(八季)'를 이룬다. 피아노독주(차이콥스키)와 현악앙상 블(피아솔라)로 태어났던 두 곡은 피아노 3중주로 다시 태어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매력을 선사한다. 차이콥스키를 수줍게 노래하던 트리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정적인 피아솔라의 가면을 쓴다. 이같은 변화무쌍한 기운이 이음반의 큰 매력이다.



CAL1960

# 텔레만 모음집 - '돈키호테'·비올라 다 감바 협주곡 외

질레스 콜리야드(지휘), 툴루즈 쳄버오케 스트라, 안느 가리에(비올라 다 감바)

#### 살아 숨쉬는 듯한 고악기의 질감과 음색

텔레만(1681~1767)의 네 작품이 담긴 앨범으로, '돈키호테'모음곡, 비올라 다 감바협주곡, 서곡 '기이함', 서곡 TWV55:D6이수록된 앨범이다(TWV은 '텔레만 작품목록'(Telemann Werke Verzeichnis)의 약자). 바이올린 · 작곡에도 능통한 콜리야드가 지휘하는 툴루즈 쳄버오케스트라의 사운드는 촘촘하면서도 여유롭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지만 각 악기의 질감이 생생히 살아 있어 고악기의 음색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다. 비올라 다 감바 협주곡도협연자(안느 가리에)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고악기와의 어울림을 택하고 있다.



CAL1962

빛과 지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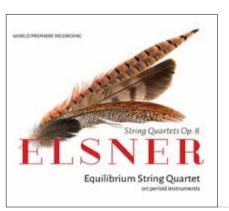
에르민 포레(피아노)

## 지중해를 둘러싼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피아노 음악

지중해는 유럽 문화의 발원지로, 유럽의 많은 음악가들이 이 바다를 노래했다. 이 앨범에서는 이탈리아의 춤곡 '타란텔라' 리듬으로 작곡된 드뷔시의 〈스티리아의 타란텔라〉를 비롯하며, 쇼팽과 리스트의 타란텔라로 지중해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전한다. 이아니스 콘스탄티니디스는 그리스의 작곡가로, 〈그리스 섬들의 춤곡〉은 다양한 춤곡 리듬과 세련된 화음을 구사하여, 역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감흥을 전달한다. 알베니스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작곡가로, 그의 두 작품은 스페인의 집은 정취와 지중해의 여유로운 분위기에 취하게 한다.

# **CD** Accord

www.cdaccord.com.pl





ACD257-2 [세계 최초 녹음]

엘스너: 세 개의 현악사중주곡, Op. 8

이퀼리브리엄 현악사중주단 (시대악기 연주)

# 쇼팽의 가장 중요한 스승인 엘스너의 고전적이고 우아한 현악사중주 작품

요제프 엘스너는 고전과 초기 낭만시대에 활약했던 폴란드의 작곡가로, 쇼팽의 가장 중요한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교향곡, 오페라, 실내악, 합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폴란드의 민속음악을 도입한 최초의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서 폴란드 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많은 작품이 명확하지 않은데, 〈세 개의 현악사중주곡, Op. 8〉은 1806년에 독일에서 출판되어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 이 곡들은 빈악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구도로 편안하고 우아한 인상을 준다.



#### ACD258-2

## 제브로프스키: 마니피카트, 미사 파스토리티아, 로라테 코엘리

지안 휘 모(트레블), 매튜 베너(카운터테너), 마치에이 고츠만(테너), 펠릭스 슈반트케(베이스), NFM 소년 합창단, NFM 합창단, 브로츠 와프 바로크 오케스트라, 안셰이 코센디아크(지휘)

#### 화려하고 극적인 표현력이 빛나는 바로크 음악의 새로운 발견

마르친 요제프 제브로프스키는 18세기 폴란드 작곡가로서, 최근에 재발견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체스토호바의 야스나 고라 수도원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성가를 작곡했으며,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 〈마니피카트〉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한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부르는 찬미의 노래로, 제브로프스키의 음악은 화려한 멜리스마를 사용하여 기쁨을 표현하며, 풍부한 화음과 빠른 장면 전개를 통해 매우 극적으로 진행된다. 〈미사 파스토리티아〉는 금관과 타악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음향이 깊고 풍부하며, 강렬한 전달력을 지닌다.



#### ACD251-2

기타독주곡집 - 바흐·타레가·아사드 등 11곡 마테우츠 코발스키(기타)

## 클래식기타가 말하는 '감미로움'의 가라사대

마테우츠 코발스키(1995~)는 폴란드 태생으로 2018년 폴란드 로드리고 기타콩쿠르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무대에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이 음반은 2018년 낙소스(NAXOS)에서 론칭한 폴란드레이블 'CDaccord'의 데뷔 앨범으로 낙소스의 음향과 녹음기술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코발스키는 바흐, 타레가, 슈베르트, 피아졸라의 작품(편곡버전)은 물론 메뉴엘 폰스(1882~1948), 세르지오 아사드(1952~), 마우로 지울리아니(1781~1829), 오스틴 망고어(1885~1944)의 작품을 소개하는 네비게이터의 면모를 선보인다. 묘하게도 익숙한 명곡보다 그의 손을 거친 낯선 작품들이 오히려친근감을 자아내며, 우리가 모르던 클래식기타의 새로운 지형을 펼쳐보인다. 클래식 초심자나 연인에게도 선물하기 좋을 정도로 연주와 음향이 감미롭다.

# Cedille Records

www.cedillerecords.org



ÇEDILLE

#### CDR90000188 [세계 최초 녹음 포함]

#### 20세기 하프시코드 협주곡

조리 비니커(하프시코드), 시카고 필하모닉, 스콧 스펙(지휘)

## 그래미 상 후보에 올랐던 미국 대표 하프시코디스트의 열정

20세기 들어 하프시코드는 독특한 음색 덕분에 많은 작곡가가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하프시코드 작품이 새롭게 탄생했다. 이 음반은 특별히 20세기의 하프시코드 협주곡을 수록했다. 영국 작곡가 월터 리의 〈콘체르티노〉는 소박하고 토속적인 영국의 감수성을 담고 있으며, 미국 작곡가 네드 로렘의 〈실내 소협주곡〉은 다양한 악기의 음색을 활용하여 아기자기하게 그린다.

체코 작곡가 빅토르 칼라비스의 〈협주곡〉은 섬세하고 현대적인 악상이 인상적이며, 영국 작곡가 마이클 나이먼의 〈협주곡〉은 과감하고 거침없는 미니멀리즘 음악을 들려준다.

# Dacapo

www.dacapo-records.dk



**DACAPO** 

#### 8226150

피니 헨리케스: 그림책, 선율의 윤곽, 에로틱

크리스티나 비외르쾨(피아노)

## 가볍지만 우아하고, 서정적이지만 쾌활한 헨리케스의 아름다운 성격소곡

덴마크의 낭만음악가 피니 헨리케스는 선율 작곡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에도 덴마크에서는 자주 연주되고 있다. 32세 때의 작품인 〈그림책〉은 1~2분 길이의 성격소품 20곡으로 이루어져있는 작품으로, 소박하고 경쾌하여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44세 때의 작품인 〈선율의 윤곽〉은 헨리케스의 뛰어난 멜로디 작곡 능력이 발휘되어있는 작품으로, 1~3분 길이의 소품 20곡이 들려주는 선율들은 각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각인시킨다. 〈에로틱〉은 29세 때의 작품으로, 이성에 대한 사랑과 감정을 소박하고 소수하게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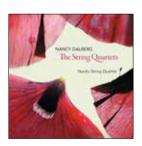


#### 9226151

피니 헨리케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음악

요하네스 쇠 한센(바이올린). 크리스티나 비외르쾨(피아노)

크라이슬러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없는 바이올린 소품의 보물창고 덴마크의 작곡가 피니 헨리케스는 낭만 소품의 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선율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특정한 성격이 강하여 감상자에게 또렷한 인상을 준다. 특히 헨리케스는 비르투오 소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이 음반에 수록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품들은 동시대의 크라이슬러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노르딕 댄스)는 리드미컬한 반면. (에로티콘)은 유연한 선율로 풋 풋한 사랑의 감정을 그린다. 〈로망스-늦여름〉은 나른한 선율로 끝 나가는 여름을 아쉬워하고, 〈마녀의 춤〉은 파가니니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기교를 들려준다.



6220655 [Hybird SACD] **달베르: 현악사중주 전곡** 노르딕 현악사중주단

## 강렬한 개성과 폭발적인 표현력으로 북유럽을 달구었던 달베르의 사중주곡

덴마크의 작곡가 낸시 달베르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낭만작곡가인 스벤센과 칼 닐센의 제자이며, 교향곡을 작곡한 덴마크의 첫 여성 작곡가이다. 그녀의 작품목록에서 세 곡의 현악사중주곡은 큰 의미가 있다. 1번은 처음으로 공개연주회에서 연주된 기악작품이며, 2번은 덴마크 밖에서 출판된 첫 작품이다. 특히 2번은 "작곡 실력이 출중한 작품으로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 있다. 마지막 3번은 스승인 닐센에게 헌정되었지만 뒤늦게 출판되 었는데, 이 곡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그녀의 개성과 강렬한 표현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 **Divine Art**

www.divineartrecords.com



divine art

ath23204 **[2 for 1.5] 프로베르거: 하프시코드 모음곡 1집** 길버트 라울랜드(하프시코드)

## 초기 바로크 건반음악의 절대강자인 프로베르거의 춤 모음곡

요한 야코프 프로베르거는 17세기 중반에 가장 명성이 높았던 음악 가로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건반음악에서는 절대적이 었으며, 춤모음곡과 같은 바로크 음악의 형식을 정립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앨범은 건반을 위한 열두 곡의 춤모음곡으로, 프로베르거의 진수를 담았다. 각 곡을 이루는 네 악장은 프랑스 스타일로서 알레망드로 시작하여 쿠랑트, 사라방드, 지그가 자유롭게 선택되어있다. 영국의 정상급 건반연주자인 길버트 라울랜드의 연주는 고풍스럽고 편안하면서도 화려한 프랑스풍의 꾸밈음이 신선한 자극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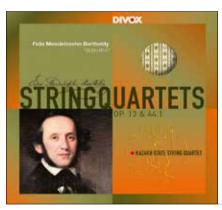
dda25189

베토벤: 혼 소나타/ 브람스: 혼 삼중주/ R. 슈트라우스: 안단테 등에티엔 추타야르(혼), 카르미네 라우리(바이올린), 존 레이드(피아노)

다른 연주자로부터 듣기 어려운 추타야르의 극적이고 직선적인 선율 몰타 출신의 정상급 혼 연주자인 에티엔 추타야르는 유럽 전역의 유수한 관현악단의 수석 연주자를 역임했으며, 서울시향에서도 객 원 수석으로 연주한 적이 있다. 현재는 몰타 필하모닉의 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다른 혼 연주자로부터 듣기 어려운 폭넓은 다이 나믹과 격렬한 음악적 표현을 구현한다. 유명한 브람스의 〈혼 삼중 주)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베토벤의 〈혼 소나타〉와 R. 슈트 라우스의 〈안단테〉에서 극적이고 직선적인 선율을 들려주며, 비트 만. 홀리거 등 현대 거장의 작품에서는 호른의 공격적인 표현에 새 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 Divox

www.divox.com



DIVOX

^DX\_21202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2, 3번

카자흐 현악사중주단

# 카자흐 사중주단의 뛰어난 연주 덕택에 피어나는 멘델스존의 매력

1988년에 창설된 이후 수많은 상을 받으며 높은 명성을 쌓아 온 카자흐 국립 현악사중주단이 이 음반에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2번과 3번을 수록했다. 멘델스존은 실내악곡에 신중하게 접근했으며, 따라서 고전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났다. 카자흐 사중주단은 이 작품의 고전미를 훌륭하게 그려냈으며, 낭만적인 극적 흐름 또한 우이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두 곳은 각각 18세와 28세에 장곡되 곡이지만 모차르트 이래 최고의 천재라는 수신어에 걸막게 음악전 성수도와 완성도는

이 두 곡은 각각 18세와 29세에 작곡된 곡이지만, 모차르트 이래 최고의 천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음악적 성숙도와 완성도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 카자흐 사중주단의 뛰어난 연주 덕택이기도 하다. **Dynamic** 

www.dynamic.it





CDS7841 [세계 최초 녹음] 사마르티니: 하프시코드 소나타 1~18번

시모네타 에게르(하프시코드)

#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초기 고전의 매력적인 건반 소나타

지오바니 바티스타 사마르티니는 근대 교향곡의 시초를 만든 인물로 음악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교향곡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에서 매력적인 작품들을 다수 작곡했는데, 이 음반에 수록된 열여덟 곡의 소나타 또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초기 고전의 중요한 작품들이다. 밀라노 음악원 교수인 시모네타 에게르는 이탈리아의 중요한 하프시코드 연주자로서, 1999년에 출판된 델라보라의 크리티컬 에디션으로 연주했다. 하프시코드의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화음, 감각적인 리듬으로 사마르티니 소나타들의 활기 있고 우아한 뉘앙스를 매력적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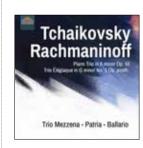
CD97842

슈만: 간주곡 Op. 4, 소나타 Op. 11

툴리아 멜란드리(포르테피아노)

#### 1830년에 제작된 포르테피아노로 연주한 역사적 연주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 툴리아 멜란드리는 시대악기의 거장인 바르트 판 오르트의 지도로 헤이그 왕립 음악원을 졸업했다. 그녀는 슈만이 작곡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던 1830년에 요제프 시몬에 의해 제작된 포르테피아노로 슈만의 〈간주곡, Op. 4〉와 〈소나타, Op. 11〉을 연주했다. 포르테피아노 연주는 음의 지속시간이 짧아 더욱 속도감이 느껴지며, 타악기와 같은 효과를 갖는 타건이 극적인 표현과 생동감을 돋운다. 또한 화음이 깔끔하여 슈만이 의도했던 화음진행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투명한 음정에는 순수한 슈만의 마음이투영되어있다.



CDS782

러시아 피아노 트리오 명작

- 차이콥스키 Op.50, 라흐마니노프 '엘레지' 1번 외

프랑코 메체나(바이올린), 세르지오 파트리아(첼로), 엘레나 발라리 오(피아노)

## 바이올린의 '탈선'이 만드는 묘한 균형성

파트리아(첼로)와 발라리오(피아노)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며 빼어 난 호흡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첼로-피아노 커플이다. 여기에 2015 년부터 메체나(바이올린)가 함께 하여 이탈리아 실내악의 새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차이콥스키의 ①피아노트리오 Op.50 ②테마 콘 바리아지오니 ③라흐마니노프의 '엘레지' 1번이 수록된 음반의 헤게모니는 나중에 합류한 바이올린이 가져간다. 메체나는 첼로-피아노의 안정성에 함께 하기보다 오히려 두 작곡가 특유의 선율선을 부각시키는 멜로디 중심의 해석을 이끌어나간다. 마치 두작곡가의 새로운 바이올린 협주곡을 만들어내는 듯한 바이올린의 적극성에서 실내악의 '균형성'보다 '파격성'을 느껴볼 수 있다.

22 olsed-ho M 81s

# Gramola

www.gramola.at





99176

#### 슈베르트: 피아노 삼중주 1, 2번

파울 바두라-스코다(피아노), 볼프강 슈나이더한(바이올린), 보리스 페르가멘쉬코프(첼로)

#### 전설적인 연주자들의 만남이 낳은 전설적인 연주

이 세 연주자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파울 바두라-스코다는 빈 음악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며, 바이올리니스트 볼프강 슈나이더한은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역임했던 빈의 터줏대감이었다. 첼리스트 보리스 페르가멘쉬코프는 1974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로, 20세기 후반 러시아 최고의 첼리스트였다. 1984년 빈에서 이루어진 전설적인 연주자들의 만남을 이 음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감 넘치는 표현과 극적인 제스쳐가 만드는 감각적인 사운드로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전설적인 연주이다.



99194 [세계 최초 녹음] 마이제더: 비르투오소 작품들

토마스 크리스티안(바이올린), 앙상블 비올리시모

# 19세기 전반 빈에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던 마이제더의 화려한 현 악작품

초기 낭만시대의 작곡가인 요제프 마이제더는 빈 궁정 오페라 오 케스트라의 악장이었으며, 호프부르크 궁정의 바이올린 솔리스트 였다. 또한 19세기 바이올린 비르투오소였던 하인리히 빌헬름 에른 스트의 스승이며, 명예로운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와 빈 악 우협회 회원이었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실내악 연주자로서 현을 위한 실내악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 음반에서 당시 최고 의 영예를 누리던 그의 진면목을 들을 수 있다. 최상의 바이올린기교를 구사하며 밝고 화려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마술과 같은 작품들이다.



99169

브루크너: 교향곡 5번 (오르간 편곡)

마티아스 기젠(브루크너 오르간)

# 브루크너가 직접 연주했던 성 플로리안 성당의 오르간으로 듣는 장엄한 교향곡

브루크너는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로서 그의 음악은 오르간이 연상되는 음악적 효과가 반영되어있다. 두터움 화음과 화음의 동시적움직임. 성당의 잔향을 고려한 전체 휴지 등이 그 예이다. 그래서그의 교향곡들은 오르간으로 종종 연주되는데,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오르간적이며 또한 매우 훌륭하다. 이 음반은 마티아스 기젠이 직접 편곡하여 오르간으로 연주한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으로, 가장 종교적이라는 평을 받는 작품으로서 장엄한 표현이 훌륭하다. 브루크너가 직접 연주했던 성 플로리안 성당의 오르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GP756

#### 댕디: 소나타, 여행의 광경

장-피에르 아르망고(피아노)

## 리스트적인 표현력과 프랑스적인 정서가 결합한 근대 프랑스의 거장

〈프랑스 산사람 주제에 의한 교향곡〉으로 기억되고 있는 뱅상 댕디는 근대 프랑스의 중요한 음악가로, 뛰어난 작곡가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교육자로서 프랑스 음악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의 작품은 바그너와 리스트의 영향으로 두터운 화음과 극적인 전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낭만적인 선율과 인상주의적인 환상적인 표현으로 프랑스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 〈소나타〉는 변주곡과 순환주제가 극적으로 뒤얽힌 거대한 환상곡에 가까워 리스트의 소나타를 연상시키며, 〈여행의 광경〉은 소품집으로서 다양한 음악적 묘사가 돋보이는 서정적인 작품이다.



GP801-02 [2 for 1.5] 봄템푸: 피아노 소나타 전곡 루이사 텐데르(피아노)

리스본에서 피어난 고전시대 건반음악의 꽃

조앙 도밍구스 봄템푸는 베토벤과 동시대에 활약했던 포르투갈의 작곡가로, 하이든과 모차르트, 베토벤 등 빈 약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만의 연주 기술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보다 극적이며 높은 수준의 연주력을 요구한다. 이 음반에는 그가 작곡한 11개의 피아노 전곡을 수록했다. 빈 악파의 영향이 짙은 '작품 1'부터 그가 작곡가로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한 40대 중반 즈음에 작곡한 완숙한 고전미가 매력적인 11번까지 그의 음악세계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전시대 건반음악의 발전과 낭만으로의 진입도 함께 조망할 수 있다.



GP812 **[세계 최초 녹음]** 레바논 피아노 음악 2집

타티아나 프리마크-쿠리(피아노)

# 중동의 이국적인 서정과 서구적이고 현대 적인 요소가 결합한 신세계

중동에 위치한 레바논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비등할 정도로 서구에 개방적인 나라이다. 그런 만큼 수도인 베이루트가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융합적인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음악도 예외가 아니다. 고대부터 번성했던 지역이었던 만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서구적이고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한 레바논만의 독특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풀레이한은 그 선구적인 인물로서 서구적인 음정에 이국적인 처점이를 실었다. 쿠리는 이국적인 화음에 감각적인 극적 표현이 돋보이며, 겔랄리안과 하우라니는 짙은 토속적인 향취가 매력적이다.



GP815

체르니: 20개의 기교 연습곡

니콜라 호르바트(피아노)

# 벨칸토 가수의 멜리스마처럼 빠르고 유연 하게 움직이는 건반 예술

칼 체르니는 베토벤의 제자로서 가장 잘 알려진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리스트의 중요한 스승이었으며. 오늘날까지 가장 영 향력을 끼치고 있는 피아노 교육자 중 한 사람이다. 그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시대를 초월하는 뛰어난 피 아노 교습서 덕분이다. 그의 연습곡들은 대부분 교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 곡 한 곡 체르니의 음악적 역량이 십분 녹아있다. 〈30개의 기교 연습곡〉은 빠른 속도로 연주하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작곡된 곡으로, 마치 벨칸토 가수의 멜리스마처럼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건반 예술을 들려준다.



GP816

부르크뮐러: 25개의 쉬운 연습곡과 상위단계의 연습곡, 18개의 성격 연습곡

칼 페테르손(피아노)

## 연주하는 즐거움과 감상하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게 하는 연습곡의 명작

프리드리히 부르크뮐러는 독일 출신이지만 파리에 정착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당시 쇼팽, 리스트 등 피아노 음악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던 파리에서는 피아노 교육이 붐을 이뤘는데, 부르크뮐러는 새로운 교습서를 작곡하여 교육자로서도 명성을 누렸다. 이 음반에 수록된 〈25개의 쉬운 연습곡과 상위단계의 연습곡〉은 기술적으로 초심자에게 적합한 곡일뿐만 아니라, 경쾌한 멜로디로 연주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게 한다. 〈18개의 성격 연습곡〉은 서정적인 선율과 감각적인 화성진행으로 슈베르트와 슈만을 연상시키며, 콘서트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GP823

사티: 피아노 전곡 4집

니콜라 호르바트(피아노)

#### 대중적인 취향과 창작에 대한 고뇌 사이에 있던 사티의 솔직한 표 형

에리크 사티는 복잡해져만 가는 후기 낭만 시대에 가장 단순한 음 악을 작곡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사후에도 더욱 영향력이 확대되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근대 프랑스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음반은 유명한 〈Je te veux?〉를 포함하여 1897년부터 1906년까지의 소품들을 모았다. 대중적인 취향에 맞춰져 있는 듯하지만, 독특한 화성의 시도들과 회전하는 진행 등 그만의 당돌하고 진지한 모습들도 엿보인다. 사티는 당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 작품들은 사티의 창작에 대한 고뇌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GP784 [세계 최초 녹음]

폴: 해변의 그리들, 비가 모음곡, 하그바르트

아미나 게름(피아노)

# 독일의 인상주의 작곡가라고 평가되고 있는 페르디난트 폴의 피아 노 음악의 세계

페르디난트 폴은 독일의 낭만작곡가로서, 특히 자신이 연주했던 피아노를 위해 여러 작품을 남겼다. 그는 대담한 화성과 복잡한 구성을 통해 마치 그림을 그리듯 표현했다. 그래서 독일의 인상주의 작곡가라고 평가되곤 하다. 〈해변의 그림들, Op. 8〉은 이러한 그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작품으로, 바다의 모습과 여러 아기자기한 주제들을 들려준다. 〈비가 모음곡, Op. 11〉은 관현악적인 다양한 음색표현과 장대한 구성을 가진 결작이다. 〈하그바르트, 그리그 주제에의한 노르딕 랩소디〉 또한 독일 후기낭만의 진지하고 상당한 무게 감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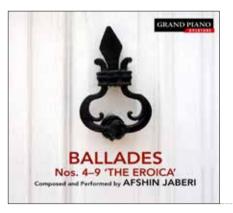
GP795 [세계 최초 녹음 포함]

차이콥스키: 피아노를 위한 오페라와 가곡 편곡

율리아 제베루스(피아노)

#### 피아노로 듣는 차이콥스키의 가곡과 오페라의 아름답고 극적인 선 율

차이콥스키는 교향곡과 협주곡, 실내악 등 기악곡이 자주 연주되지 만. 그는 상당한 수의 가곡과 오페라도 남겼다. 뛰어난 선율 작곡가로서 그의 가곡은 아름다운 선율과 낭만적 비애를 담고 있으며, 오페라 또한 19세기의 비극적인 정서를 극적인 선율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 음반은 차이콥스키의 가곡과 오페라를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한 것으로, 그의 음악적인 환상을 더욱 순수하게 들려준다. 이와 함께 독일 작곡가인 찰스 보스와 칼 프륄링의 차이콥스키주제에 의한 환상곡은 당시 작곡가들이 느꼈던 차이콥스키에 대한 애틋한 감상문이다.



GP818 [세계 최초 녹음]

자베리: '영웅' 발라드 4~9번

압신 자베리(피아노)

## 풍부한 악상과 폭넓은 음악적 효과, 다양한 인간적 감수성의 조화

압신 자베리는 카타르 출신의 이란계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그의 음악은 페르시아 스타일의 선율과 유럽의 낭만적인 풍부한 화음. 과감한 현대성이 결합되어있다. 그래서 이국적이면서도 클래식 음악 애호가에게도 낯설지 않은 감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 '영웅'이라는 타이틀로 묶여있는 아홉 개의 발라드는 그의 대표적이라고 할 만큼 악상이 풍부하며, 폭넓은 음악적 효과로 가득하다. 또한, 다양한 인간적 감수성으로 마음 깊이 전해오는 감동이 있다. 이 음반에는 이 중 4번부터 9번까지 수록되었다.

# **IBS Classical**

www.ibsclassical.es



lbs CLASSICAL

IBS32019

##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고요한 숲, 론도 등

아돌포 구티에레스 아레나스(첼로), 마그데부르크 필하모닉, 킴보이시이(지휘)

# 서정적인 선율미로 가득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운 부드러운 카 리스마

아레나스는 14세에 첼로를 시작했지만 스페인 최고의 명문인 레이나 소피아 음악학교를 졸업했으며, 라벨 아카데미로부터 '모리스라벨 상'을 받았다. 그는 세계 주요 관현악단과 협연하고 있으며, 바흐와 베토벤 음반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음반에서는 드보르자크의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작품을 녹음했다. 대표적인 '첼로 협주곡'과 '고요한 숲',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론도'를 수록하여 앨범의 가치를 더한다. 아레나스의 연주는 유연하면서도 우아하며, 서정적인 선율미로 가득하다. 음악을 이끄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



IBS52109

힌데미트: 무반주 비올라 소나타 전곡

헤수스 로돌포(비올라)

## 힌데미트가 추구했던 음악적 이상을 실현한 정확하고 에너지 넘치 는 연주

20세기 전반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힌데미트는 당대 최고 의 비올리스트로서 중요한 비올라 작품들을 작곡했다. 그 중에서도 네 곡의 무반주 소나타 들은 소중한 비올라 레퍼토리로서 많은 사 랑을 받고 있으며 자주 연주되고 있다. 이 음반에서 전곡을 연주한 해수스 로돌포는 스페인 출신의 비올리스트로, 예일대학과 메네스음악학교, 맨해튼 음대에서 공부했으며, 구스타프 말러 청소년 오 케스트라에서 비올라 수석을 역임했다. 그의 연주는 정확하며 에너지가 넘치며, 힌데미트가 추구했던 직관적이고 사실주의적인 이상에 가까운 표현을 들려준다.



IBS62109

# 탱고와 밀롱가

로베르토 아우셀(기타)

# 피아솔라와 그 후배들의 작품에서 듣는 남미의 아름다운 풍경과 즐거운 여유

기타리스트 로베르토 아우셀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라디오 프랑스 콩쿠르, 포르토 알레그레 콩쿠르, 알리리오 디아스 콩쿠르 등 유수한 기타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현재는 쾰른 음대 교수이다. 이음반은 자신의 고향 아르헨티나의 음악인 탱고와 밀롱가를 수록하여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탱고 음악의 대명사인 피아솔라의 〈알프레도 고비의 초상〉과 〈슬픈 고르도〉를 비롯하여, 그를 잇는 후배 작곡가들의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음악들에서 남미의 아름다운 풍경과 즐거운 여유가 느껴진다. 아우셀의 연주에는 향수어린 진정성이 담겨있다.



#### IBS72109

**마넨: 협주적 소나타/ 게라르드: 소나타/ 몽살바체: 협주적 소나타** 길레르모 파스트라나(첼로), 다니엘 블랑슈(피아노)

# 생명력 있는 리듬과 호소력 짙은 멜로디로 새롭게 발견하는 스페 인 음악의 매력

20세기의 스페인 음악은 유럽의 아방가르드와 거리를 두고, 이베리아 반도의 생명력 있는 리듬과 호소력 짙은 멜로디를 추구했다. 이 음반에 수록되어있는 세 곡의 첼로 소나타들은 이에 대한 보고 서이다. 호안 마넨은 바이올리니스트와 작곡가로서 명성을 누린 음악가로 〈협주적 소나타〉에서는 첼로와 피아노 두 악기에 열정이가득한 음향을 담았다. 로베르트 게라르드의 〈소나타〉는 역동적인리듬과 2억장의 서정적인 진행이 매력적이다. 사비에르 몽살바체의 〈협주 소나타〉는 과감한 표현과 풍부한 화음으로 스페인 음악의매력을 재발견하게 된다.



# IBS122019 [세계 최초 녹음 포함]

#### HERBANIA

실비아 마르케스(하프시코드)

##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재발견되고 있는 하프시코드의 새로운 매력

20세기 후반에 스페인 작곡가들이 작곡한 하프시코드 독주곡들을 수록하여,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발견되고 개발되고 있는 하프시코드의 또 다른 매력을 들려준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타협주곡인 〈아란후에스 협주곡〉의 작곡가 로드리고의 〈전주곡과 리토르넬로〉는 고풍스러운 스타일에 그만의 감수성을 담았으며, 토마스의 〈클라브생 여행〉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다양한 나라의 스타일을 모아놓은 유쾌한 소품집이다. 스페인 최고의 작곡가로 손꼽는 산체스—베르두의 〈복기지 II〉는 스페인 음악의 흥미로운 현주소를 들려준다.



RS82100

#### 브람스: 첼로 소나타 1, 2번

아시에르 폴로(첼로), 엘다르 네볼신(피아노)

#### 첼로로 시를 읊듯 들려주는 브람스의 이야기

브람스가 남긴 두 곡의 첼로 소나타는 가장 사랑받는 낭만시대의 첼로 작품이다. 첫 곡은 32세 때에 완성된 초기 곡으로서 직선적이고 염세적이라면, 두 번째 곡은 53세 때 완숙한 시기의 작품으로서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으면서 긍정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 곡들이 브람스가 그 시대에 품은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첼리스트 아시에르 폴로는 스페인 국립 방송국으로부터 '평론가의 눈'과 CEOE 재단 음악해석상, '빌바오의 빛' 등 여러 상을 받은 스페인 대표 첼리스트로, 섬세한 감성 표현으로 시를 읊듯 브람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BS92109

#### 카운터테너와 아코디언의 이중주

카를로스 메나(카운터네터), 이냐키 알베르디(아코디언)

#### 시대를 초월하는 황홀한 음악적 환상

스페인을 대표하는 카운터테너 카를로스 메나가 아코디언 반주와함께 고음악부터 오늘날 스페인 작곡가들의 신작까지 폭넓은 음악세계를 들려준다. 메나의 깔끔하고 따뜻한 음성은 이 음반에 수록된 그레고리안 찬트의 〈아베 마리아 스텔라〉와 데 프레의 노래 여섯 곡 등 고음악에서 빛을 발한다. 또한 해수스 토레스, 산체스—베르두 등 스페인 작곡가들의 작품들 또한 감성적으로 전달하여, 그의 노래에서 오늘날 음악만이 갖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정서를 느낀다. 마지막으로 여러 찬송시들을 사용하여 노래로 만든 바흐의 〈샤콘〉은 황홀한 충격이다.



BS142019 [2 CD for 1,5] 브라우어: 여섯 개의 기타 소나타

리카르도 갈렌(기타)

#### 브라우어가 발표한 최근의 소나타들이 들려주는 폭발적인 표현력

레오 브라우어는 기타리스트들이 가장 동경하는 작곡가로, 그의 기타 작품은 기타에 최적화되어있으면서도 음악적 효과가 뛰어나기에 대단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주로 개별적인 작품으로 작곡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악장의 소나타를 작곡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가 현재까지 발표한 여섯 곡의 기타 소나타를 수록한 이 앨범에서 그의 최근 음악을 확인할 수 있다. 브라우어의 소나타들은 감각적인 다이나믹과 과감한 제스쳐로 폭발적인 표현력을 보여준다. 다양한 기교로 만들어내는 색다른 음색또한 이 작품들의 묘미이다.



IBS152019

#### 프렐류드

안토니오 갈레라(피아노)

#### 전주곡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서정적이고 자유로운 갈레라의 연주

스페인의 피아니스트인 안토니오 칼레라는 '화킨 로드리고' 음악원과 '알프레드 코르토'에콜 노르말에서 공부했으며, 유럽 아마하 음악재단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특별한 감각을 지녔다". "흠갑을 데 없는 기교". "매우 보기 드문 음악성" 등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전주곡'이라는 이 음반에서 바흐와 프랑크, 드뷔시, 뒤티외의 작품을 수록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전주곡'은 본래 자유로운 속성을 지닌 악곡으로, 이 음반은 작곡가들이 펼진 음악적 자유로 가득하다. 서정적이고 자유로운 갈레라의 해석또한 이 음반의 매력이다.

28 아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29

# Indesens

www.indesensdigital.fr





#### INDF093

## 구노 · 드뷔시 · 오펜바흐 등 프랑스 성악 · 기악 모음집

시게코 하타(소프라노), 미셸 바레·아드리앙 라몽(트럼펫), 파스칼 곤잘레스(트롬본), 카미유 레브흐퀴에르(호른), 베누아 포레(튜바)

## 금관5중주와 소프라노가 함께 하는 달콤한 노래

금관5중주와 소프라노가 만나 펼치는 흥미로운 구성이 빛을 발하는 앨범이다. '마그니피카'는 1985년 창단 이후 프랑스 작품을 금관 5중주로 편곡하여 선보여온 단체와 1988년 오사카 프랑스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시계코 하타가 함께 하여 프랑스어권 주요아리이를 선보인다. 보옐디외(1775~1834) · 구노 · 오펜바흐 · 카탈라니의 노래들과 라모 · 구노 · 드뷔시 등의 기악작품이 교차되어 연주된다. 마치 아리아와 간주곡이 교차하여 만드는 한편의 오페라를 감상하는 듯하다.



# INDE094

## 금관 5중주 '판타지 브릴란테'-아르방 · 비제 · 로시니

미셸 바레·아드리앙 라몽(트럼펫), 파스칼 곤잘레스(트롬본), 카미유 레브흐퀴에르(호른), 베누아 포레(튜바)

# 시원, 경쾌, 우아한 프랑스산 금관 5중주

금관 5중주단인 '마그니피카'는 1985년에 창단되었다. 프랑스를 기점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음반에 비제 '카르멘 환상곡'이 메인디시로 삼고, 프랑스가 낳은 금관의 귀재 장 바티스트 아르방의 주요 레퍼토리를 편곡하여 담았다. 제목이 '화려한 환상'이다. 관악기를 통해서도 오페라 아리아 같은 화려함을 그려낸 로시니의 작품도 분위기의 결을 맞춘다. 눈앞에서 5중주의 대형이 펼쳐진 것 같은 실감나는 음향감이 매력적이다.



#### **NDE095**

# '듀레즈, 갈리아노를 만나다'-갈리아노 대표작 6곡 외

사티 · 피아솔라 · 로사로 장-프랑스아 듀레즈(마림바 · 타악기), 리 샤르 갈리아노(아코디언), 발레니타 오케스트라

# 영화음악과 탱고로 아코디언의 모든 매력을 쏟아내다

프랑스의 마림바니스트 장-프랑스아 듀레즈가 세계적인 아코디언주자 리샤르 갈리아노와 함께 한 특별한 앨범이다. '클로드를 위한 탱고' '로리타' '마르그리스와의 왈츠' 등 갈리아노(1950~)의 대표적 6곡과 사티, 피아솔라 등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두 사람의 끼만으로도 탱고 '영화음악을 느끼기에 충분한데 갈리야르 '주 드람', 브라질 작곡가 네이 로사로(1952~)의 마림바 협주곡, '리베르 탱고' 등에 발레티나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여놀라운 세계를 보여준다. 클래식 초심자는 물론 마림바나 아코디언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은 이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음반이다.



#### INDE097

#### **노바크: 판/ 체스노코프: 눈** 파트리크 에메를레(피아노)

## 한 편의 교향곡에 비견되는 신비와 환상의 세계

체코 작곡가 비톄슬라프 노바크는 남다른 섬세한 표현력으로 신비와 환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의 피아노 작품 〈판〉은 이러한 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피아노를 위한 교향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장면부터 거대하고 웅장한 장면까지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하는 풍부한 악상과 장대한 규모로 감상자를 압도하는 이 작품과의 만남은 행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미트리 체스노코프는 우크라이나인으로서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로, 〈눈〉은 신비한 화음과 뛰어난 서사적 표현력으로 감상자를 몰입하게 한다.



#### INDE101

#### 브릿지 · 브리튼 첼로 소나타 외

데이비드 로우워즈(첼로), 프랑수와 다뒤(피아노)

#### 첼로로 기리는 스승과 제자의 정

프랭크 브릿지(1879~1941)과 벤자민 브리튼(1913~1976)은 사제 관계였다. 두 사람의 첼로 소나타는 20세기 레퍼토리를 선보이고자하는 첼리스트들이 의미 있게 엮는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형제들'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아르보 패르트(1935~)의 몽환적인 '프라트레스'는 서곡으로 위치하여 두 작품이 20세기에 태어난 한 몸임을 의미한다. 의미 있는 선곡이 빛을 발하는 음반이다.



#### INIDE116

#### 트롬본 연주곡집 – 페레 페란 '트본과 자크' 외

자크 메거(트롬본), 장 브라운(지휘), 그랑드 듀칼레 군악대

# 상상 그 이상의 매력을 선보이는 트롬본

스페인의 페레 페란(1966~)의 작품 '트본과 자크' 중 '트론과 자크 의 사랑'을 듣고 있자니 작품이 좋은 건지, 자크 메거의 트롬본 솜 씨가 좋은 건지 도통 분간이 안 간다. 프랑스의 트롬보니스트 자크 메거의 손에 들린 트롬본은 더 이상 오케스트라의 음량이나 보태는 기능성 악기가 아닌 독주악기로 다시 태어난다. 페란의 작품을 비롯하여 '트롬본 판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 미쉘 드파야, 빔비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과한 음량을 덜어내고, 감상에 최적화된 녹음도 일품이다.



#### INDE121

유포니움 연주곡집 '시(詩)' - 생상  $\cdot$  라벨  $\cdot$  포레  $\cdot$  비제 등

유포니움(릴리안 메우린), 빅토르 뮈트럴(피아노)

# 부드러우면서 경쾌한 유포니움만의 매력 속으로

호른과 소리가 같지만, 유포니움만의 매력이라면 호른보다 더욱 유연하고 박진감있는 매끄러운 흐름이다. 포레 '파빌리온'과 비제 '카르멘 판타지'가 유포니움이 속한 금관의 힘있는 매력을 보여준다면, 생상 '백조'와 라벨 '파반느' 그리고 가브리엘레 필리포의 '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금관악기의 부드러움을, 유포니움이 대변한다. 릴리안 메우린은 1996년 생으로, 현재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포니움 연주자로 활동 중이다.

# Naxos

www.naxos.com





Naxos 8503297 [30 DISCs] Special Price 클래식 음원의 보고 "낙소스" 낙소스 '30' 콜렉션 고음악(Early music)편

#### 고음악의 매력이 담긴 보물같은 박스물

낙소스 레이블에서 발매되어 호평을 받았던 30장을 모은 박스물로 환상적인 가격으로 우리를 숨은 역사 속으로 안내할 음반이다. 그레고리안 찬트부터 17세기 말로 한정하여 성악으로 시작하여 기악으로, 단선율로 시작하여 화성음악으로 나아가는 음악적 변화가 한 눈에 보인다.

CD1~10은 초기 양식과 기초를 닦은 작곡가 힐데가르트, 마쇼, 뒤페, 오케겜 등의 대표작이다.

CD11~20은 조스켕, 팔레스트리나, 라수스 등의 미사와 합창음악 등을 만날 수 있다.

CD21~30은 기악의 시대로 관악기·오르간·류트·비올·테오르보 등의 소리를 만날 수 있다. 헨델(1685~1759)과 바흐(1685~1750) 이전의 고음악들로 국한된다.

CD는 종이케이스에 담겼으며 트랙은 각장이 뒷면에 게재됐다. 해설지(11쪽 분량/영문)에는 고음악에 관한 기초지식이 담겨 있다.

# [음반별 수록곡 내용]

#### [CD1~10] 초기 양식과 기초를 닦은 작곡가들

CD1~CD10은 고음악에서 중요시되는 양식과 작곡가 힐데가르트, 마쇼, 뒤페, 오케겜 등의 대표작을 접할 수도 있다. 그레고리안 찬트(CD1), 힐데가르트 폰 빙겐(1098~1179)의 음악(CD2), 음유시인(트루바두르)의 음악(CD3), 카르미나 부라나(CD5), 기욤 드 마쇼의 미사(CD6), 기욤 뒤페(1400?~1474)의 샹송, 오케겜(1430?~1495?)의 레퀴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CD11~20] 미사와 합창음악

CD11~CD20은 미사와 합창 등 성악곡을 만날 수 있다. 강림절을 위한 미사 콘셉티오 투아(CD11), 제목 없는 미사(CD13), 세속음악인 프로톨 레(CD14), 조스켕 데 프레(1440~1521)의 미사 '무장한 사람'(CD15), 루이스 드 밀란(1500~1561)의 비우엘라(기타 같은 악기) 음악(CD16), 팔레스트리나(1526?~1594)의 마르첼리 미사(CD18), 라수스(1532?~1594)의 '베드로의 눈물'(CD19) 등이다.

#### [CD21~30] 기악의 시대

CD21~CD30은 다양한 악기의 작품집과 마드리갈이다. 가브리엘리(1554~1612)의 관악기 모음 2집(CD21), 엘리자베탄(1558~1603)의 콘소르트 음악과 노래(CD22), 스베일링크(1562~1621)의 오르간 작품집(CD23), 다울랜드의 파반느(CD24), 제수알도(1560~1613)의 마드리갈(CD25), 캄피온(1540~1581)의 류트송(CD26), 몬테베르디(1567~643)의 마드리갈(CD27), 로스(1596~1662)의 비올ㆍ류트ㆍ테오르보를 위한 콘소르트음악이 담겨 있다.



Naxos 8501404 [14 DISCs]

## 뇌클레베르크의 그리그 피아노 독주곡 모음집

에나르 스틴-뇌클레베르크(피아노·오르간·하모니움), 노르웨이 국립실내합창단, 루프 텔레프센(낭송)

#### 애호가와 초심자를 모두 울리는 북유럽의 피아니즘

노르웨이 피아니스트이자 낙소스의 간판스타인 뇌클레베르크(1944~)가 그리그에 탐닉하던 1993~94년에 녹음한 14종 음반을 모은 박스물이다. '클래식'이라는 장벽을 넘어 그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아름답게 다가갈 음악들로 구성되어 초심자들에게도 적극 권장한다. 소나타(CD1), 민요와 춤곡(2), 발라드 Op.24(3), 노르웨이 농부 춤곡 Op.72(4), 전통선율 모음곡(5 · 6 · 7), 서정 소곡(8 · 9 · 10), 대사와 함께 한 '페르귄트'(11)와 합창이 있는 '페르귄트'(12), 노르웨이 멜로디(13), 편곡 모음곡 Op.52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다종다양한 곡이 북유럽의 순수한 서정과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뇌클레베르크는 1975~1982에 독일에서 교편을 잡고, 이후 노르웨이 음악원 교수에서 자국의 음악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해설지는 없지만, 음반 케이스의 곡목들을 쭉 나열해보면 우리가 모르던 그리그의 피아노 우주가 한 눈에 들어온다.

# [보조자료]

노르웨이 피아니스트 에나르 스틴-뇌클레베르크(1944~)는 그리고 전문 연주자이자 낙소스가 자랑하는 간판 피아니스트이다.

2019년 6월에 공식 출시된 박스물로, 뇌클레베르크가 그간 낙소스에서 발매했던 그리그 명음반 14장을 모은 것이다. 녹음은 그가 그리그의 세계에 열정적으로 탐구하던 1993년과 1994년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들이다.

그리그는 수많은 피아노 독주곡을 남겼다. 하지만 그의 작품세계는 주로 피아노 협주곡이나 '서정모음곡'으로만 대변되곤 한다. 이 박스물은 그리그의 피아노 세계가 이러한 작품들로 국한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클래식 초심자들도 부담 없는 가격, 순도 높은 음향, 친근하고 서정적인 선율로 노르웨이 클래식의 매력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피아노 소나타 Op.7(CD1), 25곡의 노르웨이 민요와 춤곡(CD2), 피아노 발라드 Op.24(CD3), '노르웨이 농부 춤곡' Op.72(CD4) 등의 대표작을 지나면 노르웨이의 전통선율에 착안한 모음곡들(CD5·6·7)이 펼쳐진다. 특히 이 모음곡들(CD5·6·7)은 피아노 외에 뇌클레베르크의 장기인 오르간과 손풍금의 일종인 '하모니움'으로도 연주하여 색다른 음향으로 북유럽의 정서를 만끽하게 한다.

피아니스트들이 사랑하는 서정 소곡(CD8 · 9 · 10)은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시킨다. '페르귄트'(CD11)는 입센(1828~1906)의 연극에 사용된 음악인데, 연주와 함께 원작의 대사들을 나레이터가 낭송(영어)하기도 한다.

'올라프 트리바손' Op.50(CD11)과 또 다른 '페르귄트'(CD12)는 노르웨이 국립 실내합창단과 함께 하는데, 피아노소리를 전면에 내세운 녹음 방식으로 목소리에 묻히지 않는 명료한 타건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음반은 그리그가 사랑한 노르웨이의 노래선율을 피아노로 만나는 데에 있다. '노르웨이 멜로디'(CD13)가, 마지막 장(CD14)에서 도 편곡 모음곡 Op.52가 담겨 있다.

뇌클레베르크는 1975 $\sim$ 1982에 독일의 저명한 음대에서 교편을 잡은 후 노르웨이 음악원 교수로 임명되어 노르웨이의 음악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8559857 [전곡 세계 최초 녹음]

리차드 대니얼푸어: '아프로디테에게 말하다' & '현을 위한 교항곡' & '카디시' 사라 셰퍼(소프라노), 막심 셈요노프(프렌치 호른), 에프게니 프라빌로프 (바이올린), 러시안 스트링 오케스트라(연주), 미샤 라흐레프스키(지휘)

상과 죽음 그리고 사랑을 통해 궁극적인 평화,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 인생의 분기점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의식의 흐름이 담긴 '현 악사중주 작품집'(8.559845)에 이은 리차드 대니얼푸어의 신작. 작곡가의 '현악사중주 6번'을 편곡하기도 했던 대니얼푸어 최고의 해석자 미샤 라흐레프스키가 지휘를 맡았다. 작곡가와 오랜 시간 교분을 쌓았던 에리케 종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탄생한 '아프로디테에게 말하다'는 세종솔로이스츠가 세계 초연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아가) 한 구절("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을 부제로 사용한 '현을위한 교향곡', 유태인의 기도로 알려진 '카디시'로 이루어진 본 음반은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을 통해 궁극적인 평화(영원)를 바라보는 작곡가의 시선이 담겨 있다. 마치 말러의 시선을 닮은 듯한 흐름이 인상 깊다.



# 8559868 [전<mark>곡 세계 최초 녹음</mark>]

#### 그레고리 허터: 세속 합창 작품집

세넌 세이(소프라노), 스콧 니콜라스(피아노), 컴포저스 콰이어 & 싱어즈 – 미네소타 코럴 아티스트(합창), 필로복스 앙상블(연주), 로버트 슈네만 & 대니얼 쇼 & 매튜 컬로튼(지휘)

#### 행간의 멜랑콜리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목소리의 힘

장르와 사조를 넘나드는 미국의 작곡가 그레고리 허터의 세속합창음악 작품집이다. 2009년에서부터 2014년 사이에 작곡된 작품들은 셰익스피어서부터 사라 티즈테일을 넘나드는 시간과 인상을 머금고 있다. 작곡가는 본 윌리엄스와 코플랜드의 스타일로 텍스트의중심에 다가서고 있는데, 투명하고 환상적인 반향과 '핸드벨' 등을동원한 음향효과를 통해 섬세하고 감미로운 이미지를 자아냈다. 르네상스 시대 영국에서 부터 20세기 초 미국에 이르는 텍스트, 행간의 멜랑콜리와 에너지를 목소리의 힘. "때가 되면 꽃은 다시 핀다"는 존 키츠의 시한 대목(1번 트랙)이 아련하게 머릿속을 맴돈다.



# 8571349-50 **[2CDs]**

#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5 & 24 & 25 & 27번(이딜 비렛 협주곡 에디션 7집)

이딜 비렛(피아노),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즈 & 워딩 심포니 오케 스트라(연주), 존 기번스(지휘)

# 한땀한땀 잣는 모차르트의 자화상, 사려깊고 투명한 터치가 돋보 이는 수작

낙소스 레이블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나디아 블랑제와 알프레도 코르토의 찬사, 축복 받은 재능. 우리 시대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한 사람인 이딜 비렛의 협주곡 에디션 7집에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네 작품(15 & 24 & 25 & 27번)이 수록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쇼팽 에디션만큼이나 연주자로서 높은 평가를 누리고 있는 이유를 짐작케 할만한 연주를 보여준다. 코르토를 연상케 하는 터치, 때로는 리파티를 떠올릴 만한 잔향으로 한땀한땀 잣는 모차르트의 자화상. 사려 깊고 투명한 해석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연주자 본인이 작곡한 '피아노협주곡 25번'(K,501) 1약장 카덴차는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강력 추천한다.



#### 8573655

# 모이제스: 교향곡 11 & 12번

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라디슬라프 슬로박 (지휘)

# 불안과 행복이 교차하는 격정, '인류의 평화'로 갈무리되는 작곡가의 '음악 일기'

당대 슬로바키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모이제 스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음악 흐름과 조국의 색채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했다. '교향곡 10번'(8.573654)의 성공, '마의 산'을 넘어선 그의 '교향곡 11번'은 쇼스타코비치를 연상시키는 날선 정교함과 리듬을 한층 배가하며 불안감을 증폭하는 한편, 그 끝자락에 위치한 행복의 확신으로 작곡가 내면의 격정을 표현하고 있다. 모이제스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12번'은 세계를 바라보는 작곡가의 시각과 바람을 담고 있다. 작곡가의 '음악 일기'는 '인류의 평화'로 갈무리 된다. 라디슬라프 슬로박 사망 20주년을 기념하는 시리즈, 강력 추천한다.



#### 8573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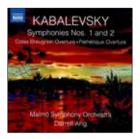
# 요제프 마르크스: 피아노 협주곡 작품집(로맨틱 피아노 협주곡 & 카스텔리 로마니)

데이비드 라이블리(피아노), 보훔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스티븐 슬로안(지휘)

#### 물결치듯 아른거리는 농밀한 낭만의 인상

과거 ASV 레이블 음원의 재발매. 전통의 편에 섰던, 지금은 잊힌 요제프 마르크스의 족적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리즈 네 번째 음반이다. 유년 시절 제 2의 루빈슈타인으로 촉망받기도 했던 요제프마르크스 드뷔시, 스크리아빈, 딜리어스의 인상이 진하게 배인 '로맨틱 피아노 협주곡', 레스피기만큼이나 이탈리아의 풍광을 눈에보이듯 생생하게 그려낸 '카스텔리 로마니(로마의 성)'은 명 피아니스트였던 작곡가의 면모를 만끽하기에 충분할 듯싶다. 물결치듯 아른거리는 농밀한 낭만의 인상은 가슴 벅찰 만큼 매혹적이다.

\* '카스텔리 로마니'(4-6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음원 발매 당시, ASV - CD DCA 1174).



#### 8573859

**카발레프스키: 교향곡 1 & 2번, '(콜라 브뢰뇽) 서곡' & '비창 서곡**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대럴 앙(지휘)

#### 장쾌한 음향과 호쾌한 질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악흥

'어릿광대 모음곡'과 '교향곡 3번'(레닌을 위한 레퀴엠)으로 잘 알려진 러시아의 작곡가 드미트리 카발레프스키는 자신의 원숙한 스타일을 발견했던 여섯 번째 오페라 '콜라 브뢰뇽'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볼셰비키 혁명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작곡된 '교향곡 1번', 프로코피에프와 견줄 만큼의 서정성으로 토스카니니의 찬사를 받았던 '교향곡 2번', 작곡가의 완숙미가 담긴 '비창 서곡'에 이르기까지 수록 작품들은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던 작곡가의 여정 - 장쾌한 음향과 호쾌한 질주 그리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약층에 가려진 '선택'과 '예술' 사이의 번민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대럴 앙과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압도적이다.



#### 8573899

#### 바로크 플루트 협주곡 작품집

인디애나 폴리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연주), 바르톨트 카위컨(플루트 & 지휘)

# 바로크 시대 플루트의 이상이 집약된 음반

'베르사이유의 풍광'과 '릴리 효과'를 주제로 최근 2년간 낙소스 레이블에서 출시한 음반(8,573814, 8,573867, 8,573868) 중 바르톨트 카위컨이 이끄는 인디애나 폴리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녹음 - 화려하고 극적인 색채와 반짝반짝 카랑카랑한 가을 빛 인상 그리고 명징한 음향 -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출현하기 시작한 솔로 협주곡의 영향(궤적)을 플루트 협주곡을 통해 조명하는 이들의 최신작 역시 전작의 명성을 이을 만하다. 비발디의 '위대한 무굴'을 시작으로 페르골레시, 르클레어, 미셸 블라베, 텔레만에 이르는 여정, 노래하는 듯한 서정과 열정적인 표현의 조화. 바로크 시대 이상을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청량감 있는 음향은 여름과도 어울릴법하다.



#### 857392

마크 그루지치 기타 리사이틀 – 발카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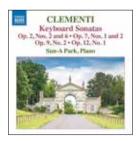
마크 그루지치(기타)

# 강렬한 기교와 이국적인 인상, 애틋한 우수가 돋보이는 작품

음반 부제인 '발카니즘'이 보여주듯 본 음반은 발칸 지역과 관련 있는 작곡가들의 기타 작품들이 갈무리 되어 있다. 미로슬라프 타디치의 '애가, 무곡과 자장가', 흐리토스토프스키의 '마케도니아 소녀'는 마케토니아의 전통 음악의 확장을,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두산보그다노비치의 '레반트 모음곡'은 지중해 동쪽 지역(레반트)의 인상을 명상적인 색채로 자아냈다. 파판도풀로의 '3개의 크로아티아춤곡'과 오스토이치의 '발칸으로 향하는 계단'에 이르는 여정은 강렬한 기교와 이국적인 인상 그리고 애틋한 우수를 머금고 있다. 발칸반도의 다채로운 리듬감이 압권이다. 수록 작품은 모두 마크 그루지치 헌정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애가, 무곡과 자장가'(1-2번 트랙), '발칸으로 향하는 계단'(15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34 아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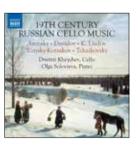


클레멘티: 건반소나타 작품집(Op.2 & 7 & 9 & 12)

박선아(피아노)

# 민첩하면서도 정밀한 터치, 모차르트가 질투했던 클레멘티의 매력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클레멘티 건반소나타의 정수를 보여준 수잔 알렉산더-막스이후 계속되고 있는 시리즈 네 번째 음반이다. 모차르트에게는 질투를, 베토벤에게는 찬사를 받았던 클레멘티의 재능은 오늘날 존 필드를 키워낸 교육자이자 건반소나타의 결작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으로 후대에 영향을 끼쳤다. 제4회 센다이국제 음악 콩쿠르와 제58회 페루치오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재미동포 피아니스트 박선아는 비슷한듯다른 클레멘티의 치명적인 매력, 그 중에서도 모차르트가 질투했던 '오른손의 활력'을 민첩하면서도 정밀한 터치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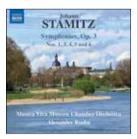
8573951

#### 19세기 러시아 첼로 작품집

드미트리 흐리쇼프(첼로), 올가 슬로비에 바(피아노)

## 19세기 러시아 첼로 음악의 찬란한 순간들

차이코프스키 인생의 고비에서 만난 모차르 트의 영감. 차이코프스키가 '첼리스트의 황 제'라고 추앙했던 다비도프의 독창적이면서 도 환상적인 색채. 아렌스키의 우아한 인상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낭만과 리아도프의 숨 겨진 명작을 감상할 수 있는 음반이다. 아렌 스키의 작품들 제외한 전 작품이 세계 최초 로 수록된 본 음반에서 상트 페테스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 드미트리 흐 리쇼프는 올가 솔로비에바와 함께 19세기 러 시아 첼로 음악의 찬란한 순간을 이심전심. 치밀하면서도 거침없는 호흡으로 조탁한다.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꽉찬 음향이 인상 깊 다. \*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오리지널 버전, 1번 트랙), '러시아 가곡에 의한 환상 곡'(2번 트랙), '집시 노래에 의한 환상곡'(3 번 트랙), '세레나데'(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버전, 10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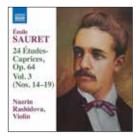
8573966

# 요한 슈타미츠: 교향곡 작품집(Op.3 중 1 & 3 & 4-6번)

무지카 비바 모스크바 챔버 오케스트라(연주), 알렉산더 루빈(지휘)

#### 느림과 빠름, 점증과 침잠의 역동적인 대 비. 음악적 효과를 증폭시키는 독창적인 그지미

만하임 악파의 태두로 알려진 요한 슈타미츠, 그가 창안한 독창적인 음악적 효과와 구조가 담긴 58편의 교향곡은 그를 하이든 이전 교향악의 선구자 반열에 올려놓았다. 본 음반에는 '6개의 교향곡'(Op.3)중 다섯 작품이 수록되었다. 청량감 가득한 반향과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흐름,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효과, 네 개악장의 구조는 슈타미츠가 누린 명성의이유를 거침없이 드러낸다. 느림과 빠름, 점증과 침잠의 역동적인 대비, 음악적 효과를 증폭시키는 독창적인 구조미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돋보이는 연주와 선명한음질 속에서 한층 증폭된다. 적극 추천한다.



8573975

에밀 소레: 24개의 연습곡 - 카프리스 3권(Op.64, no.14-19) 나즈리 라쉬도바(바이올린)

#### 작품의 진면모를 드러내는 명징한 연주

브람스, 리스트, 차이코프스키로 부터 존경 받았던 벨기에 악파의 비르투오소 에밀 소레는 그의 시대 가장 저명한 연주자 중 한 사람이었다. 250여 편이 넘는 작품을 탄생시킨 작곡가로도 활동했던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 '24개의 연습곡-카프리스' 시리즈 세 번째 음반에는 14-19번이 수록되었다. 바흐의 '무반주 파르티타'를 연상시키는 산뜻한 청량감. 파가니니를 연상시키는 압도적인 기교. 기념비적인 작품과 마주하고 있는 나즈린 라쉬도바는 에밀 소레가생전에 연주했던 악기(1685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작품의 진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명징한 연주, 2019년 7월 낙소스 발매 앨범 첫손에 꼽고 싶다. 1권(8.573704)과2권(8.5738430)도 함께 권한다.



8573982

# 부조니: 피아노 작품 11집

볼프 하덴(피아노)

#### 부조니가 편곡으로 새롭게 되살아난 바흐의 위대한 유산

트리오 폰테나이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볼프 하덴, 그가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작곡가는 부조니가 아닐까 싶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편곡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조니, 너무나도 유명한 바흐의 '사콘느' 편곡 버전(8.555699)이 보여주듯 작곡가 부조니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작곡가는 바흐였다. '환상곡과 푸가(BWV. 905)'를 기반으로 편곡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름에 의한 짧은 소나티네 5번', '푸가의 예술' 단편을 기반으로 탄생한 '대위법적 환상곡(코랄전주곡)', '전주곡, 푸가 그리고 알레그로(BWV. 998)'와 '10개의 코랄 전주곡'에 이르는 여정. 부조니의 편곡으로 새롭게 되살아난 바흐의 위대하고도 장엄한 유산. 볼프 하덴의 연주는 해당 작품의 이정표가 될 만하다.



8559785 [전곡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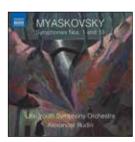
## 존 딕: 교항악적 이야기

존 딕(콘트라베이스 & 나레이터), 줄리아 보고하르-코간(플루트 & 나레이터), 주디스 린 스틸먼(피아노 & 나레이터), 파멜라 골드스미스(비올라), 크리스 제커(트럼펫), 카브릴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연주), 마린 알솝(자휘 & 나레이터)

#### 세대를 초월한 재미, 교향곡으로 표현된 이야기 세계

제대를 조절한 제미, 교명목으로 표현된 이야기 제계 미국의 작곡가 존 딕은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재미있게 음악을 하는 작곡가'((New York Newsday))로 평가받고 있다. 알레스카 등반에서 마주친 늑대와 얽힌 이야기, 다이앤 울크스틴의 텍스트, 눈의 여왕 이야기, 멘하탄 스파이튼 다이블에 얽힌 전설을 주제로 한 작품들의 특징은 연주자가 나레이터를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악으로 쓴 이야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음악 안에 이야기를 넣기 위해) 작곡가가 선택한 이 같은 방법은 다양한 소재와 재치 있는 표현 방법을 통해 감상자에게 한층 생동감 있게 전달되는 동시에 작곡가의 독특한 색채(재미)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 세대를 초월한 재미, 교향곡으로 표현된 이야기 세계에 빠져볼 것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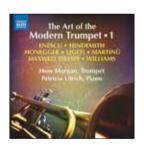
8573988

# 미야코프스키: 교향곡 1 & 13번

우랄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알렉산더 루빈(지휘)

#### 다양한 시도 끝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순간

'소비에트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러시아의 작곡가 니콜라이 미야코프스키, 그가 작곡한 27편의 교향곡은 그를 프로코피에프 그리고 쇼스타코비치와 동일 선상에 올려놓았다. 최근작 슈만의 '환상과 동화'(8.573589) 등에서 탁월한 연주를 보여줬던 첼리스트 알렉산더 루빈은 슈타미츠의 '교향곡 작품집'(8.573966)에 이어 미야코프스키의 작품을 지휘했다. 차이코프스키와 스크리아빈 그리고글라주노프의 영향이 짙은 '교향곡 1번'과 미국에서 초연된 '교향곡 13번' 은 다양한 시도 끝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여정과 순간을 담고있다. 우랄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풋풋한 연주과 묵직한 음향은 작품의 묘미를 더한다.



8573995

# 모던 트럼펫의 예술 1집

휴 모건(트럼펫), 파트리샤 울리히(피아노)

#### 20-21세기를 대표하는 트럼펫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매혹적이 고 짜릿한 여정의 첫 걸음

가장 오래된 악기 중 하나인 트럼펫의 현대적인 면모를 조망하는 '모던 트럼펫의 예술' 시리즈, 매혹적이고도 짜릿한 여정의 첫 걸음이다. 바로크 시대 황금기를 맞이한 이후 서서히 저물어간 독주악기로서 트럼펫의 면모는 근현대에 이르러 악기의 개량과 새로운작품, 재즈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에 힘입어 제 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낙소스 화제의 시리즈 금관악기 앙상블 '셉투라'의 창단 멤버 휴 모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1집에서는 에네스쿠와 마르티누 크리스토퍼 윌리엄스에 이르는 다면적인 의식의 흐름을 경쾌한 서정, 강력한 음향과 뛰어난 기교로 빚고 있다. 기대할만한 시리즈, 적극 추천한다.

 36 아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37



# 제1회 함부르크 쇼팽 페스티벌(2018) 콘 서트 실황

에바 포브와카 & 알렉세이 루비모프 & 토 비아스 코흐 & 엘리자베트 브라우스 & 프 랑수와-사이베르 프와자 & 휴베르트 루 트코프스키(피아노)

# 함부르크 예술 공예 박물관 소장 악기로 연주된 작품들

'운하의 도시' 함부르크에서는 2018년 제1 회 함부르크 쇼팽 페스티벌이 열렸다. 함 부르크 쇼팽 페스티벌이 다른 페스티벌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함부르크 예술 공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쇼팽과 동 시대의 여러 피아노들을 통해 당시의 분 위기와 악기의 매력을 실황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시대 악기(플레옐, 브로드 만, 브로드우드, 루슬로)와 현대 악기(스타 인웨이)로 연주된 쇼팽과 리스트, 슈베르 트 등의 작품, 특히, 쇼팽의 1848년 10월 4일 에든버러 '호프타운' 독주회 프로그램 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준다. 과거와 현재의 오롯한 대화, 순수했던 시간의 기 록이 빛을 발하는 음반이다. 적극 추천한 다.



# 알렉산더 라바리: 나의 어머니 페르시아 - 교향시 1집

폴라 라바리(바이올린), 국립 안탈랴 교향 악단 & 프라하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연주), 알렉산더 라바리(지휘)

# 유년 시절의 경험과 페르시아의 전통을 접목한 대서사시

오늘날 이란을 대표하는 예술가 한 명인 알렉산더 라바리. 12살 때부터 작곡을 했 으며, 카라얀으로 부터 주목받은 지휘자 로서 유럽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작곡가 의 경력은 자신의 유년시절 경험과 페르 시아 전통을 아우른 본 작품의 탄생 배경 이 되었다. 전체 8곡의 교향시로 구성된 대작 '나의 어머니 페르시아' 1집에는 노 헤-칸(Nohe Khan, 종교 의식에서 노래 를 담당하는 [남자] 가수)을 시작으로 '아 슈라'(Ashoura, 이슬람 시아파 최대 명절 로서 마호메트의 손자 후세인의 죽음을 기리는 날. 피의 명절)의 풍경을 그린 '어 머니의 눈물', 어린 시절 기도문을 번갈아 읊던 작곡가의 경험이 담긴 '어린이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 유년 시절의 경험과 페르시아의 전통을 접목한 대서사시. 이 란 음악의 국제적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작 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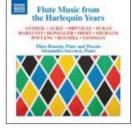


#### 857/127

## 라파엘 피아트레 기타 리사이틀 라파엘 피아트레(기타)

#### 극한의 기교로 빚는 담박한 향수

2018년 GFA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우승 한 프랑스 출신 기타 연주자 라파엘 피아 트레의 기념음반이다. 9살부터 기타를 시 작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라파엘 피아 트레는 본 음반에서 빌라로부스, 망고레 등 기타리스트를 위한 최고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기타로 편곡된 클래식 작품들(라 모의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과 스트리아 빈의 '왼손을 위한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의 '(10개의 전주곡) 중 5번'을 통해 자신 의 재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언뜻 담박해 보이나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극한 의 기교, 미구엘 로베트 솔레스의 '소르 주 제에 의한 변주곡'과 연주자 자신이 직접 편곡한 그라나도스의 '8개의 시적 왈츠'는 본 음반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이다.



#### 8579045

#### 프랑스 플루트 소나타 작품집

티스 로르다(플루트 & 피콜로), 알레산드로 소코르시(피아노)

#### 단순명료하고 다채로운 인상이 이루는 파격미, 할리퀸의 미학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미학이 태동하기 시작했 다. 바그너와 드뷔시에 대립각을 세운 장 콕도의 평론과 그의 평론 집 (수탉과 할리퀸(Le Coa et l'Arlequin))(1918)이 일으킨 파장은 프랑스 6인조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본 음반은 장 콕도의 '할리퀸' 시절 작곡가들의 다양한 궤적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플루 트 소나타)을 담고 있다. 6인조와는 사뭇 다른 견해(바그너와 드뷔 시에 경도되었거나 이들을 참조하고 있었던)를 갖고 있었던 작곡가 들. '할리퀸'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외국 작곡가들의 모습은 오네게 르와 미요 그리고 풀랑크의 독특한 색채와 대비를 이루며 단순명 료하고 다채로운 인상이 이루는 파격미(할리퀸의 미학)을 도드라지 게 한다.



#### 8573852

베토벤: 오라토리오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Op. 85) & 비가(Op. 118) 한나-레나 하파마키(스랍, 소프라노), 유시 밀리스(예수, 테너), 니 클라스 스팽버그(베드로, 베이스), 아보엥시스 대성당 성가대(합창), 투르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레이프 세게르스탐(지휘)

## 베토벤 신생(新生)의 첫 걸음, 2020년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낙소스 레이블 첫 번째 음반

오라토리오 (감람산(올리브산) 위의 그리스도)는 베토벤이 처음으로 작곡한 종교 음악 작품이자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 이후 신생(新 生)의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담긴 귀중한 작품이다. 작품은 감람 산 서쪽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된 예수의 수난을 주제로 하고 있지 만. 감람산이 부활한 예수가 승천한 곳이라는 점에서 보면 베토벤의 시선은 고통보다는 오히려 '부활' 즉, '유서' 이후 하늘이 정한 운명 의 힘에 이끌려 시작된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삶 혹은 고통과 내면의 정화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같이 수록된 '비가'는 베토 벤의 후원자인 파스콸라티 남작의 상처(喪妻)를 위로하기 위해 작곡 되었다. 섬세하면서도 중후한 해석, 하이든의 미사 한 장면을 연상시 키는 세게스트탐의 해석은 기대 이상의 감동을 안겨준다.



## 8574026

무곡으로 조명하는 바흐 음악의 위대한 순간들 1집 소니아 루빈스키(피아노)

#### 노래하듯 유영하는 기하학적 선율, 무곡으로 갈무리한 바흐 음악의 매력

'음악으로 구현한 세계'를 담고 있는 바흐 음악의 한 가운데에는 우아하게 노래하는 듯한 선율과 기하학적인 색채가 자리 잡고 있다. 브라질 출신의 피아니스트 소니아 루빈스키는 음반의 원제인 '위대한 연속 (혹은 부속)'이 시사하듯 〈프랑스 모음곡〉과 〈파르티타〉 중 '알라망드', '쿠랑트', '지그'를 주축으로 〈골드베르크 변주곡〉과 〈건반 모음곡〉등의 작품에서 발췌한 19곡의 '무곡'을 편집해 자신 만의 '모음곡'을 만들었다. 무곡으로 조명하는 바흐 음악의 위대한 순간들.

바흐 음악의 핵심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 연주자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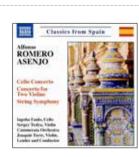


#### 8579043

터키 작곡가들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집 엘렌 주잇(바이올린)

# 바르톡의 색채로 그린 터키의 전통 그리고 신비로운 공명으로 빚 는 다채로운 인상

터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올린 연주자 엘렛 주 잇은 터키의 음악 전통에 대한 자신의 지극한 관심이 담긴 세 작품 을 녹음했다. 아흐메트 아드난 사이군의 '바이올린 파르티타'는 바 르톡의 언어를 통해 유럽과 터키 음악 전통의 통섭을 도전적으로 모색한 수작이다. 꿈처럼 흘러가는 독특한 인상들을 만화경처럼 묘 사한 오누르 투르크만의 '아름답고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은 "아름 다움이란 보는 사람의 생각에 달린 것이다"는 말을 떠오르게 할 만 큼 다채롭다. 절규에서부터 속삭임에 이르는 인간의 다양한 소리를 표현한 마히르 케티츠의 '독백(혼잣말)'은 〈햄릿〉의 한 장면을 음악 으로 묘사한 듯하다. 신비로운 공명이 돋보이는 녹음이 특히 인상 적이다. \* '바이올린 파르티타'(1-4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 8579044 [전곡 세계 최초 녹음]

알폰소 로메로 아센호: 첼로 협주곡 & 두 대의 바이올린과 현을 위 한 협주곡 & 현을 위한 교향곡 & 디베르티멘토

이야고바 판로(첼로), 세르게이 테슬랴(바이올린), 카메라타 오케스 트라(연주), 호아킨 토레(바이올린, 지휘)

# 스페인 현대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알폰소 로메로 아센호 의 작품들

스페인 전위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알폰소 로메로 아센호 의 독특한 음악 언어를 세계 최초 녹음으로 접할 수 있는 음반이 다. 격렬하면서도 도전적인 음향과 종교적인 색채를 머금은 고요 한 음향 그리고 끊임없는 에너지의 분출이 공존하는 '현을 위한 교 향곡', 빛과 어둠의 대비와 교차가 이루어지는 '첼로 협주곡'의 현 대적인 색채는 고전에 대한 재해석('디베르티멘토')과 바흐에 대 한 헌사('두 대의 바이올린과 현을 위한 협주곡')로 종착점을 맞이 한다. 아방가르드를 넘어선 새로운 음악 세계(트랜스 아방가르드, Generation of 51)로 알려진 알폰소 로메로 아센호의 매력은 새롭 고 충격적이다.

38 이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39



Naxos 8505251 [5CDs]

베토벤 탄생 250주년(2020)을 위한 베토벤 교향곡 전곡

아담 피셔(지휘), 덴마크 챔버오케스트라, 덴마크 국립합창단

#### 진취적인 해석과 속도감으로 무장한 베토벤

아담 피셔(1949~)는 현재 덴마크 챔버오케스트라와 독일 뒤셀도로프 심포니의 수석지휘자로, 오스트리아-헝가리 하이든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약 중이다. 여러 악단에서 활약해도 그간 그가 보여준 하이든과 모차르트에는 피셔만의 해석과 통일감이 서려 있다. 2019년 7월, 낙소스에서 출시된 베토벤 전곡앨범은 출시 직후 "최고 수준의 유희감으로 무장했다"는 평처럼 우리를 즐거운 호불호의 갈림길 앞으로 데려다 준다. 그간 하이든과 모차르트에서 체득한 경쾌하고도 유연한 흐름을 베토벤 해석에 과감히 접목시켰다. 덴마크 챔버오케스트라의 절제되고 경량화 된 무게감도 피셔의 그런 해석에 곧바로 부응하며 호흡을 맞춰나간다. 베토벤 전곡을 담은 여러 음반을 소유했더라도 이 음반은 여전히 우리를 매혹시키고 즐겁게 할 것이다.

## [수록내용]

[DISC 1] Symphony No.1 / Symphony No.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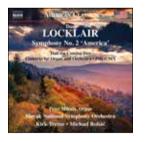
[DISC 2] Symphony No.3 / Symphony No.4

[DISC 3] Symphony No.5 / Symphony No.6

[DISC 4] Symphony No.7 / Symphony No.8

[DISC 5] Symphony No.9

Sop: Sara Swietlicki, Countertenor: Morten Grove Frandsen, Tenor: Ilker Arcayurek, Bariton: Lars Moller, Choir: Danish National Concert Ch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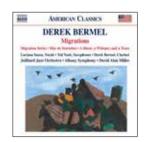
8559860 [전곡 세계 최초 녹음]

댄 라클레어: 교향곡 2번 '아메리카' & '오르간과 오케스트라를 위 한 협주곡' & '피닉스' & '다가올 날을 그리며'

피터 미쿨라(오르간). 국립 슬로바키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커 크 트레버 & 미카엘 로하치(지휘)

## 과거와 현재의 대화, 팝과 클래식 요소의 결합이 돋보이는 댄 라클 레어의 작품들

미국의 작곡가 댄 라클레어의 최근 작들을 세계 최초 녹음으로 만 나볼 수 있는 음반이다. '교향곡 2번(아베리카)'은 미국의 3대 기념 일(독립 기념일, 메모리얼 데이, 추수감사절)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를 위한 축제 소품 '다가올 날을 그리며'는 윈스턴시와 세일럼시의 합병(윈스턴-세일럼시)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오 르간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은 과거와 현재의 음악 기법을 역동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뉴욕 유니온 신학교 소재 제임스 기 념 예배당의 재건을 기념하는 '피닉스'는 금빛 팡파르를 주축으로 '부활의 전기'를 수놓고 있다. 팝과 클래식 요소의 대담하면서도 흥 미로운 결합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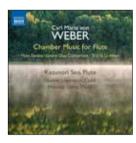
8559871 [전곡 세계 최초 녹음]

데렉 버멜: '(재즈 앙상블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주' & '9월의 바 다' & '외침, 속삭임 그리고 흔적'

루치아나 수자(보컬), 태드 네쉬(소프라노 & 알토 섹소폰), 데렉 버 멜(클라리넷), 줄리어드 재즈 오케스트라 & 알바니 심포니(연주), 데 이비드 알란 밀러(지휘)

# 다양한 요소들의 절묘한 조합, 절충주의 음악의 정수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작곡가 데렉 버멜은 다 양한 장르와 해당 장르 최고 수준 연주자들과의 연주 경험을 토대 로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미국 남부 에서 북부로 이주한 흑인들을 주제로 한 '이주' 시리즈에는 클래식 의 형식 안에 세계 음악과 재즈, 블루스, 미국 민속 음악 등의 요소 가 결합되어 있으며, '9월의 바다'에는 포르투갈과 쿠바 음악의 영 향이 짙게 배어 있다. 본 음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작품인 '외침. 속삭임 그리고 흔적'은 바르톡 삶의 마지막 5년 동안 뉴욕 생활을 조명하고 있다. 바르톡(발칸)과 스승인 스티븐 손드하임(재즈)의 어 울림이 담긴 작품의 면모는 다양한 요소들의 절묘한 조합, 절충주 의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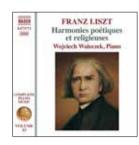


8573766

#### 카를 마리아 폰 베버: 플루트를 위한 실내악 작품집

카즈노리 세오(플루트), 쇼헤이 우와모리(첼로), 마코토 우에노(피아노)

관악기를 능숙하게 다뤘던 베버의 면모가 오롯이 드러나는 걸작 〈마탄의 사수〉로 유명한 베버가 작곡가로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 던 계기는 '관악기'를 위한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1816년에서부터 1819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작곡된 3편의 실내악 작품('피아노 소 나타 2번'의 플루트 버전인 '플루트 소나타' - A.E. 뮬러 편곡버전. 카즈노리 세오가 직접 편곡한 '협주곡풍의 화려한 이중주', '플루트, 첼로.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이 수록된 본 음반은 시기적으로 베버 의 결작 '클라리넷 협주곡'과 '바순 협주곡'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플루트를 위한 편곡 버전에서도 드러나는 아름다운 균형감. 엘가의 '에니그마 변주곡'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코드'가 담겨 있는 '삼중 주'. 특히, 플루트와 피아노의 호흡은 음반의 백미이다. 적극 추천 한다.



8573773

리스트: 피아노 전곡 작품 53집 ('시적이고 종교적인 선율', S172a, 1847년 버전)

보이체흐 발레체크(피아노)

1847년 버전으로 만나는 리스트의 대곡, '시적이고 종교적인 선율' 리스트의 대곡 '시적이고 종교적인 선율'은 낙소스 리스트 피아노 작품 전곡 시리즈에서 필립 톰슨의 연주를 통해 이미 선보인 바 있 다.(S173. 1853년 버전. 3집-8.553073. 4집-8.553516) 기존 시리즈 수록 작품과는 달리 본 음반은 같은 작품을 1847년 버전(S172a)으 로 감상할 수 있다. 여러 번의 개정 끝에 완성된 1853년 버전이 한 층 정연한 멋을 갖고 있다면, 12곡으로 구성된 1847년 버전은 다른 버전에 비해 종교적인 색채가 짙게 배어 있어 그야말로 '신성한 문 학적 영감'으로 탄생한 '종교적인 선율'을 느낄 수 있다. 프란츠 리 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에서 수상했으며, '파가니니 연습곡'의 세 가지 버전을 모두 녹음하기도 했던 보이체흐 발레체크는 무심 한 듯 묵직하게 던지는 '화두'와 같은 연주로 작품의 색채를 배가하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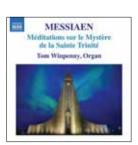


## 8573967 [전곡 세계 최초 녹음] 레오폴트 호프만: 플루트 협주곡 3집

우베 그로트(플루트), 파두리체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미 카엘 할라스(지휘)

## 경쾌하고 우아한 색채, 느린 악장에서 마법처럼 드러나는 악기 본 연의 매력

레오폴트 호프만은 생전 하이든에 비견될 만큼 당대 명성을 누렸 던 작곡가였다. 성 슈테판 성당 카펠마이스터로 봉직할 당시 모차 르트가 그의 후임을 노렸던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유럽 전역에서 폭 넓게 연주되었지만 지금은 잊힌 그의 플루트 협주곡을 다시 조 명하는 시리즈 세 번째 음반에는 세계 최초로 녹음된 네 작품이 수 록되었다. 악기의 특성에 최적화된 작품의 면모. 민첩하며 경쾌하 고 우아한 색채, 느린 악장에서 마법처럼 드러나는 악기 본연의 매 력, 이미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입증된 연주자들의 녹음, 18년 만에 선보이는 반가운 음반, 드비엔느와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작품만큼 이나 감상자를 매혹시킨다.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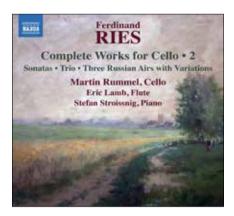
8573979

메시앙: 성 삼위일체의 신비에 관한 명상

톰 윈페니(오르간)

트리니티 성당과 새소리, 메시앙 세계관과 음악 언어가 집약된 작품 1931년 이래 60여년 이상의 시간, 일생 대부분에 걸쳐 오르간 주자 로 봉직했던 파리 트리니티 성당. '새의 목록(카탈로그)'에 집약되 어 있는 '새 소리', 범신론적 세계관, 올리비에 메시앙 작품 세계의 뼈대를 이루는 이 같은 요소들은 그의 대표작을 통해 이미 잘 알려 져 있다. 트리니티 성당 설립 100주년과 오르간 재건을 기념하기 위해 작곡된 '성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한 명상'은 메시앙의 대표작 들에 비해 유명하지 않지만, 트리니티 성당이라는 공간과 어법(새 소리). 모세와 메시아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부터 페르세폴리 스 등에 이르는 세계관이 압축되어 있어 작곡가에게 있어서는 각 별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아이슬랜드 할그림스키르카 성당 오 르간의 빛과 광채를 머금은 음향, 메시앙 특유의 '흐름'을 탁월하게 묘사하는 톰 윈페니의 연주로 선보이는 장대한 세계의 장면들은 압도적이다.

40 이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41



#### 페르디난드 리스: 첼로 작품 전곡 2집

마틴 룸멜(첼로), 에릭 램(플루트), 스테판 스트로이스니히(피아노)

베토벤에 가려진 '독창성'을 찾아서, 리스의 예사롭지 않은 재능이 담긴 작품

페르디난드 리스에게 베토벤이라는 이름은 '양날의 검'이 아닐까 싶다. 베토벤의 추종자 내지 제자 또는 아류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리스의 작품들. 베토벤이라는 그림자가 거대했기 때문에 리스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리스의 첼로 작품들을 조명하는 본 시리즈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런던에서의 성공을 보여주는 '러시아 춤곡'과 15세의 작품이라고는 믿기 힘든 '질풍노도의 향연', '첼로 소나타 다단조'(WOo.2)는 리스의 예사롭지 않은 재능을 보여준다.

'(플루트,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Op.63)와 '첼로소나타'(Op.34)는 베토벤에 가려진 리스의 '독창성'을 만끽하기에 부족함 없다. 1집(8.573726)과 함께 추천한다.

그윽한 반향, 마틴 룸멜의 첼로는 놓칠 수 없는 대목,



8579022

엘 쿠리: '피아노 소나타 1-4번' & '강'(Op. 89) & '연습곡'(Op. 51) & '주제 와 변주'(Op. 45)

지아코모 스키나르도(피아노)

# 간결하고 영적인 색채, 폭발적이면서도 극 적인 전개가 맞물려 연출하는 시적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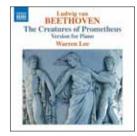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이미 6장의 앨범 을 선보인 레바논의 작곡가 엘 쿠리의 신보. '레바논 내전'(8.557691)과 '911 사 태'(8,557043)를 주제로 한 작품들로 잘 알려진 그의 작품 세계는 파란을 일으켰 던 1983년 파리 샹젤리제 극장 갈라 콘서 트가 보여주듯 칼릴 지브란의 영적인 색 채로 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음 반에 수록된 피아노 작품 '강'은 여기에 더해 자연의 풍광. 계절과 시간의 흐름 역 시 작곡가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알 려준다. 간결하고 영적인 색채, 폭발적인 음향과 극적인 전개가 맞물려 연출하는 시적 인상, 이를 통해 폭력과 분노 그리고 고통과 극복을 끊임없이 전환하며 영원한 평화를 꿈꾸는 작곡가의 내면. 자연과 명 상이 밑바탕이 된 독창적인 인상과 충격 적인 반향은 자연스레 작곡가의 시선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 8579046 [전곡 세계 최초 녹음] 롭 킬리: 실내악 작품집

빅토리아 사멕(클라리넷), 롭 킬리(피아노), 크리스 브레닉(비브라폰), 아퀴나스피아노 삼중주단(연주)

고전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흥미로운 실험 해리슨 버트위슬과 마이클 피니시 만큼이 나 난해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영 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롭 킬리는 '실내악'이야말로 자신의 생각을 가장 직 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 르로 생각하고 있다. 하이든과 쇼팽의 작 품에서 착안한 '피아노 삼중주 2번', 모차 르트의 푸가에서 영감을 얻은 '클라리넷 사중주', 2013년 작품인 '딥티크(두폭 제단 화)'의 연장선 위에서 바흐의 작품을 탐구 하고 있는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여섯 개의 이중주'에는 고전을 기반으로 펼쳐 지는 작곡가의 흥미로운 실험이 담겨 있 다. '증류(Distill)'가 보여주듯 불협의 경 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긴장감. 아 퀴나스 피아노 삼중주단의 연주는 짜릿하 다.



8573974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Op. 43, Hess 90, 1801년 피아노를 위한 버전) 워렌 리(피아노)

# 피아노 편곡 버전으로 만나는 프로메테우 스와 인간 창조에 관한 신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이후 베 토벤 역시 비슷한 소재로 발레 음악을 작 곡했다. 하늘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수 해준 신화로 알려진 프로메테우스를 주제 로 한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이 그것이 다. 흙으로 빚은 남녀의 창조. 천상에서 하 늘의 신으로 부터 이들에게 불어넣은 감 정과 욕망. 인형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거 듭나는 장대한 여정을 담은 작품을 베토 벤은 피아노 버전으로도 남겼다. 낙소스 레이블에서 1997년 선보인 미카엘 할라스 지휘 오케스트라 버전(8.553404)의 피아 노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 음반에서 워렌 리는 각각 장면의 인상을 매우 명료 하게 묘사하고 있다. '서곡'과 '서주(폭풍)'. 베토벤의 선율('에로이카')이 등장하는 '피 날레'가 특히 인상적이다.

# 우리가 사랑하는 악기 시리즈



8578173

우리가 사랑하는 첼로 작품들(첼로를 위한 최고의 작품들)

마리아 클리겔, 가브리엘 슈바베, 알렉산더 루빈, 차바 온차이 등(첼로)

나지막이 소통과 교감을 부르는 그윽한 목소리, 첼로의 모든 것이 담긴 작품집

'인간의 목소리'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평가받는 악기 첼로, 오늘날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악기중 하나인 첼로는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 주제곡에 등장할 정도로 장르와 시대를 뛰어넘어 바이올린 못지않게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또한, 최근 낙소스 레이블에서 선보인 음반들 중에서 마리아 클리겔, 가브리엘 슈바베, 알렉산더 루빈, 차바 온차이 등 첼로 연주자들은 다른 악기 연주자들에 비해 가장 괄목할 만한 인상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첼로를 위한 최고의 작품'과 낙소스를 대표하는 첼리스트들의 연주를 선별한

본 음반은 첼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나지막이 소통과 교감을 부르는 그윽한 목소리에 빠져볼 것을 적극 권한다.



8578186

우리가 사랑하는 비올라 작품들(비올라를 위한 최고의 작품들) 로베르토 디아즈, 라디슬라프 키셀라크, 매튜 존스 등(비올라)

파스텔톤 고즈넉한 목소리, 비올라의 매력을 갈무리한 음반 낙소스 레이블의 야심작이자 악기의 진정한 매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시리즈, 이번에는 '플루트'와 '오보에' 그리고 '클라리넷'에 이어 '비올라'편이 출시되었다. 바이올린과 첼로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비올라. 19세기부터 거장 연주자들과 악기의 잠재력을 일깨우기 시작했던 작품들에 힘입어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바이올린과 첼로에 비해 선뜻 접근하기에는 어딘가 어색하다. 본 음반에 갈무리된 '비올라를 위한 최고의 작품들'을 접한다면, 바흐 이래 여러 작곡가들이 주목했던 류트의 반향과 바이올린의 표현력을 갖고 있는 비올라만의 '파스텔톤 고즈넉한 목소리'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낙소스 레이블을 대표하는 비올라 연주자들의 정수를 음반 한 장으로 감상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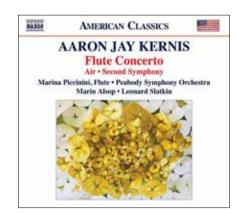
8578187

우리가 사랑하는 바이올린 작품들(바이올린을 위한 최고의 작품들) 타카코 니시자키, 헨닝 크라게루트, 티안와 양 등(바이올린)

## 정묘한 표현력과 한계를 넘어선 기교 그리고 경이로운 음향, 바이올린의 모든 것

정묘한 표현력과 한계를 넘어선 기교로 드러나는 경이로운 음향. 바이올린은 오늘날까지도 '악기의 여왕'이라는 말에 부족함 없는 면모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본 음반은 스트라디바리우스, 과르네리우스 등의 손에서 탄생한 '명기'와 파가니니, 사라사테, 이자이 등 악기의 능력을 극한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작곡가들의 대표작에 이르기까지 바이올린의 정수를 타카코 니시자키, 헨닝 크라게루트, 티안와 양 등 낙소스 레이블이 배출한 명연주자들을 통해 만끽할 수 있다. 모든 연주가 만족스럽지만, 티안와 양의 '포효'는 잊지 못할 여운을 선사한다.

42 아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43



# 아론 제이 커니스:

'플루트 협주곡' & '교향곡 2번' & '(플루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에어' 마리나 피치니니(플루트) 피버디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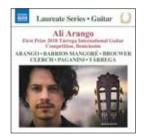
레너드 슬래트킨 & 마린 알솝(지휘)

## 고요에서 파국으로 치닫는 강렬한 충격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작곡가 아론 제이 커니스는 현재 미국 현대 음악계의 거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며 통제 불능('타란톨라')으로 치닫는 '플루트 협주곡', 작곡가 자신이 '플루트를 위한 연애편지'라고 묘사했던 '(플루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에어', 걸프전에서 영감을 얻은 '교향곡 2번'의 강력한 충격파로 구성된 본 음반(세계 최초로 수록된 두 작품 포함)은 미니멀리즘과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곡가의 스타일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교향곡 2번' 4약장 마지막 부분에서

분출하는 '붕괴'의 이미지는 말러의 '헤머' 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마린 알솝과 레너드 슬레트킨의 해석은 압도적이다.

\* '플루트 협주곡'(1-3번 트랙), '에어'(4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4111

**알리 아랑고: 기타 리사이틀 작품집** 알리 아랑고(기타)

# 2018년 베니카심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 르 우승 기념 음반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23개 상을 수 상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기타연주 자 알리 아랑고는 낙소스 데뷔 앨범이자 2014년 알함브라 국제 기타 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8.573506)에서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레파토리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보여주었다. 이제 2018년 베니카심 타레 가 국제 기타 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으로 돌아온 그는 쿠바를 떠나 스페인으로 이 주하게 된 생의 변화와 함께 영원한 고향 쿠바에 대한 특별한 경의를 선보인다. 가 족에게 바치는 연주(망고레와 타레가)으로 시작하는 수록 작품은 파가니니와 자신의 스승인 레오 브로우어를 통해 작곡가와 연주자로서 자신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기타를 위한 삼 부작'은 본 음반의 핵심이자 백미이다. 이 시대 기타 연주의 떠오르는 별, 찬란한 면 모를 유감없이 느낄 수 있는 음반이다. 적 극 추천한다.



## 8579035 [세계 최초 녹음] 시마쿠: 독주곡과 이중주곡

피터 셰파드 스캐르베드(바이올린), 크리 스 오튼(리코더), 조셉 휴스턴, 로더릭 채 드웨피아노)

####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환영을 불러일으 키느 여구이 가자 즈모바느 자고가

키는 영국의 가장 주목받는 작곡가 토마스 시마쿠는 알바니아 출신으로 영국 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이다. 그는 유 럽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음악은 '시각적인 환 영을 불러일으키며, 온전히 독창적'이라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밀도 있는 음 향과 현대적인 감각으로 연주자들로부터 도 많이 선택받고 있는데, 이 음반에 수록 되어있는 실내악곡에서도 이러한 그의 특 징이 충분히 발휘되어있다. 〈시그널〉은 희 롱하는 듯 활달한 움직임을 들려주고, 〈카 프리치오소〉는 특출한 기교를 요구한다. 〈ENgREnage〉는 음악적 대비와 화성적 색채감이 풍부하다.



## 8579047 [세계 최초 녹음] 콘토기오르고스: 켄타우로스와의 춤, 소협 주곡 '테스토스테론', 밤의 산책 등

스타티스 마브로마티스(색소폰), 크리스티 나 판텔리(피아노), 오케스트라 오브 컬러

# 고대 그리스 음악으로부터 재구성된 오늘 날의 그리스 음악

기오르고스 콘토기오르고스는 그리스의 지우그지로, 그리스의 신화와 역사를 소재로 환상적인 작품으로 유명하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조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미 니멀리즘부터 현대적인 표현까지 넓은 표 현 범위를 가지고 있다. 〈켄타우로스와의 춤〉은 매우 리드미컬하면서도, 멜로디는 5 음음계로 구성된 고대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의 전통음악의 요소를 갖고 있어 친 숙한 정취를 느끼게 한다. 〈밤의 산책〉은 고대 그리스를 연상케 하는 선율로 자유 롭게 표현하며, 소협주곡〈테스토르테론〉 은 매우 서정적이면서도 색소폰의 다양한 기교를 보여준다.



#### 8579052

# 타네예프: 연주회 모음곡, 림스키-코르사 코프: 두 개의 러시아 주제에 의한 환상곡 러시아의 서정미와 화려한 색채감이 가득 한 두 낭만작곡가의 역작

estral Works • 6

Concerto in G maj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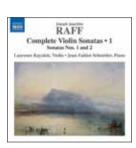
the Left Hand • Tzigane

al de Lyon • Leonard Slatkir

2019년 9월 낙소스 신보 중 주목해야할 음반 중 하나, 강력 추천한다.

t, Plano · Jennifer Gilbert, Violin

2013년 스트라디바리우스 콩쿠르의 우승 자이자 러시아 음악에 남다른 관심을 가 진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아넬레 그레고 리와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던 지휘자 드 미트리 아블론스키가 잘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작품 을 녹음했다. 타네예프는 차이코프스키의 제자로, 바로크 모음곡을 모델로 하는 〈연 주회 모음곡〉은 따뜻한 서정미와 화려한 변주 등으로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작 품이다. 〈셰헤라자데〉로 유명한 림스키-코르사코프의〈두 개의 러시아 주제에 의 한 환상곡〉은 이국적이면서도 화려한 관 현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8573572

천둥처럼 휘몰아치는 악센트로 작품의 색채를 배가하는 슬레트킨의 해석은 꿈결 한 자락 같은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레너드 슬레트킨(지휘)

라벨: 피아노협주곡 &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레파토리는 라벨의 작품이다.

작품들(피아노 협주곡 두 작품과 '치간느')이 수록되었다.

잠비처럼 아련한 인상을 선보이는 프랑수와 듀몽의 피아노,

프랑수와 듀몽(피아노), 제니퍼 길버트(바이올린), 리옹 내셔널 오케스트라(연주),

천둥처럼 휘몰아치는 악센트, 잠비처럼 아련한 인상이 교차하는 꿈결 한 자락

시리즈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본 음반에는 라벨 작품 세계의 정점에 올라있는

지휘자 레너드 슬래트킨이 몇 년 전부터 리옹 내셔널 오케스트라와 함께

낙소스 미국 현대음악 시리즈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양손과 한손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자유로운 영혼의 열정적인 향연.

치간느(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

#### 857384

요아힘 라프: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1집 로렌스 카알레(바이올린), 장-파비엥 슈나 이더(피아노)

## 애정하는 악기에 담은 생의 기로, 독립과 안정의 순간을 대변하는 작품들

프란츠 리스트와의 관계로 유명한 요아 힘 라프는 우리에게 주로 교향곡 작품으 로 익숙하다. 그러나 라프는 대부분의 음 악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작품 목 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아 노 작품과 함께 작곡가가 가장 애정 하는 악기였던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은 놓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리스트로부터 독립하던 시기에 작곡된 '바이올린 소나 타 1번'은 각별한 서정과 표현력으로 라프 가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중 생전에 가 장 많이 연주되었으며, 작곡가로서 인정 받기 시작했던 시기에 작곡된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뿐 한 템포와 기품 있는 열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곡가의 각별한 악상기호에 함축 된 미묘한 심리를 웅변하는 자신감 있는 연주는 음반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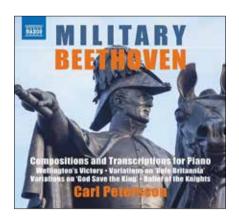


8573853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Op. 43) 투르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레이 프 세게르스탐(지휘)

# 장엄한 구조미가 돋보이는 탁월한 연주, '인간다움'에 이르는 구원의 영웅적인 서 사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올 해 하반기부터 낙소스 레이블에서는 베토벤 작품 세계의 다양한 면을 조망할 수 있는 음반들을 선보이고 있다. 워렌 리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피아노 버전. 8.573974)과 세게르스탐의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8.573852)에 이어 이번 달에 출시된 두 장의 음반 중 하나는 세게르스탐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관현악 버전)이다. 시벨리우스의 관현악 작품에서 보여준 세게르스탐만의 장엄한 구조미와 '인간다움'에 이르는 구원의 영웅적인 서사는음반 전체에 요동친다. 미카엘 할라스 지휘 오케스트라 버전(8.553404)을 대체할만한 탁월한 연주.



**베토벤: 피아노를 위한 작품과 편곡 작품집** 카를 페터슨(피아노)

# '군사'와 관련된 베토벤의 알려지지 않은 피아노 작품들

낙소스 레이블에서는 내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 베토벤 음악 세계의 다양한 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베토벤의 피아노 작품과 편곡 작품으로 구성된 본 음반의 수록 작품들은 모두 작품 번호가 없거나(WoO 번호) 미출판 혹은 미완성 작품들(Hess 번호)인 동시에 '군사'와 관련 되어 있어 더욱 이채롭다.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 만큼이나 파격적인 음향 효과가 인상적인 '웰링턴의 승리' 피아노 버전을 비롯해 '기사의 발레를 위한 음악', '영국 국가에 의한 변주곡' 등 베토벤을 둘러싸고 있던 '혁명과 낭만'의시대적 상황과 함께 생애 전반에 걸친 인간관계가 담겨 있다.

칼 페터슨의 산뜻한 터치와 격렬한 음향 효과의 묘한 어울림이 매력적인 음반.



#### 8573952

# 브람스: 독일 레퀴엠(1871년 런던 버전)

미첼 아레이자가(소프라노), 휴 러셀(바리톤), 매들린 슬레트달 & 크레이그 테리(피아노), 벨라 보스(합창), 앤드류 류이스(지희)

# 남은 자 - 인류의 평안을 기원하는 브람 스의 의도와 상통하는 편곡

'독일 레퀴엠', 죽음이라는 화두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던 브람스가 오랜 고뇌의 시간을 거쳐 답으로 내놓은 작품이다. 브람스는 '독일 레퀴엠'을 네 손을 위한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했으며, 이는 1871년 해당 작품의 런던 초연 당시 영어로 번역된 가사와 함께 사용되었다. 브람스판 '명상록(고백록)'이라 할 만한 작품의 성격과 상통하는 소박하고 담백한 색채는 관현악 버전 못지않은 감흥을 남긴다. 혹자가 지적하듯 '영국 레퀴엠'으로도 볼 수있는 1871년 런던 버전이야말로 작품 제목의 '독일'을 '인류'로 대체하고 싶었던 브람스의 고백과도 어울리지 않을까.

굴레를 벗어난 브람스의 장대한 시야와 자유로움을 느껴보시라.



#### 8573998 [전곡 세계 최초 녹음]

체르니: '두 번째 그랜드 피아노 협주곡' & '콘체르티노' & '오베르의 오페라〈석공〉의 주제에 의한 론디노'

로즈마리 턱(피아노), 잉글리시 챔버 오케 스트라(연주), 리차드 보닝(지휘)

## 베토벤의 '황제'를 향한 헌사, 체르니판 '황 제'의 화려한 부활

베토벤과 리스트의 이름보다 한 발자국 뒤에 자리하고 있지만, 체르니는 작곡가이자 피아 노 비르투오소로 당대에 명성을 얻었다. 오늘 날 '피아노 교본'으로 알려진 그의 이름은 생 전의 명성과 능력의 산물인바 낙소스 레이블 에서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체르니의 피 아노 협주곡 시리즈는 봉인되어 있던 작곡가 의 진면모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귀중한 여 정이라 할 수 있겠다. 오베르의 오페라 〈석 공〉의 한 대목에서 따온 '론디노'의 매혹적인 색채와 'C장조 콘체르티노'(Op.210/213/MS Op.197)의 악흥 그리고 베토벤의 피아노협주 곡 '황제'를 향한 헌사가 담긴 체르니판 '황 제' - '두 번째 그랜드 피아노협주곡'의 화려 한 부활. 로즈마리 턱의 진중한 터치와 리처 드 보닝이 이끄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의 자유롭고 산뜻한 연주의 조합은 작곡가의 빛나는 영감을 닮았다.



#### 8574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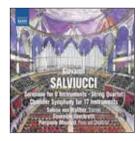
막스 레거: '바흐 주제에 의한 변주와 푸가'(아이라 레빈 편곡 버전, 2015년) & '아 놀드 뵈클린에 의한 4개의 음시' & '오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큰 죄를 슬퍼하라 (BWV,622)'(막스 레거 편곡 버전, 1915년)

크라우디나 슐제 브로니위즈카(바이올린), 브란덴 부르크 주립 오케스트라(연주), 아이라 레빈(지휘)

#### 주제와 상징을 증폭시키는 음의 힘

평소 그냥 흘려버렸던 음악이나 글이 영화 한 장 면 속에 등장하며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대상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해제' 또는 '역 주'의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바흐 음악에 대한 일종의 '해제'라 할 수 있는 막스 레거의 탐구, 바흐와 막스 레거의 뒤를 있는 아이라 레빈의 새로운 시도에 이르기까지음반에는 '주제'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아놀드 뵈클린의 그림 4점((바이올린을 켜는 은 둔자), 〈마도 타기〉,〈망자의 섬〉,〈바쿠스 축제〉)을 배경으로 작곡된 대작 '아놀드 뵈클린에 의한 4개의 음시'는 주제와 상징을 증폭시키는 음의 힘을 실감하기에 부족함 없다. 강력 추천한다.

\* '바흐 주제에 의한 변주와 푸가(아이라 레빈 편곡 버전)'(1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 8574049

#### 지오반니 살비우치: 실내악 작품집

자비나 폰 발터(소프라노), 앙상블 위베르브레틀(연주), 피에르파올로 마우리치(피아노 & 지휘)

# 새롭게 조명되는 미완성의 꿈, 대담한 신고전주의적 색채

루이지 달라피콜라, 고프레도 페트라시와 함께 당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인정받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지오 반니 살비우치. 서른 살에 요절하며 그의 꿈은 미완성으로 남았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의 음악은 세상에서 잊혀졌다. '17개의 악기를 위한 실내교향곡'과 '9개의 악기를 위한 세레나데'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레트로'라는 단어에 어울릴법한 '신고전주의' 색채의 향연, 소박하나 대담한 악상이 돋보이는 명작 '현악사중주'와 '다윗의시편' 등 본 음반을 통해 소개된 작품들은 지오반나 마리니의 아버지라는 호칭에 가려진 살비우치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재조명하는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적극 추천한다.



#### 857406

#### 바인버그: 실내 교향곡 1 & 3번

이스트-웨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연주), 로스티슬라프 크리머(지휘)

가려진 형극의 시간을 찾아서 - 바인버그 탄생 100주년 기념 음반 유리 바쉬메트 국제 뮤직 페스티벌 상주 오케스트라인 이스트-웨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데뷔작, 바인버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음반으로 '실내 교향곡' 1번과 3번이 수록되었다. 26편의 교향곡과 17편의 현악사중주를 남긴 바인버그는 '교향곡 19번'을 작곡한 이후 두 장르를 가로지르는 시도를 했다. 다음 교향곡을 위한 암중모색 기간 동안 생애 후반부에 접어든 작곡가는 과거의 재해석 또는 회자정리를 위한 시간 또는 계기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 각각 '현악사중주 2번', '현악사중주 5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수록곡 두 작품. 희망과 그것이 무색해지기 시작했던 시간 - 블랙 유머 속에 가려진 형극의 시간을 더듬는 악단의 연주는 무심한듯 뭉클하다.



#### 8574072

## 알베니즈: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곡

기품 있는 피아노 선율과 관능미 넘치는 목소리의 환상적인 결합 '이베리아 모음곡'으로 대표되는 알베니즈의 작품 세계는 스페인 민속 음악 전통과 당대 음악(인상주의)의 절묘한 결합으로 요약되는 '현대적 해석'에 있다. 지중해 수평선 너머 풍경을 응시하는 듯한 신비롭고 몽상적인 음색은 다른 작품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의 성악 작품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목소리' 만이 줄 수 있는 (관현악 작품과는) 또 다른 매력 — 포레를 연상시키는 단순명료한 인상과 기품 있는 음색, 스페인의 열정과 관능미를 갖춘 목소리 — 의 환상적인 결합은 알베니즈의 독특한 언어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베리아 모음곡'과 맥을 같이하는 '네 개의 노래'는 음반의 백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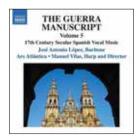
#### 8574082

**알베릭 마냐르: 교향곡 2 & 4번, 프라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페브리스 발론(지휘)

#### 프랑스의 브루크너 알베릭 마냐르의 교향곡, 빛나는 영감과 웅장 한 자태

1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회자되는 프랑스의 작곡가 알제릭 마냐르. 그는 바그너의 작품 그 중에서도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이끌려 작곡가의 길로 들어섰다. 뱅상 댕디를 멘토로 삼아 음악을 공부했던 마냐르는 이후 프랑스 북부 와즈의 바론으로 이주해 온전한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발전시켰다. 적은 수의 작품을 남겼지만 특히. 교향악 작품들은 '프랑스의 브루크너'라 불릴 만큼 '완벽주의'적인 면모를 과시한다. 폴 뒤카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교향곡 3번'과 바그너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교향곡 4번'의 빛나는 영감과 웅장한자태, 작곡가 내면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듯한 페브리스 발론의 해석은 해당 작품의 레퍼런스 반열에 올릴 만큼 뛰어나다.

**46** 아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47** 



#### 게라 필사본에 수록된 17세기 스페인 세속 성악곡 5집

호세 안토니오 로페즈(바리톤), 브루노 포스트(하프시코드), 아르스 아틀란티카(연주), 마누엘 빌라스(하프 & 지휘)

# 세속의 희로애락, 신화와 자연을 노래하는 고아한 선율

17세기 후반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활동한 필사가 호세 미구엘 데 게라가 남긴 악보에는 스페인 세속 성약곡(인간의 선율) 10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게라 필사본'으로 불리는 이 악보는 당시 세속 음악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어 스페인 바로크 음악의 보고라 할만큼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라 필사본'의 전모를 조망하는 시리즈 다섯 번째 음반은 필사본의 전체 비중을 보여주듯 후안 히달고, 호세 마린의 작품을 주축으로 무명 작곡가와 마티아스 루이스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세속의 희로애락, 신화와 자연을 노래하는 고아한 선율. 하프의 반향은 오르페우스의 모습을 상상케 할 만큼 매력적이다.



#### 8574118

# 레오폴도 미구에스: 바이올린 소나타(Op.14) & 글라우코 벨라스케스: 바이올린 소나타 1('열정') & 2번

엠마누엘 발디니(바이올린), 카린 페르난데스(피아노)

## 숲 속의 아침 청초한 청록빛 서정, '열대 낭만주의'의 정수

브라질 외무부에서 후원하는 '브라질의 음악(The Music of Brazil)' 시리즈 두 번째 음반에는 20세기 초 브라질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 했던 두 명의 작곡가 레오폴도 미구에스와 글라우코 베라스케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이 수록되었다. 프랑크 – '바이올린 소나타'의 내밀한 인상을 닮은 미구에스의 야심작, 라벨과 드뷔시의 유려한 뉘앙스를 연상시키는 벨라스케스의 두 작품은 브라질 실내악의 변곡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숲 속의 아침 청초한 청록빛서정을 내뿜는 '열대 낭만주의'의 정수, 〈그라모폰〉의 주목을 받았던 시리즈 첫 번째 음반 네포무센코의 관현악 작품(8.574067)과 함께 놓칠 수 없는 음반이다.



#### 8574133

# 보진 코치치: 기타 연주 작품집 보진 코치치(기타)

#### 미켈 피타루가 국제 기타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

세르비아 출신 기타 연주자 보진 코치치의 미켈 피타루가 국제 기 타콩쿠르 우승 기념 음반이다. 음반에 수록된 작품은 세 편의 작품 들은 단촐한듯 보이나 3세대 스페인 작곡가를 대표하는 작품들로 서 이베리아 반도 음악적 상상력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준다. 알 베니즈의 '에스파냐 모음곡'(발췌)은 20세기 스페인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작곡가의 면모가 담겨 있으며, 안토니오 호세의 '기 타 소나타'는 라벨로 부터 '우리 세기 가장 위대한 스페인 음악가가 될 작곡가'로 찬사를 받았으나 끝내 요절한 천재 작곡가의 명성을 환기시킨다. 느린듯 아득하게 펼쳐지는 보진 코치치의 상상력 가득 한 연주는 카탈로니아의 정서를 우아한 색채로 표현한 후안 마넨 의 '환상소나타'에서 빛을 발한다. 데뷔녹음(8.573906)과 함께 감상 을 추천한다.



#### 8573949

# 자크 카스테레데: 플루트를 위한 작품 1집

코부스 뒤 트와(플루트) 외

## 휴가지에서 고즈넉한 한 때 파란 하늘 속에서 피어오르는 악흥의 인상

전통과 현대의 공존 속에서 꿈틀거리는 영감, 파리(프랑스)가 오늘날까지도 '예술의 요람'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신고전주의와 프랑스 6인조의 전통을 기반으로 재조, 라틴 아메리카 음악, 팝, 록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작곡가 자크 카스테레데의 작품 세계는 그야말로 '파리의 영감'이 체화되었다 할 수 있겠다. 장 밥티스트-카미유 코로의 그림을 소리로 묘사한 '코로에 의한 악흥의 순간 3곡'을 비롯해 '하늘, '플루트와기타를 위한) 4월의 소나티네',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5월의 소나티네', '휴가에서의 플루트'에는 휴가지에서 고즈넉한 한 때 파란하늘 속에서 피어오르는 악흥의 인상이 담겨 있다. 풀랑을 연상시키는 변화무쌍한 색감, 한결같은 선명도가 압권이다.



8574151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 & 2번', '론도'(WOo, 6)

보리스 길트부르크(피아노),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바실리 페트레코(지휘)

#### 뛰어난 균형감과 산뜻한 재치로 빚는 베토벤의 위풍당당한 영감

쇼스타코비치 작품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보리스 킬트버그와 바실리 페트렌코,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선보인 두 사람의 첫 번째 만남(8.573666)은 쇼스타코비치에 대한 각자의 진중한 접근이 조화를 이룬 군더더기 없는 연주로 주목 받았다. 이제 그들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을 통해 전작의 반향을 뛰어넘는 빼어난 균형감과 산뜻한 재치로 위풍당당한 영감을 조탁한다. 길트버그의 세밀하면서도 정갈한 터치와 페트렌코가 이끄는 로열 리버풀 오케스트라의 입체적이고도 다채로운 반향의 어울림은 작품의 열정적인 에너지와 기발한 인상을 배가하며.

길트버그의 카덴차가 담긴 '론도'(WOo. 6)는 음반의 재기발랄한 여운을 훌륭하게 갈무리한다. 놓칠 수 없는 연주자들의 놓칠 수 없는 두 번째 만남!



## 8574027

# 무곡으로 조명하는 바흐 음악의 위대한 순간들 2집

소니아 루빈스키(피아노)

## 한층 정교해진 기하학적 묘미, 노래하듯 흘러가는 음의 향연

노래하듯 유영하는 기하학적 선율, 무 곡으로 갈무리한 바흐 음악을 통해 바 흐 음악의 위대한 순간들을 조명한 1집 (8.574026)에 이어 브라질 출신의 피아니 스트 소니아 루빈스키는 〈클라비어 연습 곡 2권〉중 '프랑스 양식의 서곡'을 주축 으로 '영국 모음곡', '파르티타'에서 발췌 한 작품을 더해 총 17곡으로 구성된 (음반 의 원제) 위대한 연속(부속)'을 이어간다.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과 구조미. 한층 정교해진 기하학적 묘미와 노래하듯 흘러가는 음의 향연. 전작에서 느낄 수 있 었던 선율미에 더해 바흐가 작곡한 무곡 의 다양한 스타일과 분위기를 느끼는 순 간은 몇 번을 들어도 새로울 정도로 매력 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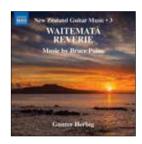
## 8502021 **[20CDs]**

#### '영국 현악4중주 모음집'

마치니 콰르텟(로랑 맥아슬란·로렌스 잭 슨·다비드 앤젤(바이올린), 마틴 오트람 (비올라), 미셸 마츠노프스키(첼로))

## 영국이 실내악 강국임을 선포했던 20장 의 음반들

16세기 명성 높은 악기 제작자 '마치니'의 이름을 달고 1988년 마치니 콰르텟이 창 단됐다. 이들은 낙소스에서 영국 작곡가 들의 현악 4중주를 꾸준히 발표하며 오늘 에 이르렀고, 2019년 9월 기존 음반들 20 장을 한데 모아 이 박스물을 발매했다. 20 장의 CD에는 엘가나 브리튼과 같은 친숙 한 작곡가는 물론 생소한 영국 작곡가들 의 4중주가 담겨 있다. 이들 모두 19세기 말과 20세기에 활동한 현대음악의 기수들 이다. 하지만 대륙의 음악처럼 반항적이 지 않으며 영국 특유의 전통과 멜로디 라 인이 살아 있다. 해설지(60쪽/영문)는 영 국 실내악 대가들의 미니 백과사전과도 같다. 종이케이스마다 발매당시 사용한 재킷 이미지가 담겨 있다. 낙소스의 높은 녹음기술력으로 각 악기의 소리를 명료하 게 잡아낸다.



## 8574121

# 뉴질랜드 기타 작품 3집

군터 헤르비히(기타)

# 망망대해 아련한 서정을 담은 시적 인상

클래식 기타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뉴질랜드 기타 음악의 숨겨진 매력을 찾는 세 번째 여정이 담긴 음반이다. 라벨과 드뷔시를 연상시키는 세밀하고 화려한 인상주의 색채로 뉴질랜드 풍광을 표현한 브루노 페인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기타로 표현한 '바다의 교향시'라고 할 만한 초기작 '바다 모음곡', 나비가 노니는 오아쿠라의 정원 풍경을 담은 '오아쿠라의 벨소리', 브루노 페인에 의해 재탄생한 마오리족의 전통 - 앨범의 백미 '4개의 마오리족민요'는 망망대해 아련한 서정으로 수놓은 시적 인상으로 가득 차 있다.

\* '4개의 마오리족 민요'(6-9번 트랙), '오 아쿠라의 벨소리'(10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00250 [90DISCs]

베토벤 탄생 250주년 90CD 박스물 (베토벤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서)

#### 베토벤의 모든 세계를 담고, 복원하다

2020년 베토벤(1770~1827) 탄생 250주년을 앞두고 낙소스가 내놓은 기념비 같은 박스물로 ①90CD, ②1,550곡 ③136쪽 해설지 ④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작품 무료다운로드권(2개)가 보너스로 수록되어 있다. 교향곡·협주곡·소나타·실내악·극음악(오페라 등)·합창·가곡 등의 대표작은 물론 최근 발견한 희귀작품들을 포함하여 천재의 삶과 예술세계를 두루 살펴보는 철저한 개론서와도 같은 박스물이다. 베토벤 초상화와 악보, 스케치 등이 수록된 수준 높은 해설지가 들어 있다. 'Unheard Beethoven'의 음악감독 빌헬름 홀스베르겐이 매니저로 참가하여 희귀작과 악보 발굴에도 큰 힘을 실었다. 그의 노하우와 경험이 박스물의 가치와 완성도를 높인다.

베토벤(1770~1827)은 수많은 명작을 남겼고, 낙소스는 이 박스물로 그 모든 것을 담아냈다.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의 기념비를 곳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낙소스가 내놓은 90CD의 박스물에 제일 먼저 눈길이 갈 것이다.

베토벤은 많은 음악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기를 바랐으며, 코다이 콰르텟, 타카코 니시자키(바이올린), 보리스 길트버그(피아노) 등의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들은 신선한 해석을 통해 베토벤의 음악적 유언을 성취해낸다. 이러한 후대의 해석자들은 전세계적으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이 박스물을 통해 그러한 이들의 역사적인 베토벤 연주를 만날 수 있다.

# [낙소스 베토벤 박스의 장점]

1) 1,550개 이상의 트랙, 136쪽에 달하는 트랙리스트 및 해설지, 두 개의 무료 다운로드권이 들어 있는 90CD의 박스물이다. 타사에서 발매될 베토벤 박스는 때로는 3중으로 복사된 CD가 있는반면 낙소스 박스물에는 복제된 레퍼토리나 CD가 없이 레퍼토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2) 권위와 명성을 지닌 레퍼토리로 구성되었다. 오케스트라, 협주곡, 피아노, 실내악, 극음악 (오페라 · 연극), 합창, 가곡 등이 포함되었다. 베토벤하면 떠오르는 친숙한 대표작은 물론 근래에 발견된 희귀작품을 두루 아울러 베토벤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교과서와도 같은 박스물이 될 것이다.

3) 1,550개 이상의 트랙을 안내하는 목록에는 음반의 녹음일자, 장소, 연주·녹음에 사용된 악보 판본과 버전, 출판사 등이 수록되어 악보에 관한 명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4) 'Unheard Beethoven' 프로젝트의 음악감독 빌헬름 홀슈베르겐이 박스물 제작에서 컨설팅을 맡았다. 홀슈베르겐은 프로듀서 마크 짐머와 함께 수백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희귀작, 연주나 녹음 전례가 없는 작품 등을 열정적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통해 베토벤의 작품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5) 베토벤이 연극을 위해 1811년 작곡한 '아테네의 폐허' Op.113는 연극 대사와 함께 세계 최초로 녹음된 음반으로, 이 박스물을 통해 만날 수 있다.

6) 근래 발견된 희귀작품 수록과 세계 최초 레코딩 작품들 수록

#### 7) 보너스

박스물 구매자는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의 교향곡과 가곡이 담긴 앨범을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박스에 이에 관한 세부 정보와 쿠폰 코드가 담겨 있다.

8) 부클릿내 해설지 (His Life and Works) 한글번역본 제공 (번역본 온팩 /한정수량)

# Ondine

www.ondine.net





#### ODE1334-2

## 2019년 서울시향 올해의 음악가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로빈 티치아티(지휘),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바이올린)

## 베토벤과 시벨리우스가 만난 이유

나란히 담긴 베토벤(고전)과 시벨리우스(낭만)의 협주곡은 1806년과 1905년에 태어나 한 세기의 시간차를 지녔고, d단조로 구성되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테츨라프(2019 서울시향 올해의 음악가)는 두 곡이 '불멸의 깊이와 느낌을 지닌 작품'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변치 않는 고전의 성지에 두 작품을 나란히 올려놓는다. 2011년 온딘(Ondine)에서 출시된 멘델스존 · 슈만 협주곡 음반과 2017년 바흐 소나타와 파르티타 앨범은 테츨라프에게 상복을 안겨준 명반이다. 로빈 티치아티(베를린 도이치 심포니)와 함께 한 이 음반도 전작을 뛰어넘을 기세로 가득하다. 테츨라프만의 과감한 진행에 동조하며 함께 힘을 실어주는 티치아티의 지휘도 눈여겨 볼 것, 특히 도이치 심포니에서 교향곡녹음에만 주렴해온 티치아티의 협주곡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해설지에는 테츨라프의 장문 인터뷰가 수록.



# ODE1336-2

# 차이코프스키: 존 크리소스톰의 기도, 아홉 개의 성가 라트비아 방송 합창단, 시그바르드 클라바(지휘)

# 차이코프스키가 남긴 정교회 문화의 위대한 유산

슬라브계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에게 정교회(오소독스)는 강력한 문화의 기반이다.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적인 화음을 들려준 차이코 프스키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그의 종교 합창곡은 그 위대한 유산 이다. 38세에 작곡한 〈존 크리소스톰의 기도〉는 그 대표작으로, 선 창과 응답송으로 구성된 전통성가양식과 정교회 성가의 두텁고 변 화가 적은 화음 진행을 따르면서도, 그의 뛰어난 선율 작법이 자연 스럽게 어우러져 있어 최고의 낭만시대 성가로 손꼽힌다. 함께 수 록된 40대 중반에 완성한 〈아홉 개의 성가〉는 보다 자유롭게 합창 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 ODE1331-2

## 베토벤: '에그몬트' 전곡

엘리자베트 브로이어(소프라노), 로버트 훙거-뷜러(낭송), 헬싱키 바로크 오케스트라, 아포 해키넨(지휘)

#### 독일을 대표하는 두 천재 예술가 괴테와 베토벤이 함께 이룩한 걸 자

베토벤이 작곡한 훌륭한 관현악 서곡들은 19세기 후배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에그몬트〉는 그중 하나로, 오늘날 가장 자주 연주되는 작품이다. 그런데 이 곡은 본래 16세기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괴테의 희곡을 상연하기 위해 작곡된 음악으로, 서곡과 네개의 간주곡을 포함한 관현악 부수음악과 두 곡의 노래, 한 곡의 낭송음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음반은 이러한 연극 부수음악 〈에그몬트〉의 잘 알려지지 않은 전체를 수록하여, 독일을 대표하는 두천재 예술가 괴테와 베토벤이 함께 이룩한 걸작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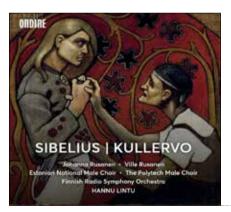
ODE1337-2

리스트: 십자가의 길/ 패르트: 솔페지오, 숨마, 두 명의 기도자, 석고 상자를 지닌 여인

칼레 란달루(피아노), 에스토니아 필하모닉 실내합창단, 카스파르스 푸트닌시(지휘)

# 구도하는 피아니스트, 리스트 말년의 모습을 담은 합창 음악의 신기원

프란츠 리스트는 젊은 시절 최고의 음악 스타였지만, 가는 곳마다 염문을 뿌리고 귀족 부인과 애정을 나누었던 난봉꾼이었다. 그런데 말년에는 기독교에 귀의하여 수도사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여러 종교 작품을 남겼다. 피아노와 합창을 위한 〈십자가의 길〉은 그중 하나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시점부터 무덤에 안장되기까지 열네 개의 장면을 그린다. 장면을 묘사하는 극적인 피아노와 종교적 엄숙함을 표현하는 합창의 결합은 대단히 독특한 음악적 환상을 보여준다. 패르트의 아카펠라 합창곡들은 동유럽 정교회의 깊은 종교적 신비로 큰 감동을 준다.



ODE1338-5 [SACD] 시벨리우스: 쿨레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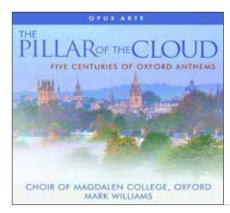
요한나 루사넨(소프라노), 빌레 루사넨(바리톤), 에스토니아 국립 남성합창단, 폴리텍 합창단,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 한누 린투(지휘)

# '합창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시벨리우스의 초대형 걸작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민족주의 작곡가로서, 핀란드와 그 신화를 노래하는 작품들을 다수 작곡했다. 그중 시벨리우스가 27세에 작곡한 독창과 합창, 관현악을 위한 〈쿨레르보, Op. 7〉은 핀란드의 옛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작품으로서, 그의 가장 규모가 큰 결작 중 하나이다. 아름다운 선율과 과감한 극적 표현, 핀란드의 광활한 대지가 연상되는 호탕한 사운드 등 이 곡에서 시벨리우스의 음악적 언어가이미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고의 시벨리우스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누 린투는 이 작품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연주를 들려준다.

**Opus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OACD9045D

#### The Pillar of the Cloud

옥스퍼드 맥덜린 대학 합창단, 마크 윌리엄스(지휘, 오르간)

## 지난 500년간 옥스퍼드에 울려 퍼진 영국 합창의 정수

옥스퍼드는 영국 합창음악 전통의 심장부로, 이곳에는 1480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옥스퍼드 맥덜린 대학 합창단이 그 중심을 지켜왔다. 높은 명성을 지닌 이 단체는 16세기 존 태버너부터 20세기 케네스 레이튼까지 약 500년간 옥스퍼드를 이끌어온 작곡가들의 합창곡을 수록했다. 고음악 작품들에서는 종교적인 아우라에 균형 잡힌 폴리포니를 들려주며, 낭만시대의 작품들에서는 풍부한 화음으로 따뜻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작품들에서는 영국의 낭만을 이어받아 서정적이면서도 사람의 목소리가 갖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들려준다.

# Orchid Classics

www.orchidclassics.com





ORC100099

# 브람스: 클라리넷 삼중주, 클라리넷 소나타 1번, 2번

조셉 쉬너(클라리넷), 김소미(피아노), 요안나 프로다노바(첼로)

#### 꿈과 같은 환상과 사랑스러운 애정으로 브람스의 마음을 그린 연주

브람스가 은퇴를 결심했을 때, 그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은 뮐펠트의 클라리넷이었다. 브람스는 뮐펠트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연주에 감동하여 그를 '미스 클라리넷'이라고 불렀으며, 클라리넷 삼중주곡과 클라리넷 소나타를 작곡했다. 이러한 브람스와 클라리넷의 인연을 생각하면, 그의 클라리넷 작품들은 꿈과 같은 환상과 사랑스러운 애정이 넘치는 상상력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조셉 쉬너의 클라리넷은 이러한 이미지를 따뜻하게 그려내며, 프로다노바의 첼로 또한 애틋한 기쁨을 머금고 있다.

그리고 김소미의 피아노 터치도 온화하고 감각적이다.



#### ORC100101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Op. 1 No. 3, 대공 삼중주 Op. 97** 트리오 콘 브리오 코펜하겐

## 베토벤의 거장성과 무게감에 음악의 즐거움으로 활력을 불어넣은 명연

유수한 콩쿠르를 석권하고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트리오 콘 브리오'는 2015년에 덴마크의 가장 권위 있는 음악상인 'P2 예술 상'을 받음으로써 덴마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 들의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세 번째 앨범에는 출세작인 '작품1의 3 번'과 완숙한 시기의 〈대공 삼중주〉가 수록되어있다. '작품1의 3번' 은 모차르트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시기였지만, '트리오 콘 브리 오'는 선율과 화성적 움직임을 극적으로 조화시켜 거장적인 음악적 표현을 들려준다. 〈대공〉에서는 작품의 무게감에 활력을 불어넣어 음악의 즐거움을 전한다.



#### ORC100102

베토벤, 브람스: 클라리넷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

알렉산더 베덴코(바이올린), 키릴 즐로트니코프(첼로), 이타마르 골 란(피아노)

#### 신구 고전파를 대표하는 두 거장의 목관, 현, 건반을 위한 삼중주 고

베토벤의 〈삼중주, Op. 38〉은 1803년 작품으로, 1약장은 '알레그로 콘 브리오'로 시작하고 마지막 약장을 '프레스토'로 마무리하여, 같 은 해에 작곡된 〈영웅 교향곡〉의 영향이 엿보인다. 그런데 칸타빌 레와 미뉴엣, 변주곡 등 다양한 여섯 약장으로 구성되어, 마치 옛 스타일과 새로운 스타일이 혼합된 인상을 주는 독특한 작품이다. 브람스의 〈삼중주, Op. 114〉는 클라리넷 연주자를 위해 쓴 만큼, 아 름다운 클라리넷 선율이 돋보인다. 따뜻한 베덴코의 클라리넷과 극 적인 골란의 피아노는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즐로트니코프의 첼 로는 균형점에 있다.



## ORC100103 [2 for 1.5] 엘가: 팔스타프 / 채드윅: 탐 오셴터

웨일즈 BBC 국립 관현악단, 앤드루 콘스탄틴(지휘)

#### 대관현악단의 다양한 악기가 수놓은 화려한 음색으로 그린 환상

〈사랑의 인사〉로 유명한 에드워드 엘가는 관현악곡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화려한 음색의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큰 감동을 준다. 이 음반에 수록된 〈팔스타프—관현악 연습곡〉은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교향곡 2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걸작이다. '팔스타프'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으로, 이 음반은 희극의 장면을 낭독한 후 엘가의 음악이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엘가는 이 곡에서 대관현악의 다양한 악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뛰어난 극적 표현력과 음악적 효과를 훌륭히 발휘했다. 채드윅은 미국의 낭만작곡가로, 깊고 풍부한유럽적 감수성이 가득하다.



#### ORC100104

#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 / 몬테로: 라틴 협주곡

가브리엘라 몬테로(피아노), 오케스트라 오브 아메리카스, 카를로스 미겔 프리에토(지휘)

## 남미의 정열로 모든 순간을 음악적 즐거움으로 채우는 몬테로의 마법

베네수엘라 출신의 피아니스트 가브리엘라 몬테로는 중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피아니스트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는 클래식 뿐만 아니라 즉흥연주에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탁월한 작곡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피아노 협주곡 1번 '라틴'〉은 이러한 몬테로의 뛰어난 음악성이 발휘되어있다. 특히 남미의 격렬한 댄스 리듬과 애수가 가득한 노래 선율로 모든 순간을 음악적 즐거움으로 채운다. 함께 수록된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 장조〉는 그녀의 뛰어난 리듬 감각과 감성적인 선율 표현력이 더해져 새로운 감흥을 선사한다.

# Paladino Music

www.paladino<u>.</u>at



# paladino music

#### pmr0102

슈베르트: 소나타 21번 D960, 두 개의 즉흥곡 D935/2~3

슈테판 슈트로이스니히(피아노)

## 슈베르트의 방황에 차분히 동행하는 가장 슈베르트다운 연주

빈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슈테판 슈트로이스니하는 빈 음악대학과 런던 왕립음악원에서 공부했으며, 고전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매우 폭넓은 레터토리를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그에게 남다른 명성을 가져다준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작품들로, 슈베르트의 마지막 소나타를 수록한 이 음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베토벤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길을 모색하던 시절, 슈베르트가 걸었던 그 방황의 길이 바로 이 소나타에 아로새겨져 있다. 슈트로이스니하는 서두르지 않고 담담하면서도 긴장감이 살아있는 터치에 이러한 감정을 오롯이 표현하고 있다.



#### pmr0094

#### 바흐: 15개의 3성부 신포니아 등

에릭 램(목관 플루트), 엘리자베트 쿠퍼라트(비올라), 마르틴 룸멜(첼로)

#### 세 악기가 투명하게 들려주는 바흐의 숭고한 다성음악의 세계

바로크 시대의 작품들은 자유롭게 편곡하여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바흐의 여러 작품들은 다양한 악기로 연주되곤 한다. 이 음반에서는 바흐의 건반 작품인 〈15개의 3성부 신포니아〉와 〈잘 조율된 건반 작품집〉 중 다섯 곡을 목관 플루트와 비올라. 첼로로 연주했다. 이 세 악기의 음색은 모두 차분하고 수수하기 때문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렇기에 바흐의 다성음악을 즐기기에 더욱 적합하다. 이와 함께 수록된 쿠르탁은 현존하는 유럽 최고의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소품들은 바흐의 음악에 대한 깊은 사색의 결과물들이다.

# **Paraclete**

www.gdcrecordings.com

GLORIÆ DEI CANTORES 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싱어들'이라는 의미로, 1988년에 매사추세츠주의 올리언스에서 리차드 K 떡슬리에 의해 설립된 세계 정상급 합창단이다. 이들은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21세기의 최신 작품까지 성가 합창의 풍부한 전통을 통해 진리와 아름다움을 밝히는 데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설립 이래 북미와 유럽, 러시아를 투어하며 최고의 찬사를 받았으며, 유명한 작품뿐만 아니라 잘 연주되지 않는 희귀한 작품까지 50여개의 음반을 통해 전세계 합창음악 애호가들을 만나고 있다.

"단연 최고" - BBC

"사랑스럽고, 순수하며, 빛난다." - Gramophone "황홀한 아카펠라" - Chicago Tribune





GDCD039/PAR

모차르트: 희귀한 합창 작품

글로리애 데이 칸토레스, 복스 챌리 신포니아, 리차드 K, 퍽슬리(지휘)

#### 소년기부터 젊은 시절에 걸쳐 작곡된 모차르트의 숨겨진 보물들

모차르트는 다양한 기악곡과 관현악곡이 연주되고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잘츠부르크 대주교 소속으로서 합창곡은 그에게 중요한 영역이었다. 오늘날에는 매우 한정된 합창곡만이 집중 연주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음반은

12세에 작곡된 모테트〈오소서 성령이여, K. 12〉부터 29세에 작곡된 칸타타〈다웟의 회개, K. 469〉까지 소년기부터 젊은 시절에 걸쳐 작곡된 다양한 합창곡을 수록했다. 당시의 유행을 반영한 극적인 노래와 경쾌한 관현악은 이미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으며, 모차르트의 조숙하면서도 점차 발전하는 음악세계를 보여준다.



GDCD041/PAR [2CDs]

#### 장 랑글레의 오르간과 합창 음악

제임스 조던(오르간), 글로리애 데이 칸토레스, 엘리자베스 C. 패터 스(지휘)

넓은 스펙트럼과 극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그린 종교적 신비 프랑스 오르간의 거장 앙드레 마르살의 제자인 장 랑글레는 파리의 생트-클로틸드 바실리카에서 봉직했던 프랑스의 중요한 오르가니스트이며, 마르셀 뒤프레와 폴 뒤카스에게서 작곡을 배운 작곡가로서 오르간과 합창을 위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두 장의 음반에 담은 이 앨범은, 그의 음악세계뿐만아니라 20세기 후반 프랑스 오르간 및 합창 음악의 모습을 담은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웅장하면서도 섬세함을 놓치지 않는 넓은스펙트럼 속에서, 선율과 화음의 극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신비로운 환상을 창조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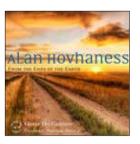
GDCD051/PAR [SACD]

#### 천사의 찬송

글로리애 데이 칸토레스 스콜라

# 그레고리오 성가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천사

천사는 신의 메신저이자 용맹한 전사이며, 신성한 보호자이자 빛의 수호자이다. 이러한 천사의 다양한 존재는 다양한 이야기와 예술 작품을 통해 표현되어왔다. 근대서양음악의 시작점에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에도 천사를 찾아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앨범은 〈천사의 미사〉를 비롯하여, 〈주의 천사가 함께 하시다〉, 〈수태고지〉,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등 천사를 주제로 하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모아놓았다. 선창과 응답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역할을나누고 또한 다함께 부르는 다양한 변화는 단성부의 무반주 성가에 더욱 생동감을 준다.



# GDCD052/PAR **[SACD]** 호바네스: 땅끝으로부터

글로리애 데이 칸토레스, 엘리자베스 C. 패터슨(지휘)

#### 동서양이 어우러진 가장 특별한 신비

20세기의 대표적인 다작가인 앨런 호바네스는 67개의 교향곡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합창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흥미로운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의 음악은 유럽클래식을 기반으로 미국적인 리듬과 자신의 뿌리인 아르메니아의 민속음악적인 요소, 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본음악의 음계 등이 섞여 그만의 독특한 사운드를 만든다. 이러한 모방할 수 없는 개성으로 그의 음악은 미국에서도 가장 독특한작곡가로서 주목을 받았으며, 오늘날에도자주 연주되고 있다, 호바네스의 성가를통해 동서양이 어우러진 가장 특별한 신비를 경험할 것이다.



## GDCD055/PAR [SACD] 성모 마리아 찬가

글로리애 데이 칸토레스 남성 스콜라

#### 그레고리오 성가를 통해 만나는 성모 마 리아

성모 마리아는 축복 받은 처녀이자 예수의 어머니로서, 죄악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약시대의 시작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에 오랫동안 성모 마리아는 찬송의 대상이었으며, 그레고리오 성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음반에는 다양한 버전의 〈아베 마리아〉와〈살베 레지나〉를 비롯하여〈슬픈 성모〉、〈구원자 되신 성모〉 등 성모를 찬양하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수록했다. 연주단체는 그레고리오 성가 전문 합창단으로, 남성의 목소리로만 연주하는 전통적인 그레고리오 성가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경건한 분위기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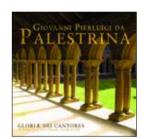


GDCD063/PAR [SACD]

라**흐마니노프: 올나이트 버질, Op. 37** 글로리애 데이 칸토레스, 피터 저미호프 (지휘)

# 풍부한 화음과 러시아 특유의 극저음으로 압도하는 위대한 음악적 감동

라흐마니노프는 교향곡과 피아노 협주곡으로 유명하지만, 러시아 귀족 출신으로서 정서적으로 정교회에 깊이 뿌리내리고있다. 이 위대한 합창곡은 그 증거이자, 낭만 러시아의 귀중한 유산이다. '올나이트 버질'이란 밤새 깨어 부르는 찬송으로, 저녁기도와 새벽기도, 아침기도로 이루어져있다. 라흐마니노프의〈올나이트 버질〉은 1915년 작품으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위기에 놓인 러시아를 위해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참회의 경건함이 느껴진다. 또한 풍부한 화음과 러시아 특유의극저음이 주는 음악적 감동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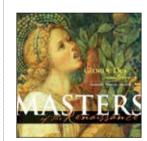
GDCD106/PARG

## 팔레스트리나: 미사곡 '주의 천사가 내려오시다', '복되신 성처녀 마리아' 등

글로리애 데이 칸토레스, 엘리자베스 C. 패터슨(지휘)

# 르네상스 폴리포니 음악의 정점에 섰던 팔레스트리나의 미사곡

16세기 마지막 르네상스 음악을 대표하는 양식은 폴리포니였다. 폴리포니 음악은 여러 성부가 주선율을 모방하며 진행하여 대단히 복잡하게 들리기 때문에, 가사를 단순화하거나 새로운 가사를 쓰기보다는 청중이 잘 알고 있는 정해진 기도문을 사용했다. 이 시기에 명성을 얻었던 팔레스트리나는 라틴어 기도문을 사용하여 최고의 폴리포니 음악을 만들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교적 감동과음악적 희열을 느끼게 한다. 〈주의 천사가 내려오시다〉와 〈복되신성처녀 마리아〉는 여섯 곡으로 구성된 정규 미사곡이며, 여섯 곡의모테트가 함께 수록되어있다



GDCD114/PARG

#### 르네상스의 거장들

글로리애 데이 칸토레스, 엘리자베스 C. 패터슨(지휘)

# 각 지역마다 꽃피웠던 르네상스 거장의 명곡들

르네상스 시대의 합창곡은 아카펠라 그룹에게는 거대한 보고이다. 이동이 쉽지 않다보니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음악이 발전했고, 또한 작곡가들이 활동했던 영역에 따라 추구하는 목적과 성향이 달랐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이 시대가 갖는 자연스럽고 독특한 매력이다. 이 한 장의 음반으로 이탈리아와 벨기에 북부, 독일, 스페인, 영국 등 다양한 지역의 르네상스 음악을 들으며 이러한 매력을 즐길 수 있다. 반면에 라틴어 성가를 수록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다르지만 유럽을 하나로 이우르는 공통된 문화예술의 혼을 또한 듣게 된다.

# **Proprius**

www.proprius.com





PRCD2046

#### 바로크 무곡의 새로운 변주들

레바로크, 마리아 린달(예술감독)

## 레바로크만이 들려줄 수 있는 유쾌하고 자유로운 댄스 변주곡

'레바로크'는 북유럽의 고음악을 대표하는 '스톡홀름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명칭이다. 유럽 정상의 연주력과 흥미로운 기획으로 고음악계의 보석과 같은 존재로 빛나고 있는 그들은, 이 음반에서도 민속음악을 접목한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그들만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케리니의 〈메뉴엣〉은 바이올린의 기교적인 피들 연주를 들려주며, 바흐의 〈음악의 헌정〉을 클레즈머로 재해석하는 등, 매우 유쾌하면서도 변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바로크 음악은 춤곡을, 춤은 민속음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



#### PRCD2084

#### 오르간 삼중주 작품집

마리카 팰트스코그(바이올린), 사물리 외른스트뢰메르(첼로), 안데르스 욘손(오르간)

바이올린과 첼로, 오르간의 혼치 않은 앙상블을 위한 희귀 작품들 낭만작곡가 라인베르거의 〈협주곡〉은 오르간의 풍부한 회음 위에 자유롭게 유영하는 두 현악기의 아름다운 연주가 펼쳐지며, 이중협주곡과 같이 진행한다. 시벨리우스 음악원 교수였던 구스타프손의〈기도〉는 신에게 탄원하는 두 현악기와 신이 나타난 듯한 오르간의 사운드의 조화가 신비로우며, 폴란드 출신인 리오프스키의 〈시칠리아의 빗방울〉은 빗방울을 묘사한 오르간의 리듬에 맞춰 두 현악기가 음악의 춤을 춘다. 말뫼 음악원 교수인 스토름의 〈시편〉은 웅장하고 종교적인 오르간 사운드와 시편을 낭송하는 듯한 현악기의 제스쳐가 인상적이다.



#### RES10244

#### '우아한 여인' 마래의 비올 모음곡

로버트 스미스(비올라 다 감바), 이스라엘 골라니(테오르보), 조슈아 치담(비올라 다 감바), 올리비에 포르탱(하프시코드), 아드리앙 로드 리게스 판 데어 스풀(타악기)

# 우아한 음색과 감각적인 장식으로 프랑스 바로크 춤곡의 매력을 한껏 살린 연주

마랭 마래의 '피스 드 비울', 즉 '비울 작품'은 오랫동안 명맥이 끊긴 비울 음악의 전통을 복원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곡들은 일정한 전주곡으로 시작한다는 점 이외에는 형식상 공통점이 거의 없지만, 모든 곡들이 개성을 가지고 저마다의 매력을 발한다. 비울 연주자인 로버트 스미스는 바흐의 성지인 쾨텐에서 열린 2012년 바흐~아벨 콩쿠르의 우승자로, 마래의 A장조와 E단조, G단조, F#단조 네 곡의 모음곡을 수록했다. 우아하면서도 농염하며, 절도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프랑스 춤 모음곡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 DEC10047

수만: 시인의 사랑, 열두 개의 케르너 가곡, 다섯 개의 가곡 Op. 40 사이먼 월피쉬(바리톤). 에드워드 러쉬턴(피아노)

## 사랑과 죽음을 노래한 슈만 가곡의 심장

바리톤 가수인 사이먼 월피쉬는 에미 데스틴 재단. 주세페 디 스테 파노 콩쿠르, '영 성어 오브 프레미스' 등 여러 상을 수상하는 등. 가장 주목받는 젊은 성악가이다. 그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가곡과 오페라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에드워드 러쉬턴은 전문 반주자로서 루체른 음대에서 피아노 반주를 가르치고 있다. 이 두 정상급 연주자는 슈만의 대표적인 가곡 〈시인의 사랑〉과 숨겨진 명곡〈케르너 가곡〉등을 연주했다. 월피쉬의 음성은 음향이 풍부하고 인간적인 표현이 돋보이며, 러쉬턴의 반주는 작품의 정서를 탄탄하게 받쳐준다.

# Resonus Classcis

www.resonusclassics.com





#### DES102/2

하이든: 소나타 Hob, XVI:52/ 모차르트: 소나타 15번/ 베토벤: 폭풍 소나타 발레베인 비턴(포르테피어노)

## 805년 발터 피아노를 복제한 포르테피아노로 듣는 빈 악파 세 거장의 소나타

발레베인 비턴은 네덜란드 출신의 건반연주자로서, 헤이그 왕립 음악원에서 고음악의 거장인 톤 코프만, 자크 오흐 등에게서 배웠으며, 유럽 전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1805년 발터 피아노를 복제한 포르테피아노로 빈 악파의 고전 소나타를 녹음했다. 하이든의 마지막 소나타인 '소나타 Hob. XVI:52'는 완숙한 기품에 과감한 제스쳐가 돋보이며, 모차르트의 만년의 작품 '소나타 15번'은 명료한 타건으로 음 하나 하나가 투명하게 빛난다. 베토벤의 '소나타 17번 폭풍'은 고요함과 격렬함을 대조시켜 폭풍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Rondaeu

www.rondeau.de





# ROP6172

#### 사랑의 노래

복텟 하노버

# 모든 것이 완벽한 여덟 명의 목소리

하노버 음대 출신 여덟 명의 성악가들이 결성한 '복텟 하노버'는 2015년 멘델스존 음악원 콩쿠르와 2018년 독일 합창대회 우승으로 독일 정상의 보컬 앙상블로 인정받았다. 그들이 녹음한 이 음반은 16세기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사랑 노래를 담았다. 복텟 하노버는 토마스 탈리스와 토마스 톰킨스의 르네상스 시대의 폴리포니를 균형 잡힌 조화로 들려주며, 멘델스존과 코넬리우스, 브람스의 낭만적 화음을 최상의 미성으로 연주한다. 말러와 시벨리우스가 가진 근대의 그늘진 감성과 현대의 신선한 표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

# Siba Records

www.uniarts.fi



SIBARECORDS

# SRCD1023

## RESONANCE

나단 리키 톰슨, 아드리아노 아데왈레, 시몬 알렌, 마리야 카우하녠, 올소 래흐데오야 등

## 지구의 모든 소리가 화합하고 공명하며 만들어낸 음악적 환상

더블베이스 연주자인 나단 리키 톰슨이 재즈와 즉흥음악, 월드뮤직이 섞여 있는 흥미로운 음악을 만들었다. 이 음악에서는 더블베이스와 함께 아프리카 민속악기인 칼림바, 동유럽의 민속악기인 칸텔레, 브라질의 민속악기인 베림바우, 중국의 전통악기로 가야금과 유사한 구쟁, 이외에도 다양한 멀티악기와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리의 세계로 안내한다. 그의 음악은 현실이 아닌 새로운 환상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세상과 연결된다. 이 음악에는 동일한 지구에 살면서도 알지 못했던 인류의 화합이 공명한다.

# Silk Road

www.silkroadmusic.net





# SRM045 [SACD] 강력추천!! 호렌슈타인의 말러 3번

소장하는 순간, 말러의 '성서'를 쥐게 된다 (1970년 녹음본\_유니콘)

## [연주자]

야샤 호렌슈타인(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노르마 프록터, 윌리엄 랑(플뤼겐호른)

Performer: Jascha Horenstein(conductor), London Symohony Orchestra, John McCarthy(conductor), Ambrosian Singers, Russel Burgess(conductor), Wandsworth School Boys Choir, Norma Proctor(contralto), William Lang(flugelhorn), Dennis Wick(trombone)

1925년 빈에서 말러 교향곡 1번을 통해 지휘자로 데뷔했던 거장 야샤 호렌슈타인(1898~1973).

그는 1960년대 세계 정상급의 말러 해석가로 군림했다. 특히 말러 교향곡 3번에 있어서 런던 심포니와 함께 1962년 몽퇴르 페스티벌 녹음과 1970년 영국 페어필드홀 녹음(Unicorn)은 전설적인 명반으로 남았다. 본 음반은 1970년 음반을 초고음질의 SACD로 재발매한 것으로, 2013년 복각된 몽퇴르 페스티벌 본과 함께 1970년의 '전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음반이다.

당시의 원본 자체가 뛰어난 해상도와 음장감을 자랑했기에 1970년 버전은 시대를 뛰어넘어 마니아들 사이에 레전드로 통용되던 음반이다. 역시나 복각된 이 음반에서도 호렌슈타인 특유의 유대적인 감성과 런던 심포니의 호방한 울림이 최적의 사운드를 자랑한다.

특히 3악장에서 플뤼겐호른에 비브라토를 잔뜩 걸어 연주하여 몽환적인 분위기까지 자아내고,

피날레의 풍부한 감성은 여전히 감동을 선사한다.

#### Format: x 2

SACD (1) Part I No.1 Kraftig. Entschie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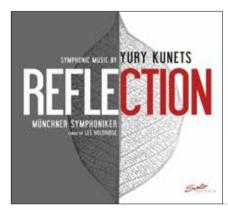
Part II No.2 Tempo di menuetto Sehr massig

#### SACD (2) Part II (Contd.)

No.3 Comodo.Scherzando.Ohne Hast No.4 Sehr Langsam. Misterioso No.5 Lustig im Tempo und keck im Ausdruck No.6 Langsam. Ruhevoll

# Solo Musica

www.solo-musica.de





# SM292

#### 유리 쿠네츠: 반향

유리 쿠네츠(피아노), 뮌헨 심포니 오케스트라, 리 홀드리지(지휘)

## 차이코프스키가 오늘날 다시 태어났다면 바로 이러한 음악을 썼을 것이다

"이 음악은 반향의 성질을 탐구한 것이다. 나는 거울처럼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반향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영혼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모습으로서의 반향을 그리려고 한다." 차이코프스키가 오늘날 다시 태어났다면 바로 유리 쿠네츠와 같은 음악을 쓰지 않았을까? 러시아의 컨템포레리 로맨틱 뮤직을 대표하는 그는, 이번 앨범 '반향'에서는 아름답고 신비한 고향의 달빛과 겨울 풍경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음악으로 옮겨놓았다. 유연한 멜로디와 감각적인 화음,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풍부한 음향은 모든 것을 잊고 환상에 빠지게 한다.



SM308 [2CDs]

바이올리니스트 Fabiola Kim

'1939'-월턴 · 하르트만 · 바르톡 바이올린 협주곡 모음집

케빈 존 에두세이(지휘), 뮌헨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비올라 킴(바이올린)

바이올린에 담은 역사의식, 기획력, 연주력의 삼위일체

뉴욕타임즈가 '눈부신 화려함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춘 드문 솔로이스트'라고 묘사한 파비올라 킴의 월턴ㆍ하르트만ㆍ바르톡의 대표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을 담은 앨범(2CD)이다. 앨범명 '1939'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를 뜻한다. 그 해를 기점으로 세 작곡가가 남긴 작품은 시대의 거울이자.

20세기 음악의 기법이 최고치로 녹아든 작품들이다. 파비올라 킴과 지휘를 맡은 케빈 존 에두세이의 호흡은 20세기 현대음악에 대해 수학적이고 계산적으로 접근했던 기존 음악가들과 달리 작품에 깃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에 대해 따스한 정서와 고귀한 슬픔의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젊은 음악가가 보여줄 수 있는 음반 구성력과 역사의식, 진지한 연주력을 단번에 체험할 수 있는 음반이다.

#### [보조자료]

뉴욕타임즈가 '눈부신 화려함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춘 드문 솔로이스트'라고 묘사한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올라 킴의 참신한 기획력과 진지한 연주력의 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음반(2CD)이다. 이 음반은 2019년 6월에 전 세계적으로 발매되었다. 2018년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이 되던 해로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음악으로 평화를 외쳤고, 2019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80주년이 되는 해. 음반명 '1939'는 히틀러가 체코를 전격적으로 침공하고 이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전세계를 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었던 해를 지칭한다. 이 음반에 수록된 3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전쟁의 불길이 치솟던 1939년을 기점으로 세상에 나온 곡들이다.

2005년 아스펜 국제 음악제 협주곡 부문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미국 리빙스턴 심포니 영아티스트 오디션과 버겐 필드, 코르푸스 크리스티콩쿠르 2위, 2010 얼빙 엠 크라인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독일 쾰른체임버, 북체코 필하모닉, 미국 아스펜심포니, 부다페스트심포니, 로마심포니 등 해외 유명 악단과의 협연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에두세이는 2013년부터 뮌헨 심포니의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SM310 [2 for 1,5] 바인베르크: 비올라 소나타 1~4번 비아체슬라프 디너흐슈타인(비올라)

고독한 선율부터 파괴적인 사운드까지, 한 예술가의 삶에 대한 독백 미에치스와프 바인베르크는 20세기에 유태인이 받은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일가친척 중 유일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며, 소련의 유태인 박해에도 불굴의 의지로 활동을 이어갔다.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부터 삶에 대한 강한 의지까지, 바인베르크의 음표를 통해 이러한 그의 삶의 여정을 들을 수 있다. 오직 비올라 한대를 위한 네 개의 소나타에는 이러한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솔직하게 새겨져 있다. 고독한 선율부터 파괴적인 사운드까지, 바인베르크가 경험했던 우리시대의 모습을 한 편의 예술적인 드라마로 승화시킨 결작이다.



SM327

뮐러: Tea for Two

치엔 피친, 파비안 뮐러(첼로)

# 차를 주제로 하는 독특한 열 곡의 첼로 이중주곡

스위스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인 파비안 뮐러가 대만의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치엔 피친과 함께 자신의 첼로 이중주곡을 모아 음악 으로 내놓았다. 그런데 이 앨범에 수록된 열 곡 모두 중국과 대만 의 차 이름을 제목으로 하고 있으며, 내지에도 음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차에 대한 설명도 함께 수록되어있다. 음악은 중국풍의 포르 타멘토와 도약, 장식이 자주 들리지만, 뮐러의 유럽적 감수성이 깃 들여져 있는 화음과 대선율이 함께하여, 이국적이면서도 세련된 음 악을 들려준다. 서정적인 음악부터 열정적인 음악까지 다양한 표정 으로 앨범을 풍성하게 채운다.



SM293

**멘델스존-현악4중주 Op.12 & 현악8중주 Op.20** 메렐 콰르텟, 카스탈리안 콰르텟

두 콰르텟의 만남. '연륜'과 '실험'의 기분 좋은 충돌!

멘델스존(1809~1847)의 실내악곡이 낭만주의기 작곡가들과 커플링된 음반들은 많아도 이렇게 멘델스존에 '집중'한 음반은 드물 것이다. 메렐 콰르텟이 현악 4중주 Op.12를 연주하고, 카스탈리안 콰르텟과 함께 멘델스존 현악 8중주 Op.20을 함께 선보인다. 특히 개인의 모임이 아닌, 전문적으로 실내악을 다루는 두 콰르텟이 만나일군 8중주는 이 음반의 중심을 이룬다. 2002년 창단 후 만들어온메렐의 '연륜', 2011년 창단 이후 '젊음'을 뿜어내고 있는 카스탈리안의 기운이 하나의 작품에서 묘하게 만나며 안정감과 참신한 실험을 한다. 독일 블라이바흐 콘서트하우스에서의 녹음이 뛰어난 음향감을 제공하는 것도 큰 특징. 눈을 감고 들으면 주자들이 앉은위치가 느껴질 정도로 명료한 녹음이다.



SM31

로베르트 슈만: 나비, 소나타 2번 / 클라라 슈만: 소나타 G단조, 세 개의 로망스

마르가리타 회헨리더(피아노)

반드시 기억해야 할 클라라 슈만의 대표 피아노곡과 로베르트 슈 만의 피아노 음악

피아니스트 마르가리타 회헨리더는 레온 플라이셔의 제자이며, 1991년 부소니 콩쿠르 1등상을 받았다. 현재 뮌헨 음대의 교수이다. 이 음반은 수만 부부의 피아노 작품을 수록했다. 클라라 슈만은 어린 나이부터 작곡을 시작했다. 자주 연주되는 명곡 〈세 개의 로망스, Op. 11〉은 낭만적 감수성이 충만하며, 〈피아노 소나타 G단조〉는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 슈만의 〈나비, Op. 2〉는 성격 소곡의 극치를 보여주며, 〈소나타 2번, Op. 22〉는 슈만 피아노 음악의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회헨리더의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타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 Sono Luminus

www.sonoluminus.com





DSL-92233

드뷔시: 현악사중주 G단조 / 커니스: 현악사중주 3번 '강'

재스퍼 현악사중주단

극적 표현과 거침없는 진행, 풍부한 사운드의 결합으로 귀를 사로잡는 매력적인 연주

미국 작곡가 애런 제이 커니스는 그로마이어상과 풀리처상, 그리고 2019년에 그래미상까지 수상하여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다. 이 음반은 그의 사중주곡 전곡을 녹음하는 재스퍼 사중주단의 프로젝트로, 이 단체는 CMA 클리블랜드 사중주단 상을 수상한 정상급 연주자들이다. 〈현악사중주 3번 '강'〉은 로맹 롤랑의 소설 '장-크리스토프'의 상징적 존재인 라인강을 그린 작품으로, 현대적인 사운드에 극적 표현과 거침없는 진행이 결합하여 높은 몰입도를 지니고 있다. 드뷔시의 사중주곡 또한 풍부한 사운드로 인상주의적 감흥을 십분 불러일으킨다.



DSL-92234 **사랑의 음식** 볼티모어 콘소트

## 셰익스피어를 위한 16세기 영국의 노래와 춤, 그리고 소품들

음악에서 세익스피어는 불후의 주제이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음반은 16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존 다울랜드와 토마스 몰리, 매튜 홈스 등 당대 거장들의 노래와 춤곡을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연관 지어 모아놓았다. 또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민속음악인 '초록 옷소매'도 수록했다. 볼티모어 콘소트는 미국에서 첫손 꼽는 고음악 단체 중 하나로, 비올과 류트, 리코더, 플루트, 기타 타악기들과 민속악기를 사용하여 그 시대의 기풍을 그대로 전한다. 소프라노 다니엘레 스보나베츠의 깨끗하면서도 당찬 음성은 세속적 풍류와 훌륭히 어울린다.

# Steinway & Sons

www.steinway.com





30117

슈만: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민요에 의한 다섯 개의 작품, 환상소곡

브라이언 손튼(첼로), 스펜서 마이어(피아노)

#### 슈만이 사랑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인간미가 살아 숨쉬는 연주

첼리스트 브라이언 손튼은 클리블랜드 음악원 교수로서, 학생 지도와 연주를 병행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스펜서 마이어는 보스턴의 바드 컬리지 음악학교 교수로, 독주자와 실내악 연주자로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두 정상급 연주자들이 연주한 슈만의 작품들은 자주 연주되는 작품이지만, 완벽한 호흡과 진정성 있는 표현으로 새로운 작품으로 느껴질 정도로 신선한 감흥을 준다. 살아 숨쉬는 듯한 첼로의 프레이징과 따뜻하게 공명하는 피아노의 음향은 슈만이 자신의 사람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다.



30098 [2 for 1.5]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S.139 / 랴푸노 프: 초절기교 연습곡 Op. 11

콘스탄틴 셰르바코프(피아노)

# 19세기의 피아니즘의 최절정을 장식하는 초절기교 연습곡들의 풍부한 향연

어떤 어려운 음악이든지 자연스럽고 이름답게 연주해내는 연주자들이 있다. 바로 콘스탄틴 셰르바코프가 바로 그러한 피아니스트이다.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은 최상의 난이도를 구가하는 작품이지만. 셰르바코프는 이 곡이 가진 작곡가 리스트의 낭만성과 환상적인 이미지를 들려준다. '초절기교'라는 말은 리스트 이후 피아니스트~작곡가들의 도전과제처럼 여겨졌는데,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푸노프는 그 도전자 중 한 사람이었다. 리스트와 차이코프스키의 직계인 그는 후기낭만의 서정미와 풍부한 화음에 초절기교를 더하여 피아노의 결작을 만들어냈다.



30108 **[2 for 1.5] 레이날도 안: 열정적인 꾀꼬리** 한유니(피아노)

# 음악적 상상력과 낭만성이 최고조로 발휘 된 성격소품의 걸작

레이날도 안의 〈열정적인 꾀꼬리〉는 53곡으로 이루어진 성격소품집으로, 그의 음악적 상상력과 낭만성이 최고조로 발휘된 작품이다. 제목만 보면 거칠고 빠른 음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안은 소설가 프루스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억눌린 눈물'이라고 표현했다. 즉, 마음속의 열정을 낭만적으로 승화시킨 서정미 가득한 작품으로, 멘델스존의 '무언가'와 쇼팽의 '녹턴', 리스트의 '위로' 등이 들려주는 서정성의 연장선에 있다. 한유니는 한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로, 그녀의 유려한 터치는 이 작품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30107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2, 4, 5, 17번** 데이빗 펑(피아노)

# 중후한 터치와 섬세한 표현력의 조화가 만드는 새로운 감흥

데이빗 평은 호주 태생으로, 호주 방송국 (ABC)의 '올해의 젊은 연주자' 상을 받았으며, 2008년 루빈스타인 콩쿠르에서 최고실내악연주자상과 최고협주곡연주자상을 수상했고, 2013년 브뤼셀 퀸엘리자베스콩쿠르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다. 이 음반은모차르트가 10대 후반에 작곡한 초기 소나타들과 만년의 작품을 수록했다. 초기작은여러 가지 리듬과 프레이즈에 새겨진 다양한 표정들로 매 순간 음악에 집중하게하며, 만년의 작품은 완숙하고 자유로운정신을 노래한다. 데이빗 평은 풍부한 음향을 만드는 중후한 터치로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30115

신창용 피아노 독주곡집 - 베토벤 소나타 30번, 쇼팽 왈츠 시리즈 등 신창용(피아노)

# 피아노의 미래를 점치는, 강렬한 건반 청년

예원학교, 서울예고, 커티스와 줄리어드음대에서 수학한 신창용은 스물넷이던 2018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 클리블랜드콩쿠르와 함께 '미국 3대 콩쿠르'로 통하는 지나 박하우어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①베토벤 소나타 30번 ②리스트 '시적이며 종교적인 조화' S.173 ③쇼팽 왈츠 18번, 34—1번, 42번이 수록된 이 음반은 출시되던 2018년에 미국 클래식방송의 메카인 뉴욕 라디오 방송국(WQXR)이 선정한 최고의 음반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베토벤에선 그가 지닌 성실성이, 리스트에선 낭만성이, 그리고 소품 격으로 동봉된 쇼팽에선 그 특유의 과감한 실험성이 돋보인다. 젊은 피아니스트가 쏘아 올리는 신호탄치고는 상당한 연륜이 돋보인다.



30074 **[2 for 1.5]** 

**슈나벨: '소나타', '춤 모음곡' 등 피아노 음악** 제니 린(피아노)

# 20세기 전반기 음악의 변화가 투영되어있는 슈나벨 음악세계의 재 박경

아르투어 슈나벨은 20세기 전반기 오스트리아의 가장 중요한 피아 니스트지만, 작곡가로서 피아노 독주곡부터 교향곡까지 다양한 규 모의 작품들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을 잘 연주하지 않 았기에. 오늘날 그의 음악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16세부터 65 세까지 슈나벨의 다양한 피아노곡을 수록한 이 앨범은 그의 음악 을 재발견하는 훌륭한 기회이다. 이 음반을 통해 초기에는 아기자 기한 성격소품들이 많이 작곡되었지만, 후기에 무조음악으로 선회 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0대 전후로 나눈 두 장의 음반을 비교하 는 것은 흥미로운 묘미이다.

# Stone records

www.stonerecords.co.uk



# **STONE** records

5060192780895

쇼스타코비치: 첼로 소나타, Op. 40 / 로렌스 로즈: 첼로 소나타, Op. 20

캐서린 젠킨스(첼로), 앨리슨 파(피아노)

## 첼로의 중후한 멜로디와 피아노의 환상적인 화음이 어우러지는 첼로 소나타의 매력

영국 출신인 로렌스 로즈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공부했지만, 법학을 전공하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여 58세에 은퇴했다. 하지만 음악과 작곡에의 열정을 놓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갔으며, 은퇴 후 실내악부터 대편성 작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을 발표했다. 〈첼로 소나타〉는 2015년 작품으로, 중후한 멜로디와 환상적인 화음, 자유로운 리듬의 교차 등이 돋보인다.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소나타〉는 20세기에 작곡된 첼로 소나타로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일 것이다. 개인적인 마음을 토로하는 듯한 젠킨슨의 섬세한 표현이 강한 이끌림을 느끼게 한다.

# Tactus

www.tactus.it





TC710702 [세계 최초 녹음]

지아르디니: 여섯 개의 바이올린 이중주. Op. 2

아르키미에 두오

## 18세기 중반, 런던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던 지아르디니의 실내악 작품

펠리체 지아르디니는 12세에 악장으로서 조멜리의 오페라를 연주하던 중 즉흥적으로 연주하여 청중들이 열광하자 지휘를 하고 있던 조멜리가 질투심에 뺨을 때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그는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인 투어를 했으며, 특히 런던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여섯 개의 바이올린 이중주〉는 1751년에 런던에서 출판된 작품으로, 그의 명성에 한 몫 했다. 이탈리아 음악원 교수인 알레산드로 카차토와 유능한 실내악 연주자인 샤론 토마셀리의 연주는 균형 잡힌 연주로 초기 고전의 단아한 아름다운과 다양한 표정을 그린다.

#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0206 [세계 최초 녹음]

게른샤임: 소나타 2번, 소나타 3번, 여섯 개의 전주곡

옌스 바르니크(피아노)

# 신동으로 명성이 높았던 게른샤임을 통해 보는 독일의 낭만음악

독일의 낭만작곡가인 프리드리히 케른샤임은 모차르트에 비견되는 신동으로 알려졌으며, 10대 때에 이미 전문 작곡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소나타 2번〉은 14세 때에, 〈소나타 3번〉은 15세 때의 작품으로, 바르니크가 필사본을 통해 복원하여 연주했다. 이들은 낭만적 함께 수만의 영향이 보이면 소나타 3번〉은 15세 때의 작품으로, 바르니크가 필사본을 통해 복원하여 연주했다.

25세 때에 출판된 〈여섯 개의 전주곡〉은 이 두 소나타와는 달리, 당대의 피아노 스타였던 쇼팽을 연상시키는 화성적인 시도가 돋보이며 감성적인 깊이도 성숙해져있다.



TOCC0522 [세계 최초 녹음] 슈만: 청소년을 위한 앨범, Op. 68 (현악삼중주 편곡) 지브라 트리오

## 현악삼중주로 편곡하여 새로운 음색의 옷을 입힌 슈만의 대표적인 교육용 작품

유만의 〈청소년을 위한 앨범〉은 교육용으로 작곡한 피아노 작품으로, 43곡의 짧고 간단한 소품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곡들은 이전의 고전 작품들을 참고하여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유도하면서. 삶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여 음악적 흥미를 고취하고 표현에 대한 상상력을 길러준다. 핀란드의 정상급 첼리스트인 카르투넨은 이 곡을 현악삼중주를 위해 편곡하여 그 음악적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세 악기의 음색적 차이와 배합. 그리고 현악기의 다양한 표현이 더해져 작품의 이미지를 더욱 다채롭게 만든다.



TOCC0532 [세계 최초 녹음]

자크-달크로즈: 20개의 광시곡과 리듬 연습곡, 케스케이드, 현의 연습을 위한 스케치

파올로 무나오(피아노)

## 빼어난 악상과 풍부한 회음, 환상적인 극적 전개가 매혹적인 피아 노의 보석

교육자로 큰 명성을 얻었던 에밀 자크-달크로즈는 작곡가로서 교육적인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이 앨범에 수록된 '20개의 광시곡과 리듬 연습곡'은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빼어난 악상과 풍부한 화음, 환상적인 극적 전개로 콘서트용으로 손색이 없으며, 고전적인스타일과 낭만적인스타일, 드뷔시가 연상되는 인상주의적인스타일, 재즈의 영향을 받은 곡,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곡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케스케이드'는 화려하고 감각적인 표현과 관현악적인스케일이 돋보이며, '스케치'는 음악적 운동성을 의도한 독특한 작품이다.



TOCC0020 [세계 최초 녹음] 체르니: 피아노 음악 2집 짜오 징슈(피아노)

## 명인기와 다양한 장식으로 만드는 경쾌하고 화려한 피아노의 세계

베토벤의 수제자였던 카를 체르니는 당대 피아노의 거장으로서 중요한 피아노 문헌들을 남겼다. 〈스위스 알프스의 메아리 2권〉과 〈로시니의 오페라 '비단 사다리' 중 '오, 유익한 신이여' 주제에 의한 감상적인 즉흥곡〉 등은 40대 후반의 완숙한 시기의 작품으로서, 뛰어난 실력을 요구하는 명인기와 화려한 장식으로 음악을 경쾌하고 돋보이게 한다. 이들보다 10년 정도 앞선 〈우아한 여인 혹은 화려한 론도〉는 이러한 체르니의 청명한 고음 선율의 원류를 보여주지만, 50대 중반의 〈베토벤 환상곡〉은 그 이름처럼 중후하고 남다른 진지함을 들려준다.



TOCC0311 [세계 최초 녹음 포함] 에른스트 작품 전곡 6집

셰르반 루프(바이올린), 이본 레드먼(소프라노), 이언 홉슨(피아노)

에른스트의 가장 어려운 바이올린 곡과 아름답고 서정적인 피아노곡하인리히 빌헬름 에른스트는 19세기에 높은 명성을 떨친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요아힘은 '내가 들어본 중에 가장 뛰어난바이올리니스트'라고 평했다. 작곡가로서 그가 남긴 바이올린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가장 어려운 작품들에 속한다. 이 음반은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바이올린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대광시곡)은 슈베르트의 유명한 가곡인 '마왕'을 하나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해내며, (여섯 개의 다성부 연습곡)은 하나의 바이올린으로 합창을 만든다. (춤추고 싶게 하지 않는 세 개의 왈츠)라는 역설적인 제목의 피아노곡과 〈두 개의 괴테 가곡〉의 아름답고 서정적인선율은 에른스트의 숨겨져 있던 감수성을 들려준다.



TOCC0454

타르티니: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25~3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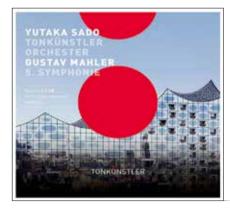
피터 셰퍼드 스캐르베드(바이올린)

#### 바로크를 아우르고 낭만을 예견하는 타르티니 만년의 걸작

후기 바로크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주세페 타르티니는 말년에 이르러 총 30곡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들을 작곡했다. 전곡을 연주하는 데 6시간이나 걸리는 이 대작은 타르티니의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이탈리아 바이올린 음악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음반은 그 중 마지막 25~30번의 여섯 곡을 수록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텔레만을 연상시키는 풍부한 악상부터 파가니니를 예견하는 뛰어난 기교까지 대단히 폭넓은스펙트럼을 아우르고 있으며, 춤곡 리듬에서는 민속음악의 영향도 엿보인다.

Tonkunstler

www.tonkuenstler.at/de



TONKUNSTLER

TON2008

#### 말러: 교향곡 5번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 사도 유타카(지휘)

# 명확한 음색과 완벽한 조화로 일군 진정한 '톤퀸스틀러'의 사운드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는 빈의 가장 중요한 콘서트홀인 '무지크페라인 빈'의 상주 관현악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도 유타카는 2015—16 시즌부터 이 관현악단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으며, 톤퀸스틀러를 유럽의 가장 중요한 관현악단 중하나로 올려놓았다. 이 앨범은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에서 열린 2019년 3월 공연 실황으로, 실내악을 관현악으로 확장시킨 듯한 말러의 스타일을 훌륭히 포착해낸다. 각 악기의 음색이 명확하면서도 극적인 표현에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톤퀸스틀러'(소리예술가)의 사운드를 들려준다.

# Winer Symphoniker

www.wienersymphoniker.at



WS020 [2CD for 1.5]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렐리오 시릴 뒤부이(테너) 외.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리프 조르당(지휘)

노 작 '환상 교향곡'은 '렐리오, 혹은 삶에의 복귀'와 함께 묶여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실 이는 작곡가 자신이 의도한 바였다. 베를리오즈는 '환상 교향곡'이 초연된 이듬해에 '렐리오'를 썼으며 둘을 묶어 '어느 예술가의 삶의 에피소드'라 불렀다. 전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절망에서, 후자는 이를 예술로서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지휘자 아르맹 조르당의 이들이기도 한 필리프 조르당은 두 곡 모두에서 말쑥하고 경쾌한 해석을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현의 템포와 셈여림을 탄력적으로 운용해독특한 리듬감을 창출해냈다.



WS013

베토벤: 교향곡 1번, 3번 '영웅'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르프 조르당(지휘)

#### 빈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진정한 베토벤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빈 콘체트르하우스의 상주 오케스트라로, 음악의 도시 빈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중 하나이다. 오늘날 이 약단의 명성은 역대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는 스위스 출신의 명지휘자 필리프 조르당의 눈부신 활약 덕택이다. 클래식의 기본 레퍼토리인 베토벤의 교향곡을 수록하고 있는 이 음반은 이 약단의 빛나는 현재를 확인시켜주는 명반이다. 선명한 음색과 우아한 멜로디라인은 유럽 정상의 사운드이며, 부족함이 없는 극적 표현은 안정적이다. 개성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정한 베토벤을 되찾아준 조르당의 연주에 길채를 보낸다.

68 아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69

# '마중물' 시인 임의진 & '이등병의 편지' 김현성의 콜라보 [심야 버스] CD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김현성은 11곡의 순정한 노래를 들려준다. 오래된 미래 시골에 머물고, 낯선 타지를 방랑하고, 달동네 산비탈을 오르기도 한다. 포크 음악의 심장은 노랫말과 멜로디. 두 장인의 만남은 '남다른 우정과 평화'를 들려준다. 밤새 달려온 심야버스처럼 고된 삶일지라도 창을 두드리는 새벽은 밝아온다. 여기 위로의 시편들. 한곡도 허투루 듣지 마시길. 보란 듯 포엠송의 진수로 꽉 차있다.



[심야버스] AMC2-174 [CD]

#### 「수로고

# 임의진 시가집(임의진 작사/ 김현성 작곡, 노래)

- 01.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 김현성 노래
- 02. 여리디 여린 / 김현성 노래
- 03. 여행자의 로망 / 백희정 노래
- 04. 마중물 / 김현성 노래
- 05. 포도밭에는 포도주가 있고 / 김현성 노래
- 06. 담양 별빛 / 김현성 노래
- 07. 캐럴, 엄마 없는 별에서 / 김현성 노래
- 08. 낙골 동네의 노래 / 김현성 노래
- 09. 우리말 달이름 / 김현성 + 레밴드 노래
- 10. 어디서 왔는가 꽃이여 / 김현성 노래
- 11. (Bonus) 솔베이지의 노래 / 김현성 노래

# Late Night Bus

# -Korea pastoral poet. Lim Eu Jin(Imagine) Poem song

- 01. Eat, pray, and love / Kim hyun sung
- 02. Delicate, fragile / Kim hyun sung
- 03. Romance of the traveller / Baek hee jung
- 04. Majoong-mul (pump priming water) / Kim hyun sung
- 05. Oh, there is wine in the vineyard / Kim hyun sung
- 06. Damyang city starlight / Kim hyun sung
- 07. Carol, on a planet without mother / Kim hyun sung
- 08. Song of Nakgol village / Kim hyun sung
- 09. Our name for the moon / Kim hyun sung & Re Band
- 10. Flowers! Where are you from? / Kim hyun sung
- 11. Solveig's song / Kim hyun sung

#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20449 [DVD]
Accentus ACC10449 [Blu-ray]



# 2018 취리히오페라하우스 실황 - 크리스티안 슈푹 '호두까기 인형과 대왕쥐'

크리스티안 슈푹(안무·총감독), 취리히 발레단, 주니어 발레단, 파울 컨넬리(지휘), 필하모 니아 취리히

## 순수보단 껄렁껄렁한 호두까기인형의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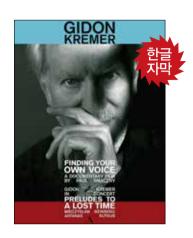
2012/13시즌부터 취리히발레단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크리스티안 슈푹(1969~)이 치콥스키와 프티파 원작의 음악과 흐름을 살리면서도 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롭게 내놓은 작품 실황물(2018.4, 취리히오페라하우스)이다. 슈푹의 연출은 원작 줄거리보단 캐릭터를 하나하나 섬세히 깎아, 일종의 인형놀이를 보는 듯하다. 스케이트보드를 탄 광대, 카바레에서 마술쇼를 하는 드로셀마이어, 반도네온에 의해 멜랑콜릭하게 연주되는 차이콥스키의 선율들 등 안무가 특유의 유머감각과 장난끼도 살아 있다. 두툼한 해설지(44쪽/독·영·불어)에 원작에 접근하는 슈푹만의 독특한 해석을 알 수 있는 인터뷰, 슈푹이 쓴 작품 노트가 수록되어 있다. 슈푹의 대표작 '안나 카레니나'는 취리히 초연 이후 국립발레단에 의해 국내에 오르기도 했다.

#### [보조자료]

- 차이콥스키(1840~1893)의 '호두까기인형'은 1892년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줄 거리는 독일 작가 E.T.A.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와 대왕쥐'(1819)를 대본으로 한 것. 클라 라가 크리스마스에 호두까기인형을 선물로 받고, 그 인형이 꿈속에서 쥐의 대군을 퇴치하고 아름다운 왕자로 변하여 클라라를 과자의 나라로 안내한다는 환상적인 이야기다. 마리 우스 프리파와 레프 이바노프의 공동안무로 태어나 초연된 이 작품은 이후 존 그랑코, 존 노이마이어, 롤랑 프티, 조지 발란신 등 전설적인 안무가들에 의해 수많은 버전이 나왔다.

- 이 프로덕션은 취리히발레단의 예술감독 크리스티안 슈푹이 원작의 음악과 흐름을 살 리면서도 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롭게 내놓은 작품으로, '호두까기와 대왕쥐'라는 호 프만의 원작명의 살려 내놓은 것이다. 영상물은 2018년 4월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실황이 다.

- 고전적인 안무작들과 달리, 유머감각과 장난끼가 살아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지고뉴와 광대'에서 광대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등장하고, 드로셀마이어의 마법의 공간은 카바레 같은 공간으로 그려진다. 오케스트라만이 도맡았던 차이콥스키 선율이 반도네온에 의해 멜랑콜릭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 크리스티안 슈푹(1969∼)은 슈투트가르트의 명문인 존 크랑코무용원에서 발레 교육을 받았으며, 얀 라우어스가 이끄는 니드컴퍼니와 안나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의 '로사' 앙상블에서 본격적인 예술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1995년에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했으며 2001년엔 상임안무가로 위촉되어 여러 대표작들을 남겼다.
- 2012/13시즌부터 취리히발레단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으며, 대표작 중 하나인 '안나 카레니나'는 취리히 초연 이후 한국 국립발레단에 의해 오르기도 했다. 최근 오페라나 음악극에서도 명성의 문제작을 생산하고 있는 그는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팔스타프' '파우스트의 겁벌'을 선보이기도 했다.
- 악상투스(accentus) 레이블에서 발매하는 취리히오페라하우스 프로덕션 영상물들은 훌륭한 해설지를 자랑하여 작품 이해를 십분 돕는다. 해설지(44쪽/독·영·불어)에 트랙,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에 접근하는 슈푹의 해석과 시각을 읽을 수 있는 심도 있는 인터뷰, 슈푹이 직접 쓴 작품 노트가 수록되어 있다.



Accentus ACC20414 [DVD]

## 다큐멘터리 & 2017 연주영상 '기돈 크레머-자신만의 목소리 찾기'

기돈 크레머(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유롭스키(지휘), 카메라타 발티카 외

#### 그의 연주를 닮은. 크레머의 섬세하고 위대한 어록

DVD는 ①다큐멘터리 '기돈 크레머-자신만의 목소리 찾기'(57:19) ②바인베르크 (1919~1996)의 '24개의 전주곡'(바이올린 편곡 버전) 연주실황(50:40)으로 구성됐다(2017년 11월 모스크바 고골센터). 리투아니아 사진작가 수트커스의 흑백사진들이 무대에 영사되어 음악적 서사력을 부각시킨다. 1년 동안 파리 · 모스크바 · 도쿄 등에서 크레머와 함께한 폴 스매치니(PD)의 영상 속에서 크레머(1947~)는 음악에 대한 사유를 쏟아내는 철학자이자, 딸과의 데이트를 즐기는 딸바보이기도 하다. 해설지(45쪽 분량/독 · 영 · 불어)에 공연에 사용된 사진들이 수록되었고, 크레머의 글('잃어버린 시간를 위한 전주곡')도 만나볼수 있다.

## [보조자료]

- 기돈 크레머(1947∼)의 예술철학을 만날 수 있는 다큐멘터리이자 연주 영상물이다. 그의 모습은 음악가보다는 철학과 믿음을 전파하는 성자처럼 다가온다.
- 크레머에게 예술은 도덕적 의무인 동시에 사명이다. 그런 그는 음악의 깊이, 아름다움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다큐멘터리 '기돈 크레머-자신만의 목소리 찾기'는 음악을 매개로 그러한 진실을 찾아온 크레머의 사유와 조용한 발걸음을 담고 있는 영상 인터뷰집과도 같다.
- 이를 제작하기 위해 1년 동안 크레머와 함께 움직인 영상프로듀서 폴 스매치니는 파리·모스크바·도쿄 등 그가 있는 도시와 환경 속에서 음악을 고민하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영상 속에 그려 넣는다.
- 크레머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오늘날의 그를 형성한 영향력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최고의 해석과 철학을 음악을 통해 관객들이 느끼게끔 크레머는 시적인 대화와 강렬한 표현을 통해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다. 더불어 파리에서 사진작가인 딸의 카메라 앞에 서서 딸이 시키는 대로 모든 표정과 움직임을 표하는 크레머의 모습에선 '인간 크레머'는 물론 '딸바보 크레머'의 모습도 느껴져, 보는 이를 웃음 짓게 만든다.
- DVD는 ①다큐멘터리 '기돈 크레머─자신만의 목소리 찾기'(57:19) ②바인베르크 '24개의 전주곡'(바이올린 편곡 버전) 연주실황(50:40)으로 구성되었다. '24개의 전주곡'은 원래 러시아의 작곡가 미치슬라프 바인베르크(1919~1996)가 첼로 독주를 위해 작곡한 곡. 크레머는 이를 바이올린 독주로 편곡한 버전을 연주한다. 2017년 11월, 모스크바 고골 센터 공연 실황이다.
- 크레머가 연주하는 동안 리투아니아 사진작가 아나스타샤 수트커스의 흑백사진들이 무대에 영상되어 음악적 서사력을 부각시킨다. 전주 곡 21번에는 쇼스타코비치 첼로협주곡의 메인 테마도 흘러나오는 흥미로운 곡이다.
- 해설지(45쪽 분량/독·영·불어)에는 공연에 사용되었던 흑백사진들이 수록되었고, 크레머의 글('잃어버린 시간를 위한 전주곡')도 만날수 있다. 베레나 모글이 쓴 크레머론에는 그의 직업이 '바이올리니스트' 외에 '명상가'로도 적혀 있다.
- 다큐멘터리와 연주 영상을 보면 모글의 표현이 딱 맞다는 느낌이 드는 크레머의 철학노트 같은 영상물이다.

##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157 [DVD]
BelAir BAC457 [Blu-ray]



# 2016 취리히오페라 실황 - 드뷔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알란 알틴글루(지휘), 필하모니아 취리히, 자크 임브랄로(펠리아스), 코린 윈터스(멜리장드), 카일 케텔젠(골로), 브린들리 쉐라트(아르켈),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

## '쎈' 연출가는 '쎈' 오페라를 낳는다

2016년 5월, 취리히 오페라극장 실황의 이 작품은 '드뷔시'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연출가 '체르니아코프(1970~)'의 작품 같을 정도로 연출의 매력이 돋보인다. 역사적 배경을 과감히 지우고 오늘날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듯한 치정극으로 풀어놓아 동시대적 감각을 과감히 취득했다. 해설지(31쪽/영ㆍ불ㆍ독어)에 수록된 연출가 인터뷰는 프로덕션 이해의 키노트가 된다. 이 작품은 골로(베이스바리톤 카일 케텔젠)와 멜리장드(소프라노 코린 윈터스), 이들 사이에 끼어든 골로의 이복동생 펠리아스(바리톤 자크 임브랄로)의 이야기다. 세 사람은 이 치정극에 숨 쉬는 어두운 드라마를 뜨겁게 연기하면서도 음악적 완성도를 한껏 높인다. 카메라는 그들을 쉴새없이 줌—아웃하며 한편의 오페라를, 한편의 예술영화로 만든다. 강하고 자극적인, 이른바 '쎈' 연출에 취하고 싶은 이들에게 적극 추천.

## [보조자료]

-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는 드뷔시의 유일한 오페라이다. 메테를링크의 상징주의 무대극에 기초한 이 5막의 오페라는 드뷔시가 10년 이라는 긴 세월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이다
- 골로(베이스바리톤 카일 케텔젠)와 멜리장드(소프라노 코린 윈터스), 이들 사이에 끼어 든 골로의 이복동생 펠리아스(바리톤 자크 임브랄로). 이들의 애증과 비극을 담은 이 작품은 신비하고 상징적인 분위기인만큼 몽환적이고 탐미로운 드뷔시의 어법으로 가득하다.
- 하지만 이 영상물(2016년 5월 실황)은 드뷔시의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라기보다는 연출가 트미트리 체르니아코프(1970∼)의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연출가의 힘과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 체르니아코프는 마치 미니멀리즘의 명장이 만든 깔끔한 디자인의 가구 몇 점을 놓은 무대로 작품이 지닌 신비적이고 중세적인 분위기를 지워버린다. 그런 무대는 휑하다 못해 썰렁하다. 하지만 그 위에 오르는 캐릭터들을, 그는 늘 광적으로 몰아가 뜨겁다 못해 불타 사라질 것은 같은 온도로 달구어버린다. 전작 '맥베스'(2009, BelAir), '돈 지오반니'(2010, BelAir), '룰루'(2015, BelAir)도 그러했다. 그리고 모든 프로 덕션이 그러했던 것처럼 역사적 배경과 시기를 지우고 현대적인 의상과 배경으로 설정하여 동시대적 공감을 십분 끌어낸다. 따라서 신화나 옛이야기의 오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린다.
- 동봉된 해설지(31쪽/영·불·독어)에는 트랙, 작품 소개, 체르니아코프의 깊이 있는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어, 프로덕션 이해의 키노트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연출가의 감각을 받쳐주는 것은 당연 성악가들이다. 자크 임브랄로(펠리아스)와 코린 윈터스(멜리장드), 카일 케텔젠(골로)은 치정 극에 숨 쉬는 어두운 드라마를 뜨겁게 연기해냄과 동시에 드뷔시 음악의 완성도를 한없이 높인다. 카메라는 이러한 인물들의 감정 변화를 세밀히 따라가며 얼굴과 표정에 집중한다.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하다.



BelAir BAC169 [DVD]
BelAir BAC469 [Blu-ray]

# 2018 베로나 페스티벌 실황 –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다니엘 오렌(지휘), 아레나 디 베로나 오케스트라 · 합창단 · 발레단, 레오 누치(피가로), 니노 마차이츠(로지나), 드미트리 코차크(알마비바), 카를로 리포어(바르톨로), 레루치오 푸를라네토(바실리오), 후고 데 아나(연출)

### 베로나로 떠나고 싶은 이유

2017년 '나부코'를 선보인 베로나 페스티벌의 2018년 무대는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이다(8월 실황). 베로나의 매력은 브레겐츠 페스티벌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화려한 미장센이다. 이번 무대 역시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바리톤 레오 누치의 피가로 역도 화제였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숲 속 기괴한 난장이들이 펼치는 '세비야의 이발사'라 생각하게 만드는 무대도 화제를 낳았다. 오페라극장의 한정된 공간이 아닌 경기장 무대를 드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잡히는 공간과 카메라 쇼트 역시 다양하다. 어둠이 내려앉은 관객석과 대비되는 무대의 화려함, 그리고 마지막 불꽃놀이가 환상적이다. 해설지(35쪽 분량/영ㆍ불ㆍ독ㆍ이탈리아어)에는 연출가 인터뷰,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 [보조자료]

- 영상이 시작되면 베로나 아레나의 관객들이 자리를 잡는 광경이 펼쳐진다.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도 기다리는 외중에도 경기장의 외관을 사진으로 담아가기에 바쁘다. 개막공연에서 관객들이 촛불을 켜서 축하하는 것도 베로나 페스티벌만의 묘미다.
- 1913년에 시작된 베로나 페스티벌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원형경기장을 무대로 하는 세계적인 오페라페스티벌이다. 이 영상물은 2018년 8월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실황이다.
- 조아키노 로시니(1792~1868)의 '세비야의 이발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극 오페라 1순위이다. 초연은 1816년 로마. 로지나와 사랑에 빠진 알마비바 백작이 솜씨 좋은 이발사 피가로의 도움을 받아. 로지나와 결혼하려는 박사를 골탕 먹인다는 이야기다.
- 베로나 페스티벌의 매력은 '오페라 듣기'보다 '보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브레겐츠 페스티벌처럼 초대형 무대에서만 가능한 화려한 미장 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7년 '나부코'가 그랬던 것처럼, '세비야의 이발사' 역시 초대형건물과 세트가 무대를 장악했다. 대형 꽃과 숲의 미로 같은 세트가 인상적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인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거대한 세트로 인해 숲 속 기괴한 난장이들이 펼치는 '세비 야의 이발사'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다. 연출가 후고 데 아나는 아르헨티나 태생으로 성악가들의 동선은 물론 세트 및 의상 디자이너까지 도말는 것으로 유명하다.
- 수많은 카메라가 가동되어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일반 오페라극장의 한정된 공간이 아닌 원형 경기장의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잡히는 공간과 카메라 쇼트 역시 다양하다.
- 시간이 흐를수록 백야의 베로나가 어둠에 잠기며 화려한 매력을 뿜어낸다. 어둠이 내려 앉은 관객석과 대비되는 무대의 화려함, 그리고 마지막 불꽃놀이가 환상적이다. 이번 여름 휴가로 베로나행을 생각해보게 한다. 해설지(35쪽 분량/영·불·독·이탈리아어)에는 연출가 인터뷰,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BelAir BAC172 [DVD] BelAir BAC472 [Blu-ray]

## 2018 파리 국립극장 - 오하드 나하린 '사데21'

오하드 나하린(안무), 바체바-더 영 앙상블

## 어느 순간, 예술영화가 되어버린 현대무용

1990년, 나하린(1952~)은 1964년 이스라엘 탈아비브에서 설립된 바체바 댄스 컴퍼니의 예술감독으로 활약 중이다. 벨에어 레이블의 '오하드 나하린의 예술'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물로 나하린의 대표작인 '사데21'을 담고 있다. 'sadeh'란 히디어로 '신체상의' '몸의' '형체가 있는' 뜻. 공연은 2018년 10월 파리 국립극장 실황이다. 나하린이 2011년 발주시킨 '바체바-더 영 앙상블'과 함께 한 이 공연은 나하린이 기존 작품에서 보여준 파격보다 드라마와 서사가 살아 있다. 소품도 등장하지 않은 채, 밝은 단색의 무대에는 제목처럼 오직 '몸'과 그 움직임만이 있다. 각 자가 입은 다종다양한 색상의 의상은 단색의 무대를 수놓는 그 풍경에선 어떤 아름다움이 느껴지며, 촬영도 와이드샷으로 진행되어 한편의 예술영화를 보는 듯하다.

### [보조자료]

- 오하드 나하린(1952~)은 무용수로서는 늦은 나이인 22살에 처음 무용에 입문하였다. 남보다 훨씬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의 눈부신 예술적 역량은 이내 드러나며 마사 그레이엄무용단과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의 스타 무용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안무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그는 오하드 나하린 댄스 컴퍼니를 창단하며 데뷔한 초기부터 공연예술각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NDT)의 이르지 킬리안은 그의 대담한 안무 스케일과 신체표현법에 매료되어 NDT를 위한 다수의 작품을 위촉하기도 했다.
- 1990년, 나하린의 무용인생은 1964년 이스라엘 탈아비브에서 설립된 바체바 댄스 컴퍼니의 예술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 벨에어 레이블은 일종의 '오하린 컬렉션'을 발주하여 '오하드 나하린의 예술'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영상물에는 바체바 댄스 컴퍼니와 함께 한 '나하린의 바이러스'가 수 록되었다.
- 본 영상물은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물로 나하린의 대표작인 '사데건'을 담고 있다. 'sadeh'란 히디어로 '신체상의' '몸의' '형체가 있는' 뜻. 공연은 2018년 10월 파리 국립극장 실황이다. 이 영상물이 더욱 의미 이는 이유는 '바체바-더 영 앙상불'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 이 단체는 2011년 바체바 댄스 컴퍼니의 젊은 단원들과 함께 발주시킨 서브 단체이다. 나하린은 젊은 댄서들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걸 맞는 무대를 제공하고자 자신의 경력과 실력을 총동원하여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 약 75분 동안 펼쳐지는 '사데21'은 나하린이 기존 작품에서 보여준 파격보다 드라마틱하며 서사적이다. 단 하나의 소품도 등장하지 않은 채, 밝은 단색의 무대에는 제목처럼 오직 '몸'과 그 움직임만이 있다. 각 자가 입은 다종다양한 색상의 의상은 단색의 무대를 수놓는데, 그 움직임은 화려함보다는 개인의 주체성이 살아 있는 실존의 몸짓이다.
- 촬영도 와이드샷으로 진행되어 한편의 예술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이 영상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일 것이다.

# New Releases | DVD & Blu-ray Disc

#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801608 [DVD] C Major 801704 [Blu-ray]



# 2018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살로메'

프란츠 벨저-뫼스트(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스믹 그리고리안(살로메), 존 다삭(헤롯), 가보르 브레츠(요하난/세례 요한), 안나 마리아 치우리(헤로디아), 로메오 카스텔루치(연출)

## 피 한 방울 없이, 더욱더 잔인해진 살로메

'문제적 연출가'로 유럽 오페라극장을 흔들고 있는 카스텔루치의 기발한 표현력과, 관객에 게 충격을 자아내는 작품 속의 그로테스크함이 서로 악수를 한 프로덕션이다. 무대는 단순하고 단출하지만, 원작 특유의 잔인함은 그 끝을 향한다. 새 얼굴의 소프라노가 그리웠다면 타이틀롤의 아스믹 스리고리안에 주목할 것. 1981년 리투아니아 태생의 소프라노로 '파이낸셜 타임즈'로부터 "모든 살로메를 뛰어넘는 새로운 살로메를 보여주었다"라는 평을 받았다. 프란츠 뵐저—뫼스트의 지휘 역시 '노이에 취리허 자이퉁'으로부터 "숨이 멎을 듯 밀집되고 획기적인 음악을 뿜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해설지(17쪽 분량/영ㆍ불ㆍ독어)에 작품 해설, 시놉시스, 출연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보조자료]

- 1905년에 초연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 $\sim$ 1949)의 오페라 '살로메'는 오스카 와일드의 동명 희곡을 기본으로, 헤트비히 라흐만이 대본을 쓴 작품이다.
- 영상물은 2018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을 담고 있다. 해설지(17쪽 분량/영  $\cdot$  불  $\cdot$  독 어)에 작품 해설, 시놉시스, 출연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문제적 연출가'로 유럽 오페라극장의 전통을 뒤흔들고 있는 로메오 카스텔루치의 기발한 표현력과, 초연 당시 관객에게 충격을 자아낸 작품 내의 그로테스크함이 서로 악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대는 단순하고 단출하지만, 원작 특유의 잔인함은 그 끝을 향한다.
- 대신 카스텔루치는 선혈이 낭자한 무대 대신 모던하고 현대적인 상징물들을 통해 그로 테스크함을 자아낸다. 유명한 '일곱 베일의 춤'은 묀히스베르크 바위를 깎아 만든 펠젠라 이트슐레 극장의 배경을 활용하여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 새 얼굴의 소프라노가 그리웠다면 타이틀롤의 아스믹 스리고리안에 주목할 것. 1981년 리투아니아 태생의 소프라노로 '파이낸셜 타임즈' 로부터 "모든 살로메를 뛰어넘는 새로운 살로메를 보여주었다"라는 평을 받았다. 프란츠 뵐저-뫼스트의 지휘 역시 '노이에 취리허 자이퉁' 으로부터 "숨이 멎을 듯 밀집되고 획기적인 음악을 뿜어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 유대의 왕 헤롯(존 다삭)의 생일 축하면 자리에서 그의 의붓딸 살로메(아스믹 그리고리안)는 이름다움으로 모두를 매혹시킨다. 감옥에 간혀 있던 예언자 요하난의 목소리에 매력을 느낀 살로메는 그를 감옥에서 꺼내도록 명령한다. 남편을 살해하고 왕위를 빼앗아 시동생 헤롯과 재혼한 어머니 헤로디어(안나 마리아 치우리)와 왕의 부정함을 통렬히 꾸짖는 요하난(세례 요한/가보르 브레츠)에게 반해버린 살로메는 그에게 구애하지만 거부당한다. 그러던 중 헤롯이 살로메에게 춤을 추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살로메는 '일곱베일의 춤'으로 헤롯을 크게 만족시킨다. 이에 살로메는 요하난의 머리를 요구하고 망설이던 헤롯은 결국 약속대로 그 청을 들어주게 된다.



C Major 801408 **[2DVDs]** C Major 801504 **[Blu-ray]** 

# 2018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 - 차이콥스키 '스페이드의 여왕'

마리스 얀손스(지휘), 빈 필하모닉 ·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 브랜던 요바노비치(헤르만), 에 브게니아 무라베바(리자), 이고르 골로바텐코(옐레츠키), 한나 슈바르츠(스페이드의 여왕), 한스 노이앤펠스(연출), 크리스티안 슈미트(디자인)

## 얀손스, 잘츠부르크를 넘어 세기의 명연을 남기다

오페라 지휘를 잘 맡지 않는 안손스가 실연으로는 접하기 힘든 차이콥스키 1890년작 '스페이드의 여왕'을 맡아 2018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연일 시선을 모은 작품이다(2019년 6월 공식출시). 간결한 미니멀리즘을 채택하면서도 궁중 귀족문화의 문법과 관습이 느껴지는 무대, 테너 요바노비치(헤르만)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 무라베바(리자)의 투명하고도 풍부한 음색, 75세 고령의 소프라노 한나 슈바르츠가 맡은 백작부인역(스페이드의 여왕)등 매력점이 너무나도 많다. 트랙도 2~8분 총 56트랙으로 잘게 나눠져 있어 명장면과아리아 감상에도 수월하다.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불어 넣은 작품(뉴욕타임즈)", "매혹적이면서도 민감한 감동을 이끌어낸 수작(쥐트도이체 차이통)냈다"이라는 호평이 얀손스를향해 쏟아졌다.

## [보조자료]

- 1996년 4월, 마리슨 얀손스는 오슬로 오페라에서 '라 보엠' 지휘 도중 갑작스레 찾아온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오페라와의 이런 연유에서 였는지 얀손스를 이후 오페라의 지휘봉을 잘 잡지 않았다. 2018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앞두고 화제는 얀손스가 지휘를 맡은 차이콥스키오페라 '스페이드 여왕'로 쏠렸다.
- 안손스의 팬들이 학수고대하던 영상물이 2019년 6월, 드디어 공식 출시되었다. 영상물의 트랙분배도 2∼8분으로 잘게 나눠져 총 56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과 아리아 감상도 수월하게 해 놓았다.
- 1890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명성은 높지만 차이콥스키의 마스터피스 중 실연으로는 접하기 힘든 작품이다. 젊은 장교 헤르만(브랜던 요바노비치)은 아름다운 귀족 아가씨 리자(에브게니아 무라베바)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그녀는 왕족인 엘레츠키 공(이고르 골로바텐코)과 약혼한 상태. 헤르만은 리자의 할머니 백작부인(한나 슈바르츠)이 '스페이드의 여왕'이라고 불리며 어떤 카드 게임이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집착한다. 리자도 헤르만에게 마음을 주지만, 헤르만은 카드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백작부인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그를 이끈다.
- 연출(한스 노이앤펠스)과 디자인(크리스티안 슈미트)은 간결한 미니멀리즘으로 구현한 무대이다. 그러면서도 당시 궁중 귀족문화의 문법과 관습은 세밀하게 느껴진다. '뉴욕 타임즈'는 77세의 거장 연출가 한스 노이앤펠스를 "여전히 주목해야 할 감독으로, 스스로를 증명했따"고 평했다.
- 호소력 있는 테너 브랜던 요바노비치의 목소리는 헤르만의 고뇌와 열정, 그리고 마지막에 무너져 내리는 비극을 잘 표현했고, 리자역의 예브게니아 무라베바는 투명하면서도 풍부한 음색으로 주옥같은 아리아를 소화해낸다. 공연이 오른 2018년에 75세이던 고령의 한나 슈바르츠가 백작부인역(스페이드의 여왕)을 맡아 윤택하고 절제된 표현력으로 스토리의 무게감을 잡아준다.
- 1910년에 시작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도 잊을 수 없는 명연으로 남았다. '뉴욕타임즈'는 얀손스의 지휘에 대해 "차이콥스키의 작품 중 소홀히 여겨지는 오페라에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불어 넣었다"라고, '쥐트도이체 차이통'은 "매혹적이면서도 민감한 감동을 이끌어냈다"고 평했다.



C Major 751408 [DVD]
C Major 751504 [Blu-ray]

## 2018 브레겐츠 실황

## - 골드슈미트 오페라 '베아트리체 첸치'(세계최초 영상레코딩)

요하네스 드뷔스(지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갈 제임스(베아트리체), 크리스토프 폴(첸치), 드샤밀야 카이저(루크레치아), 요하네스 에라스(연출)

### 더욱더 잔혹하게. 하지만 화려하게

브레겐츠 페스티벌 실내공연장에 오른 골드슈미트(1903~1996)의 오페라 '베아트리체 첸치' 2018년 실황이다. 브레겐츠의 야외수상무대와 달리 실내공연장은 현대오페라로 실험의 정신을 이어가는 곳이다. 1949년에 세상에 나왔지만, 정식 초연은 1994년. 이 영상물도 '세계 최초 영상 레코딩'이라는 레테르를 달고 있다. 잔혹하고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첸치 백작으로 인해 고통 받는 딸 베아트리체는 오르시노 신부와 공모하여 아버지를 암살하려 하지만, 결국 그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한다는 내용이다. 벨칸토 형식으로 작곡되어 20세기보다는 19세기 낭만주의에 가까운 음악이다. 하지만 무대 미장센은 그로테스크, 그 자체다. 광기에 휩싸인 베아트리체의 모습에서 영화 '사탄의 인형'의 캐릭터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 [보조자료]

- 오페라 '베아트리체 첸치'는 베르톨드 골드슈미트(1903~1996)의 두번째 오페라이다. 말 러의 미완작인 교향곡 10번을 데릭 쿡이 완성했을 때, 이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함 께 초연한 지휘자로도 유명하다.
- 이 영상물은 브레겐츠 페스티벌 실내공연장에서 선보인 2018년 실황이다. 브레겐츠의 시그니처인 야외수상무대가 널리 알려진 작품을 올리는 곳이라면, 그 속의 실내공연장에는 20세기 오페라를 선보여 실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최초 비디오 레코딩'으로, 화려한 미장센과 고화질의 영상물로 20세기 현대오페라 중 명작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해설지(13쪽 분량/영·불·독어)에는 작품 해설, 시놉시스가 수록되었다.
- '베아트리체 첸치'는 1949년에 영국예술위원회이 주관한 경연대회(Festival of Britain)에서 우수작 중 하나로 선정된 작품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공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88년에 비로소 런던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되었다. 정식오페라로서의 초연은 1994년, 마그데부르크에서였다.
- '베아트리체 첸치'는 현대적 벨칸토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골드슈미트의 첫번째 오페라인 '큰 소리치는 간부의 서방'에 비해 보다 음악적으로 풍성하고 로맨틱하다.
- 베아트리체(갈 제임스)는 잔혹하고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첸치 백작(크리스토프 폴)의 딸이다. 베아트리체의 삶은 그러한 아버지로 인해 괴로울 뿐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것이라 희망을 갖고 산다. 그래서 가족의 오랜 친구인 오르시노 신부(미셸로렌즈)에게 결혼 승인을 얻어내고자 한다. 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자 오르시노 신부가 첸치 백작을 살해하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오히려 베아트리체와 새어머니인 루크레치아(드샤밀야 카이저)가 범인으로 지목되고 두 여인은 처형된다.
- 무대와 화면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캐릭터를 모아 만든 색다른 미장센이다. 연출가 요하네스 에라스는 미쳐가는 베아트리체를 광기의 여인으로 그려나간다. 영화 '사탄의 인형' 속 캐릭터가 떠오르는 분장이다. 갈 제임스의 심취한듯한 광기의 연기와 노래가 음악에 숨어 있는 날카로운 사운드를 더욱더 예리하게 만든다. 딸과 대립선을 긋는 첸치는 둘도 없는 광인이자 폭군이다. 이 역시 크리스토프 폴이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다.



C Major/ Unitel Edition 801808 [DVD] C Major 801904 [Blu-ray]

# 2018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 로시니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장-크리스토프 스피노지(지휘), 앙상블 마테우스, 체칠리아 바르톨리(이사벨라), 일다르 아 브드라자코프(무스타파), 에드가르도 로치(린도르), 모셰 라이저 · 파트리샤 코리(공동연출)

## 잘츠부르크를 빚낸 바르톨리의 코믹 오페라 잘츠부르크가 선택, 알제리에서 벌어진 로시니표 코미디!

2018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로시니(1792~1868)의 초기작인 이 작품으로 로시니(1792~1868) 타계 150주년을 기념했다. 연출가 듀오 라이저와 코리는 19세기 초에 유럽인 이 중동을 바라보는 문화적 선입견이 강한 이 작품을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독특한 무대로 극찬을 받았다. 아내에게 질린 무스타파는 알제리에서 전자제품을 밀수입하는 이로 묘사되고, 무스타파가 반한 이사벨라는 그런 무스타파를 이용해 자신의 애인 린도르를 찾아떠난다. 바르톨리의 풍성한 음색, 로차의 투명한 고음은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며, 아브드라자코프와 크르벨리의 음흉하면서도 엉뚱한 색채는 연극적 완성도를 높인다. 스피노지의지휘는 "신비롭고 묘한 매력이 있는 공연(뉴욕 타임즈)"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우리의 귀를 즐겁고 황홀하게 한다. 해설지(건쪽 분량/영ㆍ독ㆍ불어)에 프로덕션의 의미, 시놉시스,하이라이트 화보 등 수록.

## [보조자료]

- 세계 최대의 음악축제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오페라와 콘서트, 연극 등 명실공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페스티벌로 평가 받는다. 2020년이면 100주년을 맞는 이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프로덕션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전통과 명성에 맞는 축제의 장을 완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 '알제리의 이탈리아 연인'는 조아키노 로시니(1792~1868)의 초기작으로, 오페라 부파(희극 오페라)에 해당된다. 2018년 잘츠부르크 페스 티벌는 이 작품을 메인공연으로 올리며 로시니(1792~1868) 타계 150주년을 기념하기도 했다.
- 영국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연출가 듀오 모셰 라이저와 파트리샤 코리가 감독을 맡아 화제가 되었다. 파격적인 무대로 유명한 연출가 듀오는 19세기 초 당시에 만연했던 문화적 선입견을 반영한 내용에 현대적 해석을 가미하여 문화 감수성을 살린 영리한 연출로 극찬을 받았다. '잘츠부르크의 알제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시대 알제리의 도시문화와 도회적 감수성을 무대에 펼쳐놓고 그 위에 로시니의 음악적 옷을 입힌 듯하다. 알제리에서 전자 제품을 밀수입하는 갱스터 무스타파(일다르 아브드라자코프)는 아내 엘비라(레베카 올베라)에게 싫증이 나자 그녀를 버린다. 그러곤 이탈리아 여인과의 사랑을 이루고자 한다. 때마침 연인 린도르(에드가르도 로차)를 찾아 이탈리아에서 여행 온 이사벨라(체칠리아 바르톨리)가 타고 온 배가 난파된다. 그녀가 잠시 알제리에 머무는 동안 그녀를 본 할리(호세 코카 로사)는 무스타파의 신부감으로 정해 소개한다. 무스타파는 이사벨라에게 첫눈에 반하고, 연인 린도르를 찾아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하는 이사벨라는 그를 유혹해 방법을 찾는다.
- 주연부터 조연까지 강렬한 캐릭터들이 살아 숨 쉬는 이번 무대는 연출진과 출연진 간의 각별한 친밀함이 눈에 띈다. 타이틀롤에 해당하는 이사벨라 역의 바르톨리는 풍성한 음색과 뛰어난 콜로라투라를 가미한 표현력으로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린도르 역의 로차는 투명한 고음으로 진정한 '테노레 디 그라치아'(우아한 테너)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음흉하면서도 엉뚱한 마초 무스타파 역의 아브드라자코 프와 타데오 역의 크르벨리는 관객들의 웃음을 책임진다. 지휘를 맡은 스피노지의 연주는 "신비롭고 묘한 매력이 있는 공연(뉴욕 타임즈)" 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해설지(21쪽 분량/영·독·불어)에는 프로덕션의 의미, 시놉시스, 하이라이트 화보 등이 실려 있다.



C Major 751808 **[2DVDs]** C Major 751904 **[BD]** 

# 2015 베로나 페스티벌 실황 - 모차르트 '돈 지오반니'

스테파노 몬타나리(지휘), 아레나 디 베로나 오케스트라  $\cdot$  합창단, 카를로스 알바레즈(돈 지오반니), 알렉스 에스포지토(레포렐로), 마리아 조세 시리(돈나 엘비라), 이리나 룽구(돈 나 안나), 프랑코 제피렐리(연출)

#### 베로나에 또하나의 역사로 남은 제피렐리의 무대

1913년에 시작된 베로나 페스티벌의 기념비적인 공연으로 2015년 7월 모차르트 '돈 지오반니' 실황물이다(2019년 8월 전세계 발매). 전설적인 연출가 프랑코 제피렐리 (1923~2019)의 만년 혼이 담긴 유작과도 같은 무대다. 세계적 수준의 성악가보다 화려한 무대와 스펙터클로 승부를 보던 베로나도 거장 연출가의 참여로 인해 초특급 성악가들이 함께 하여 품격을 높인다. 카를로스 알바레즈, 이라나 룽구 등을 베로나 페스티벌에서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잊지 못할 추억이다. 원형 경기장의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잡히는 공간과 카메라 쇼트 역시 다양하다. 메이킹필름(16:16/영문 자막)에는 베로나 풍경, 지휘자와 성악가들의 작품 해설과 인터뷰가, 해설지(17쪽 분량/영ㆍ독어)에는 트랙ㆍ작품론ㆍ시놉시스가 담겨 있다.

## [보조자료]

- 영상이 시작되면 베로나 아레나의 관객들이 자리를 잡는 광경이 펼쳐진다. 1913년에 시작된 베로나 페스티벌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원형경기장을 무대로 하는 세계적인 오페라페스티벌이다. 이 영상물은 2015년 7월 모차르트 '돈 지오반니' 실황물로 2019년 8월에 공식발매됐다.
- 스페인 세비야의 귀족 돈 지오반니(카를로스 알바레즈)는 기사장의 딸 돈나 안나(이리나 룽구)에게 반해 몰래 방에 침입한다. 하지만 쫓겨난 그는 기사장(라파엘 시베크)과 맞닥뜨리자 결투 끝에 그를 죽이고 도망친다. 돈나 엘비라(마리아 조세 시리), 체를리나(나탈리아 로만) 등을 농락한 그에게 기사장의 석상이 찾아온다. 기사장은 회개하면 살려 주겠다고 하지만 돈 지오반니는 굽히지 않고 지옥불 앞에서 당당히 죽음을 택한다.
- 전설적인 연출가 프랑코 제피렐리(1923~2019)의 아름다운 무대가 인상적인 공연이다. 2019년에 사망했으니 어떻게 보면 그의 만년의 혼이 담겨 있는 유작이라 할 수도 있겠다. 노장은 그간 진행해온 프로덕션의 리바이벌이 아닌 보다 더욱더 고풍스럽고 클래식해진 의상과 베로나의 저녁과 깊어가는 밤을 수놓는 화려한 조명으로 더욱더 새로움을 선사한다.
- 세계적 수준의 성악가보다 화려한 무대와 스펙터클로 승부를 보던 베로나 페스티벌도 거장 연출가의 참여로 인해 초특급 성악가들이 열 연한다. 카를로스 알바레즈, 이라나 롱구 등을 베로나 페스티벌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잊지 못할 추억이다.
- 수많은 카메라가 가동되어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일반 오페라극장의 한정된 공간이 아닌 원형 경기장의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잡히는 공간과 카메라 쇼트 역시 다양하다.
- 메이킹 필름(16:16/영문 자막)에는 베로나의 아름다운 풍경, 지휘자 및 주요 성악가의 작품 해설과 인터뷰가 담겨 있다. 해설지(17쪽 분량/영·독어) 에는 트랙, 작품론, 시놉시스가 담겨 있다.



C Major 751608 **[DVD]** C Major 751704 **[Blu-ray]** 

## 2019 브렌겐츠 페스티벌 실황

## - 베르디 '리골레토'

엔리크 마촐라(지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테판 콘첼로(만토바 공작), 블라디미르 스토 야노프(리골레토), 멜리사 페티(질다), 미클로스 세베스티엔(스파라푸칠레), 필립 슈톨츠(연출)

#### 역대 브렌겐츠 중 최고라는 소문을 확인하는 순간

아이다(09/10), 안드레아 세니에(11/12), 마술피리(13/14), 투란도트(15/16), 카르멘(2017/18)에 이어 2019년은 베르디 '리골레토'이다. 필립 슈톨출(1967~)가 연출ㆍ디자인한 무대는 14미 터의 광대 얼굴과 9미터의 손은 회전하고 움직이며 관객과 눈을 마주치고, 눈을 깜빡거리고 치아를 드러내기도 한다. 3막에서 질다는 열풍선을 타고 90미터 상공까지 올라가 아리아를 선사한다. 광대가 주요 소재인만큼 공중곡예단(Wired Aerial Theatre)이 대거 출연해 서커스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호수 위 허공을 환상적으로 수놓는다. 메이킹필름(27:44, 한국어자막)에는 대형무대가 준비되고 오르는 과정이 담겨 있다. '무대가 만들어 진다'기보다는 건물이 세워 진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거대하고 놀라운 현장이다.

#### [보조자료]

- 1945년 오스트리아의 보덴호수 위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야외공연을 위한 하이테크놀로지의 결정판이다. '토스카' 무대가 영화 '007-퀀텀오브솔러스'에 공연 장면이 나오는 등 수상무대는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한다.
- 그동안 아이다(2009/10), 안드레아 세니에(11/12), 마술피리(13/14), 투란도트(15/16), 카르멘(2017/18)을 선보여온 브레겐츠가 2019년에 선택한 것은 베르디 '리골레토'이다. 궁중광대 리골레토(블라디미르 스토야노프)는 주인인 만토바 공작(스테판 콘스텔로)의 방탕한 생활을 웃음소재로 삼으면서도 실제 음탕한 행실을 돕기도 하는 모순적 인간이다. 그는 집 안에 꽁꽁 숨겨두고 키워온 딸 질다(멜리사 페티)를 유괴해만토바 공작에게 데려가는 일에 우연히 가담하게 된 사실을 알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 이번 무대의 연출과 디자인을 맡은 필립 슈톨츨(1967~)은 독일의 유명영화감독이다. 마돈나 뮤직비디오는 물론 영화 '노스페이스' '피지 션' 등에서 명장면을 만들어내며 이름을 알린 그는 2005년부터 잘츠부르크, 바젤, 바르셀로나,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빈 등의 유명 오페라 극장 프로덕션에서 참여해온 연출가. 그런 그의 총역량이 '리골레토'에 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설지(24쪽/영·독어)에는 트랙, 프로덕션 해설,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어 작품과 프로덕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14미터 높이의 광대 얼굴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며, 눈이 깜빡거리고, 입을 열어 치아를 보이기도 한다. 9미터 높이의 두 개의 손은 움 크리면 주인공들의 집이 되고, 주연들에게 경고의 손가락을 하기도 한다. 3막에서 질다는 열풍선을 타고 90미터 상공까지 올라간다.
- 광대가 타이틀롤인만큼 서커스 장면도 종종 등장하는데, 호수 위의 허공을 환상적으로 수놓는다. 이를 위해 공중곡예단(Wired Aerial Theatre)이 대거 출연해 보덴호수의 저녁과 밤하늘을 환상적으로 수놓는다.
-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2018년 250만 유로를 들여 사운드 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했다. 음향적 환경이 한껏 업그레이드된 무대 위에서 노란 색 광대복을 한 스토야노프(리골레토)와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페티(질다)의 열연이 빛난다.
- 메이킹필름(27:44/한국어자막)에는 연출가 인터뷰와 대형무대가 준비되고 오르는 과정이 담겨 있다. '무대가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건물이 세워진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거대하고 놀라운 현장이다.



C Major 730508 [DVD]
C Major 730604 [Blu-ray]

## 2019 엘프필하모니 실황

- 브루크너 교향곡 2번(1877년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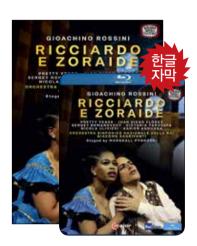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 브루크너 전사 틸레만, 함부르크를 흔들다

유니텔(UNITEL) 레이블의 독점 아티스트로, 2012/13 시즌부터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틸레만(1959~)의 브루크너 교향곡 2번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실황(2019.2.6)이다. 모데라토(18:34), 안단테(18:08), 스케르초(6:35), 피날레(18:13) 구성의 1877년 버전이며, 해설지(9쪽/영ㆍ불ㆍ독어)가 작품 이해를 돕는다. 홀의 음향은 밝고 강렬한 연주에 힘이 되며, 2악장 안단테는 잊지 못할 음향 체험을 선사한다. 각 파트가 연동하는 실내악적 관현악으로 요리하는 틸레만의 지휘에 따라 카메라 영상도 부분적인 쇼트를 통해 각 파트를 부각시킨다. '브루크너 전사' 틸레만의 역작에 동참하는 마니아라면,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함께 한 교향곡 4번(732604), 5번(717904), 8번(716204), 9번(733404)에 이어 반드시 소장해야 할 에디션이다.

#### [보조자료]

- 2012/13 시즌부터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크리스티안 틸레만 (1959~)은 유니텔(UNITEL) 레이블의 독점 아티스트로 포괄적인 카탈로그를 자랑한다. 베 토벤과 브람스 교향곡 전곡은 물론, 최근 이어가고 있는 브루크너 교향곡 영상물은 최고의 연주력과 화질, 음질을 자랑한다. 그 명성은 뮌헨 필과의 교향곡 4번 ⋅ 7번(712304),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의 교향곡 4번(732604), 5번(717904), 8번(716204), 9번(733404)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 영상물은 2019년 2월 6일,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홀에서 선보인 브루크너 교향곡 2 번(1877년 버전) 실황이다.
- 다섯 판본이 존재하는 교향곡 2번은 판본에 따라 곡 순서가 완전히 바뀐다. 초판본에는 2약장이 스케르초로 되어있다면, 1877년 버전에는 스케르초가 3약장으로 배치되고 2약장은 안단테 느린 약장으로 바뀐다. 이 영상물은 ①모데라토(18:34) ②안단테(18:08) ③스케르초(6:35) ④피날레(18:13) 순으로 구성되었다. 해설지(9쪽/영⋅불⋅독어)에 수록된 작품해설이 작품 이해를 돕는다.
- 한 시간이 넘는 교향곡을 암보로 해치우는 틸레만은 영락없는 '브루크너 전사'이다. "엘 프필하모니에서 틸레만은 다시 한 번 독일 낭만주의의 힘을 보여주었다"(석간 함부르크). 이 위대한 홀의 음향도 밝고 강렬한 연주에 힘이 된다. 특히, 2악장의 서정적인 안단테는 기존 홀에서 보여주지 못한 울림의 선사함을 제공한다.
- 틸레만은 전체적인 윤곽보다 각 파트가 연동하는 듯한 실내약적 관현약으로 이 명곡을 요리한다. 따라서 카메라 영상은 오케스트라 전경보다는 부분적인 쇼트를 통해 각 파트를 부각시키고 있다.



C Major 752608 **[2DVDs]** C Major 752704 **[Blu-ray]** 

# 2018 로시니 페스트벌 실황

## - 로시니 '리치아르도와 조라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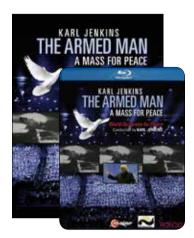
지아코모 사그리팡티(지휘), 오케스트라 신포니카 나치오날레 델라 레이, 세르게이 로마노 프스키(아고란테), 프리티 옌데(조라이데), 후안 디에고 플로레츠(리치아르도), 빅토리아 야드바야(조미라), 마샬 핀코프스키(연출)

### 흑인소프라노 옌데. 로시니의 잠을 깨우다

로시니의 고향 페사로에서 열리는 로시니 페스티벌은 로시니의 숨은 명작을 선보이기 위해 1980년에 시작된 페스티벌이다. 2018년 축제 실황으로 1818년작 '리치아르도와 조라이데'이다. 고대국가 누비아 왕 아고란테(로마노프스키)와 그가 사랑하는 조라이데(옌데), 그리고 조라이데의 연인 로치아르도를 다룬 작품으로 왕의 억압으로부터 연인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디에고는 "벨칸토의 최고봉(바흐트랙)"이라는 찬사를,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흑인소프라노 옌데는 "빛나는 표현력(파이낸션 타임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연기는 '흑인 3대 소프라노'인 노먼・핸드릭스・배틀의 뒤를 잇는다. 해설지 (17쪽 분량/영ㆍ독ㆍ이탈리아어)가 수록됐으며, 공연장의 울림이 좋아 생생한 녹음의 질감이 압도적이다.

## [보조자료]

- 로시니 페스티벌은 조아키노 로시니(1792∼1868)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고향인 페사로에서 매해 열리는 오페라축제이다. 일명 '페사로 페스티벌'로도 잘 알려져 있다.
- 로시니는 생전에 약 40편의 오페라를 작곡했지만 오늘날 자주 공연되는 작품은 다섯 손가락에 불과하다. 음악출판사 리코르디(Ricordi)는 로시니의 숨은 명작을 선보이기 위해 1980년에 이 페스티벌을 시작했다.
- 영상물은 2018년 로시니 페스티벌 실황으로 1818년 작품인 '리치아르도와 조라이데'이다. 배경은 이집트 남부의 나일강 유역과 수단 북부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 누비아. 누비아를 다스리는 왕 아고란테(세르게이 로마노프스키)는 조라이데(프리티 옌데)를 사랑하며 집착한다. 하지만 그녀는 연인 리치아르도(후안 디에고 플로레츠)가 있는 몸. 결국 아고란테는 조라이데를 감옥에 가두고, 리치아르도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누비라 점령을 생각한다. 아고란테의 아내 조미라(빅토리아 야드바야)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집착하는 것을 알고, 또한 리치아르도가 누비아를 점령하기 위해 전에 불행의 근원인 조라이데를 처형하려 하나, 리치아르도는 조라이데를 구하며 작품은 막을 내린다.
- 초연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로시니 페스티벌에 오른 '리치아르도와 조라이데'는 국내에서 전혀 만나볼 수 없는 로시니의 수작이다. 공연 후 화려한 캐스팅은 현지와 유럽 주요 언론의 찬사를 끌어냈다.
- 디에고는 "벨칸토의 최고봉을 보여주었고(바흐트랙)" "레이저로 세공한 듯한 정밀함과 스릴이 넘쳤다(파이낸셜 타임즈)"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고음의 화려한 고공비행을 보여준다.
- 눈여겨볼 또 다른 인물은 조라이데 역의 프리티 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소프라노로 "빛나는 표현력(파이낸션 타임즈)"이라는 찬사를 받은 그녀의 목소리와 연기는 '흑인 3대 소프라노'로 각광받는 제시 노먼·바바라 핸드릭스·캐슬린 배틀의 뒤를 잇는 차세대 주자로 손색이 없다.
- 해설지(17쪽 분량/영·독·이탈리아어)에는 작품 소개, 줄거리 등이 담겨 있다. 공연장의 울림이 좋아 생생한 녹음의 질감이 압도적이다. 힘 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되어 현장감을 배가시킨다.



C Major 707508 [DVD]
C Major 707604 [Blu-ray]

최고의 영상물.

정말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한 거대함!

## 2018 베를린 실황

## - 칼 젠킨스 '평화를 위한 미사'

칼 젠킨스(작곡·지휘), 평화를 위한 월드오케스트라·합창단, 파울린 라만·유메지 마타수푸지·발렌티노 월리초크(시 나레이터)

#### 이보다 더 위대했던 평화콘서트는 없었다!

합창곡 '평화를 위한 미사'는 영국 작곡가 칼 젠킨스(1944~)가 영국 왕립병기창의 위촉을 받고 코소보 사태의 참상에서 모티프를 얻어 작곡한 작품이다. 같은 나라의 브리튼 '전쟁 레퀴엠'과 궤를 같이 하는 작품으로 평화를 바라는 작곡가의 바램을 위해 세상의 위대한 시와 고전 문구들이 노래의 가사가 된 곡이다. 영상물은 2018년 베를린에 위치한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실황. 30개국에서 참석한 2,000명의 합창단은 초대형 첨단 전광판에 들어오는 전쟁 참상의 풍경과 함께 평화를 노래한다. 보너스 필름에는 젠킨스의 인터뷰, 무대 준비 과정의 필름이 수록되어 감동의 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자막은 영문만 제공). 해설지(13쪽 분량/영·독어)에는 공연의 의미, 작곡가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

### [보조자료]

- '평화를 위한 미사'는 영국 작곡가 칼 젠킨스(1944~)가 영국 왕립병기창의 위촉을 받고 코소보 사태의 참상에서 모티프를 얻어 작곡한 작품이다.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과 궤를 같이 하는 작품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평화를 바라는 작곡 가의 바램을 위해 세상의 위대한 텍스트들이 가사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곡 구성을 기재한다.
- 영상물은 2018년 베를린에 위치한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실황이다. 30개국에서 참석한 2,000명의 합창단은 초대형 첨단 전광판에 들어오는 전쟁 참상의 풍경과 함께 평화를 노래한다. 보너스 필름에는 젠킨스의 인터뷰, 무대 준비 과정의 필름이 수록되어 감동의 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자막은 영문만 제공). 해설지(13쪽 분량/영·독어)에는 공연의 의미, 작곡가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
- (01) The armed man: 15세기 샹송 '무장한 사람'을 바탕으로 한 곡으로, 이 작품의 중심적인 테마이다.
- (02) Adhan: 이슬람교에서 예배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할 때 부르는 소리이다. "알라는 지극히 크시도다. 우리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맹세하노라."라는 뜻을 담고 있다.
- (03) Kyrie: 가톨릭 미사전례에서 가장 먼저 연주되는 곡으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다.
- (04) Save me from bloody man: 구약성경의 시편 56편 · 59편을 텍스트로 한 곡으로 '주여, 이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다.
- (05) Sanctus: 가톨릭 미사 전례무으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06) Hymn before action: '정글북'의 작가로 유명한 키플링의 시 'Hymn before action'에서 따온 것으로 로마 검투사들의 비극적 결투를 상징한다.
- (07) Charge!: 17세기, 청교도 시인 존 드라이든의 '성녀 세실리아 축일의 노래'와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로 유명한 스위프트의 시에서 가사를 가져왔다.
- [08] Anger flames: 히로시마 워폭 생존자 시인인 토게 산키치의 시에서 가사를 가져와 워폭의 참상을 전한다.
- (09) Torches: 힌두교 경전 마하바라타의 가사이며 (8)의 곡과 연결되어 있다.
- (10) Agnus Dei: 가톨릭 미사 전례문으로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 (11) Now the guns have stopped: 왕립병기창 원장 가이 윌슨이 이 작품을 위해 쓴 시를 가사로 하고 있다. 1차 대전의 참상이 모티프이다.
- (12) Benedictus: 가톨릭 미사 전례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이다. CF의 음악으로 사용될 정도로 유명하다.
- (13) Better is peace: 여러 시인들의 시구와 요한묵시록을 가사로 하고 있다. (1)의 테마인 '무장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피날레를 이루다.



C Major 708408 [2DVDs] C Major 708504 [Blu-ray]

## 2018년, 개관 60주년을 맞은 도쿄 산토리홀의 최대 화제공연이었던 공연 실황 슈만 교향곡 전곡(1~4번)

크리스티안 틸레만,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 슈만이 점지한 틸레만, 일본을 넘어 세계를 달구다

2018년, 개관 60주년을 맞은 도쿄 산토리홀의 최대 화제공연이었던 공연 실황. 1844~1850년에 드레스덴에 살며 4곡의 교향곡을 완성한 슈만(1810~1856)의 교향곡 전곡 공연은 "슈만 해석의 새로운 이정표"라는 호평(가디언)을 받았고, 2019년 출시되면서 틸레만(1959~)은 60번째 생일선물로 슈만을 택했다. 해설지(13쪽 분량/영·불·독어)가 수록 되었으며, 동봉된 보너스 필름(한국어 자막)에는 틸레만이 생각하는 슈만에 대한 인터뷰가 장장 27분 동안 펼쳐진다. "슈만은 음악의 강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도 과장되지 않게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슈만은 이런 극단을 강조했다."

## [보조자료]

- 2018년, 개관 60주년을 맞은 도쿄 산토리홀의 최대 화제작으로 기억될 공연 실황으로 1844∼1850년에 독일 드레스덴에 살며 4곡의 교향곡을 완성한 슈만(1810∼1856)의 교향곡 전곡과 드레스덴의 명문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를 담은 영상물이다.
- 1548년 창단된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베버·바그너에 이어 20세기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67년간 음악감독을 맡은, 이른바 '살아있는 서양음악사'로 불리는 악단이다. 올해로 창단 471년을 맞은 이 악단을 2012년부터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수석지휘자로 취임해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이 공연은 '가디언'으로부터 "슈만 해석의 새로운 이정표"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2019년11월에 출시된 이유는 틸레만(1959∼)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 그간 브루크너를 통해 다져온 음악적 무게는 이 공연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다. 디테일과 민첩함은 기본. 아다지오는 슈만이 놀랄 정도로 정성스럽고 부드러우며 한편으로는 폭넓은 다이내믹 표현으로 슈만의 다양성을 표현해낸다.
- 해설지(13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이러한 슈만의 음악적 정신을 담은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 연주 영상은 총 155분. 동봉된 보너스 필름(한국어 자막 제공)은 그 어디서도 쉽게 만날수 없던 틸레만이 생각하는 슈만에 대한 인터뷰이다. "슈만은 음악의 강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도 과장되지 않게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슈만은 이런 극단을 강조했다." 카메라 앞에서 틸레만은 27분 동안 슈만에 대한 역사적 지식과 자신의 지휘관을 털어 놓는다.

C Maior 714308 [DVD] C Major 714404 [Blu-ray]

## 2018 시카고리릭오페라

## - 글룩 '오르페와 유리디스' [프랑스 버전]

하리 빅케트(지휘), 리릭오페라 오케스트라, 드미트리 코르차크(오르페오), 아드리아나 추 슈만(유리디스), 존 노이마이어(연출·안무), 조프리발레단

### 거장의 발레, 매력적인 소프라노

1954년 창단한 시카고리릭오페라가 2018년 리릭오페라하우스에서 선보이며 오페라단의 대표작으로 안착한 실황물이다. 글룩(1714~1787)의 대표작으로 파리 공연을 위해 수정된 이 작품은 드라마발레의 황태자 존 노이마이어의 안무와 조프리발레단이 함께 하며 발레 로도 다시 태어났다. 노이마이어는 이야기 전달에 집중하기보단 특유의 군무진 연출을 통 해 저승의 묘한 분위기를 장면마다 아름답게 드러낸다. 미니멀한 무대 장치와 원색의 조 명만 갖춘 무대를 시카고 조프리발레단의 단원들이 누빈다. 유리디스 역의 소프라노 아드 리아나 추슈만도 눈여겨볼 것. 빼어난 미모. 드라마틱한 음성. 발레단과 어우러지는 우아. 한 동작을 가미하여 미국에서의 '바로크 오페라'를 '바로크 뮤지컬'로 만들며 매력을 선사

#### [보조자료]

- 시카고리릭오페라는 1954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20대에 불과한 캐롤 폭스와 로렌스 켈 리가 지휘자 니콜라 레스키뇨와 함께 시카고의 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다. 원래 명칭은 시카고리릭극장이었는데, 몇 년 후에 시카고리릭오페라로 바꾸며 오페라의 전문화 를 다져나갔다. 캐롤 폭스는 창단 이후 1980년까지 26년간 총책임자로 활약하며 오페라단 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 '오르페와 유리디스'는 2018년 시카고 리릭오페라하우스에서 선보인 공연으로 "승리와 기적으로 가득 찬 신선한 무대"(시카고 트리뷴). "글룩을 제대로 감상하려 한다면 시카고 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연주에는 우리를 매료시키는 힘이 있다"(뉴욕타임스)"라는 호평을 받으며 오페라단의 대표작으로 안착한 작품이다.
- ─ 크리스토프 글룩(1714~1787)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1762년 빈 궁정극장에서 초 연됐고, 1774년 파리 공연을 위해 수정됐다. 파리 공연을 위해 제목도 프랑스어인 'Orphée et Eurydice'(오르페와 유리디스)라고 고쳤고. 이탈리아어 대본을 피에르 루이 몰랭이 프 랑스어로 바꾸었다.
- 오페라로 태어난 작품이지만, 드라마발레의 황태자인 존 노이마이어의 안무와 조 프리발레단이 함께 하며 이 공연은 발레로도 다시 태어났다. 1956년 로버트 조프리 (1930~1988)가 제럴드 알피노와 함께 설립한 발레단이다. 노이마이어는 이야기 전달에 집중하기보단 특유의 군무진 연출을 통해 저승의 묘한 분위기를 장면마다 아름답게 드러 낸다. 해설지(29쪽 분량/영·불·독)에는 작품 해설과 함께 안무에 관한 노트가 실려 있 다. 이 작품이 그만큼 노이마이어의 연출과 발레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영상물에서 눈에 띄는 존재는 유리디스 역의 소프라노 아드리아나 추슈만이다. 캐나다 태생의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드라마틱한 음성. 발레단과 어우러지는 우아한 동작을 가미 하여 완벽한 무대를 보여준다. 미국에서의 '바로크 오페라'지만, 모던한 분위기와 이지적 인 미모로 이 작품을 마치 '바로크 뮤지컬'로 만드는 듯하다.

# **Dynamic**

## www.dvnamic.it



Dvnamic 37843 [DVD] Dynamic 57843 [Blu-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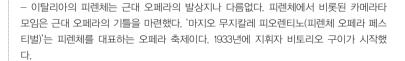
## 2019 피렌체 테아트로 델 마지오 무지칼레 실황 -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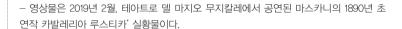
발레리오 갈리(지휘), 테아트로 델 마지오 무지칼레 오케스트라 · 합창단, 알렉시아 볼가리 도(산뚜자), 마리나 오기(롤라), 안젤로 발라리(뚜리두), 루이지 간지 : 우고 지아코마치(공 동연출) 외

## 무대의 중심을 장악한 그녀

2019년 2월. 피렌체의 테아트로 델 마지오 무지칼레에서 실황물이다. '촌뜨기 기사도'정도 로 번역되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줏대 없는 남자 뚜리두가 알피오가 모욕에 결투를 신청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종의 남성 서사물이다. 하지만 이 프로덕션에서 중심을 잡는 이는 연인 산뚜자 역의 알렉시아 볼가리도이다. 그리스 태생의 볼가리도는 2008년 '라 보 엠'으로 데뷔한 이래 콘서트와 오페라를 넘나들며 맹활약을 하고 있는 소프라노. 원작의 배경인 시칠리아 섬의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했으며, 군중 씬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보 너스 영상(6분/한글자막)에는 지휘자 · 뚜리두 역의 발레리오 갈리 · 연출가의 인터뷰가 수 록되어 있다

#### [보조자료]





- 갓 제대한 뚜리두(안젤로 빌라리)는 연인 롤라(마리나 오기)가 알피오(데비드 세초니)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 괴로워한다. 그러다가 자신을 위로해주던 산뚜자(알렉시아 볼가리두) 와 사랑에 빠지지만, 다시 만난 롤라와 밀회를 나누기도 한다.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말은 비극으로 향해나간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던 뚜리두는 알피오가 모욕을 주 자 결투를 신청하고, 취한 뚜리두는 결투를 하다가 숨을 거두게 된다.
- 남성 서사물이지만, 무대를 빛내는 것은 산뚜자 역의 알렉시아 볼가리도이다. 그리스 태 생의 볼가리도는 2008년 '라 보엠'의 미미 역으로 데뷔해 로열 오페라 등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특히 콘서트와 오페라를 넘나드는 유연함이 이 영상물에서도 어김 없이 발휘 되다. 따라서 작품제목이기도 한 '촌뜨기 기사도'를 발휘하며 비극으로 치닫는 뚜리두로부 터 살짝 벗어나 산뚜자의 존재로 본 작품을 관람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 원래 배경은 1880년경 시칠리아 섬의 어느 마을이다. 루이지 간지·우고 지아코마치(공동연출)는 1940년대를 배경으로 재설정했다. 군중 씬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무대의 스케일을 확장하고 있다.
- 보너스 영상(6분/한글자막)에는 ①지휘자 발레리오 갈리, ②뚜리두 역의 테너 안젤로 빌라리, ③루이지 간지·우고 지아코마치와 무대미 술 · 디자인과 연습과정을 보여준다. 해설지(12쪽 분량/이탈리아 · 영어)에는 작품해설과 출연진이 수록.



86 이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87



Dynamic 37840 [DVD]
Dynamic 57840 [Blu-ray]

# 2018 마기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피렌체) 실황 - 푸치니 '요정 빌리'

마르코 앙기우스(지휘), 테아트로 델 마지오 무지칼레 오케스트라 · 합창단, 마리아 테레사 레바(아나), 레오나르도 카뮈(로베르토), 엘리아 파비앙(불프), 프란체스코 사포나로(연출)

### 푸치니의 '싹수'를 보여주는 초기작

테아트로 델 마기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는 피렌체의 명물극장으로, 숨겨진 명작을 발굴해 복원하곤 한다. '요정 빌리'로 국내에 번역된 이 작품은 1884년 푸치니가 우여곡절 끝에 발표한 첫 오페라이다. 2018년 10월 테아트로 델 마기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실황이다. 전설의 숲과 요정이 주요 모티브로, 유산을 상속받으러 간 로베르토는 약혼녀 아나와한 약속과 달리 모두 탕진하고 귀향한다. 하지만 아나는 죽은 상태, 빌리(젊은 여인들의 혼명)들은 로베르트에게 죽음을 주어 그를 벌한다. 사포나로의 연출은 현대식 미장센을 택한 모던한 스타일이다. 1막의 결혼식과 기도 장면의 음악, 2막 전주곡 '라반도노' 등은 푸치니의 다음 작품들을 예상하는 풍부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 [보조자료]

- 테아트로 델 마기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는 피렌체에 위치한 명물극장이다. 새로운 연출과 프로덕션을 지향하되, 숨겨진 명작이나 초연과 동시에 사라진 비운의 작품을 발굴해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레 빌리(Le Villi)'라는 원제보다 '요정 빌리'로 국내에 번역되고 있는 이 작품은 1884년에 푸치니가 발표한 첫 오페라이다. 이 영상물은 2018년 10월 테아트로 델 마기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실황이다. 해설지(12쪽 분량/영·이탈리아어)에는 초연 당시 이 작품이 겪은 역사가 잘 담겨 있다.
- 푸치니는 '요정 빌리'를 밀라노음악원의 작곡대상에 응모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친구 아리고 보이토가 아까운 작품이니 약간 수정해 공연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주고 극장까지 주선해 주었다. 그리하여 밀라노의 달 베르메라는 작은 극장에서 그의 첫 오페라가 공연될 수 있었다.
- 독일의 '검은 숲'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의 출연진은 4명으로 간단한 구조다. 삼림관의 딸 아나(마리아 테레사 레바)와 로베르토(레오나르도 카뮈)는 약혼을 한 사이. 로베르토는 언제 어디서든 아나에게 성실하겠다는 서약과 달리 빈털터리가 되어 귀향한다. 그런 그가 숲을 지날 때 빌리(젊은 여인들의 혼령)들이 나타난다. 아나의 집에선 장송곡이 흘러나오고, 아나의 아버지 불프(엘리아 파비앙)가 로베르토를 내쫓는다. 그때 아나의 빌리가 나타난다. 혼령들은 로베르토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땅으로 떨어뜨리고 로베르토는 죽음을 맞는다.
- 프란체스코 사포나로의 연출은 몇 그루의 나무와 의자로 검은 숲을 일구고, 현대식 복장을 택한 모던한 스타일이다. 나레이터(토니 라우다디오)가 동화를 구연하듯 줄거리의 흐름을 설명하기도 한다.
- 60분 분량의 2막으로, 1막의 결혼식 음악, 기도 장면의 음악과 왈츠, 2막을 여는 전주곡 '라반도노'는 초연 시 받았던 외면과 달리 젊었던 푸치니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 대목이 다.



Dynamic 37835 [DVD]
Dynamic 57835 [Blu-ray]

## 2018 파르네세 실황

## - 베르디 '르 트루베르(일 트로바토레)'

로베르토 아바도(지휘), 오케스트라 코로 델 테아트로 코뮤날레 디 볼로냐, 주세페 주팔리 (만리코), 프란코 바살로(루나 백작), 로베르타 만테그나(레오노라), 니노 슈글라드체(아수세나), 로버트 윌슨(연출)

## 연출가는 무대를 비우고, 베르디는 열정과 사랑으로 채웠다

1853년 '일 트로바토레'가 초연된 후 베르디는 파리공연을 위해 프랑스어 버전인 '르 트루베르'를 만들었다. 발레의 도시 파리를 위해 발레장면이 곳곳에 추가되기도 했다. 루나 백작(프란코 바살로)은 귀족 처녀 레오노라(로베르타 만테그나)를 사랑하지만 레오노라는 음유시인 만리코(주세페 주팔리)와 사랑하는 사이. 하지만 루나와 만리코가 친형제임이 드러나는 비극이다. 1628년 이탈리아 파르마에 세워진 파르네세 극장 실황(2018년 8월)으로, 로버트 월슨은 극장 내 르네상스풍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대립될 정도로 극단적인 추상무대, 아무 배경이 없는 무대에 오로지 조명(빛)을 통해서만 무대를 디자인한다. 로버트 로젠 크란츠의 사진도 사용하여 기존 오페라와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별미. 해설지(24쪽/이ㆍ영어)에는 트랙ㆍ프로덕션 해설ㆍ시놉시스가 수록됐고, 보너스필름(4:45)은 극장 역사와 내부 장식을 설명하고 있다.

## [보조자료]

- 1853년 로마에서 '일 트로바토레(Il Trovatore)가 초연되고, 베르디는 파리 공연을 위해 프랑스어 버전(Le Trouvère)을 만들었다.
- '일 트로바토레'는 안토니오 가르시아 구티에레스의 희곡(El trovador)을 바탕으로, 살바도레 캄마라노가 대본을 썼으며, 이를 레오네 엠마누엘레 바르다레가 완성했다. 그리고 에밀리엥 파치니가 프랑스어로 번역해 '르 트루베르'가 세상에 나왔다. '르 트루베르'는 1856년 브뤼셀 상연 후, 1857년 파리오페라에서 초연됐다. 발레를 사랑했던 파리인들을 공략하고자 베르디는 발레장면을 넣기 위해 3막의 음악을 추가했고, 4막의 마무리를 연장하는 등 몇 개를 수정했다.
- 루나 백작(프란코 바살로)은 귀족 처녀 레오노라(로베르타 만테그나)를 사랑하지만 레오노라는 음유시인 만리코(주세페 주팔리)와 사랑하는 사이. 만리코의 어머니 아수세나(니노 슈글라드체)를 이용해 만리코를 포로로 잡은 루나 백작에게 레오노라는 석방을 조건으로 결혼을 약속하지만 이내 자살을 선택하고, 만리코 역시 죽음을 맞는다. 그러자 아수세나는 루나 백작과 만리코가 친형제였음을 알리며 복수를 완성한다.
- 영상물은 2018년 8월 공연 실황물로, 이탈리아 파르마에 위치한 파르네세 극장 실황이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중 하나인 콤플레소 모누멘탈레 텔라 필오타에 소속되어 있는 파르네세 극장은 1628년에 지어진 문화유적과도 같다.
- 윌슨이 연출하는 무대는 지극히 추상적이며 간단하다. "콘크리트적인 환경으로 디자인하여 극장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대립하게 만들었다. 내 작품 중 조명(빛)은 무대를 디자인하고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공간도 없어진다."
- 원작이나 개작이나 '르 트루베르'는 로맨틱 비극이다. 연출가 로버트 윌슨은 "이것은 가족의 비극이며, 여러 면에서 매우 현대적인 이야기"라며, 원작의 감정과 그 힘을 드러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무대 배경에는 미국의 사진작가 로버트 로젠크란츠의 사진도 사용하여 기존 오페라와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 해설지(24쪽 분량/이·영어)에는 트랙, 프로덕션 해설, 시놉시스가 수록되었고, 보너스필름(4:45)을 통해 극장 역사와 내부의 여러 장식품을 설명한다.

88 ohsedia,co,kr 89 www.aulosmedia,co,kr



Dvnamic 37845 [DVD] Dynamic 57845 [Blu-ray]

## 2019 데아트로 리리코 디 갈리아리 실황 - 고메스 오페라 '로 스키아보'

존 네슐링(지휘), 오케스트라 코로 델 데아트로 디 칼리아리, 스베틀라 바실레바(릴아라), 마시밀리아노 피사피아(아메리코), 안드레아 보르기니(이베레), 엘리사 발보(라 콘테사 디 보이시), 다니엘레 레젠치(지안페라), 김동호(고이타카), 데이비드 개러티니 레이몬디(연출)

## 정치적 상상력보다 빛나는 브라질 고유의 선율

'로 스키아보'는 브라질 작곡가 카를루스 고메스(1836~1896)의 정치적 상상력이 빛나는 1889년 작품이다. 제3세계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 메시지가 담겼다. 2019년 3월, 테아트로 리리코 디 칼리아리 공연 실황으로 억압에 대항하는 부족의 모습은 영화 '아바타'를 연상시키고, 베라치의 조명디자인은 브라질 어느 숲의 새벽과 일몰의 아름다움 을 자아낸다. 고이타카 역의 김동호는 2017년 잔도나이 콩쿠르에서 우승한 재원으로 앞으 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보너스필름에는 고메스 추모 가곡콘서트(9:19)가 수록, 해설지 (12쪽 분량/영 · 이)에 고메스의 예술세계 해설이 담겨 있다.

### [보조자료]

- 브라질 작곡가 카를루스 고메스(1836~1896)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음악적 언어와 문법 을 체득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많이 여행한 작곡가 중 한명이다. 밀라노에서 유학한 그는 그 결과 이탈리아 내 공연장에 몇 개의 오페라를 올렸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브라질 귀 국 후 국가대표 작곡가로 추앙받았다.
- 그는 이탈리아에서 작품을 발표할 때에 제3세계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을 다룬 투쟁 메 시지가 담긴 작품을 많이 다루었다. 1889년 작 '로 스키아보'는 이러한 작곡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중 하나이다.
- 연출가 레이몬디는 '정치적 색채'로 태어난 작품 속에서 음악적 아름다움을 뽑아낸다. 노예들이 생활하는 부락과 촌락은 억압 받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근대화 속에서 잃어버린 자연에 대한 향수와 원형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영화 '아바타'가 떠오르는 이유 도 이 때문이다. 조명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베라치의 빛은 브라질 어느 숲의 새벽과 일몰 의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 이 영상물은 2019년 3월, 테아트로 리리코 디 칼리아리 공연 실황으로 영상물로는 처음 만들어진 레코딩이다. 고메스의 화려한 선율, 창의력이 돋보이는 악기 사용, 탄탄한 극적 구조를 지닌 연극적 메커니즘이 돋보이는 가운데 눈여겨 볼 캐스팅은 이 작품을 통해 데 뷔한 고이타카 역의 김동호이다. 김동호는 2017년 이탈리아 리바 델 가르다에서 열린 잔 도나이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한 재원. 그가 맡은 고이타카 역은 부족장 역할이다.
- 보너스필름에는 고메스를 추모하는 가곡 콘서트(9:19)와 추도사가 담겨 있고, 해설지(12 쪽 분량/영·이탈리아어)에는 작곡가. 작품. 소개. 트랙 리스트 등 고메스의 예술세계를 알 수 있는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 EuroArts

www.euroarts.com



### FuroArts 2055828 [2DVDs]

# 영상 다큐&2016 로테르담 실황 -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4번

아니크 네제-세갱(지휘),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크리스티안 판 쉬르비크(영상 연출)

## 네제-세갱과 로테르담 필의 추억 앨범

2008/09 시즌부터 유럽의 명문 로테르담 필을 이끌어온 세갱(1975~)이 악단 재직 만 년인 2016년에 찍은 다큐멘터리와 기념비적 공연이 수록된 2DVD 구성의 영상물이 다. 1DVD에는 캐나다 몬트리얼 태생의 세갱이 유럽에 진출하여 메이저 지휘자가 되 기까지 로테르담 필과 함께 한 시간과 역사에 관한 인터뷰가 일곱 트랙에 담겨 있다. 2DVD는 상주홀(Doelen)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4번 실황(2016. 12.10~11일)이다. 카 메라는 풀숏보다 파트와 단원들을 세부적으로 담아낸다. 교향곡 4번의 금·목관악기 독주에 관심이 많은 이라면 이 영상물만큼 적합한 것이 없을 것이다. 세갱과 로테르담 필의 단원들이 설명하는 교향곡 4번에 대한 해설 영상도 흥미롭고, 여러 차례의 리허 설 장면도 수록됐다. 두툼한 해설지(15쪽 분량/영문)도 수록, 로테르담 필에서의 임무 를 마친 세갱은 뉴욕 메트의 음악감독으로 부임했고. 이후에도 명예지휘자로 로테르담 필의 지휘봉을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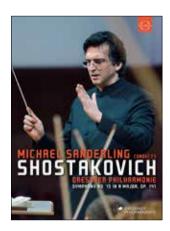
## [보조자료]

- 1918년 창단된 로테르담 필하모닉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근거지로 두고 있으며, 오늘날 암스테르담의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와 함께 네덜란드의 두 중요 오케스트라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도시로 새롭게 태어난 로테르담을 배경으로 성장해서인지, 도시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닮았으며, 고전음악에 주로 바탕을 두면 서도 현대적인 오케스트라로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 1995년부터 게르기예프가 이끌었던 기운을 이어받은 2008/09 시즌부터 로테르담 필을 이끌고 있는 야니크 네제-세갱의 라이프 스타일 과 음악관은 영락없이 이 악단과 닮아 있다. 로테르담 필에서의 임무를 마친 세갱은 2018년 뉴욕 메트로폴리탄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부임 했고, 그 이후에도 로테르담 필에서 명예지휘자라는 직위로 지휘봉을 잡고 있다. 이 영상물은 2장의 DVD로 구성됐다. 1DVD는 로테르담 필 과 함께 했던 새갱에 대한 다큐멘터리이다. ①브루크너 교향곡 8번의 리허설(7:25), ②2008년 부임(13:08), ③몬트리얼 태생부터 2000년 오 케스트레 메트로폴리타인까지(14:10). ④2016년의 로테르담(5:37). ⑤유럽 투어(16:08). ⑥2018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음악감독(5:22). ⑦카 를로 마리아 줄리니, 베르디와의 저녁(12:14)으로 구성되었다.
- 영상 속의 그는 평소에 편한 청바지와 라운드 티셔츠를 즐겨 입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헬스장에서 몸을 단련한다. 단원들과의 소통과 농 담으로 리허설을 이끌지만, 투어가 있을 적에는 다음 날의 컨디션을 위해 파티장에 모습도 드러내지 않는 철저한 자기 관리의 1일자이기도 하다. 이 영상물은 다큐멘터리 전문 작가 크리스티안 판 쉬르비크가 연출을 담당했다. 그는 로테르담 필과 함께 한 새갱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낸다.
- 2DVD는 로테르담 필의 상주홀(Doelen)에서 가진 2016년 12월 10·11일에 선보인 실황으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4번이 수록되었다. 이 작품은 앙상블과 파트별 독주가 빛을 발하는 게 특징이다. 카메라는 풀숏보다는 각 악기파트와 단원을 세부적으로 담아내며 새갱의 표정과 교차시키는 클로즈업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교향곡 4번의 금 · 목관악기 독주에 관심이 많은 마니아라면 이 영상물만큼 적합한 것은 없을 것이다. 2DVD의 보너스 필름에는 교향곡 4번에 관해 들려주는 로테르담 필의 단원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①새갱과 악장 이고르 구 르프먼과의 대화(18:50), ②얀 잰센(클라리넷)과 샤로테 그프렌켈스(하프)의 대화(7:34), ③줄리아노 좀머할터(트럼펫)과 코엔 플래팅크(타악 기)(9:28)가 그들이다. 리허설 장면은 ④첫 리허설(24:34). ⑤두 번째 리허설(6:55). ⑥공연 당일 리허설(12:55) 순으로 수록되었다. 하나의 교 향곡을 만들어가는 지휘자의 노력과 단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젊은 거장의 예술관을 믿고 따르는 단원들의 협동심이 돋보이는 영상물이다. 두툼한 해설지(15쪽 분량/영문)에는 새갱의 인물론, 교향곡 4번 작품론, 그와 함께 했던 로테르담 필의 단원명단이 담겨 있다.

90 아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91



EuroArts 2067818 [DVD]

## 2019 드레스덴 필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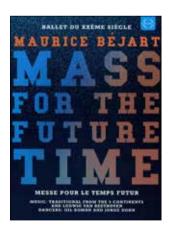
## -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5번

미하엘 잔데를링(지휘),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소문으로만 들던 쇼스타코비치 사이클 현장속으로

2019년 2월 13일 드레스덴 필의 상주홀 문화궁전(Kulturpalast)에서 선보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5번 실황이다. 2011년부터 드레스덴 필을 지휘하고 있는 잔데를링(1967~)이 쇼스타코비치와 베토벤 교향곡이 페어링된 음반 사이클이 제작되고 있다는데, 그 일각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실황물이다. 언제나 폭발적인 지휘와 주체적인 해석으로 템 포와 분위기를 잡아가는 잔데를링은 오히려 이 연주에선 차분한 어조로 일관한다. 그러다 가도 로시니와 바그너는 물론 자신의 여러 작품을 대거 인용하고 있는 이 패러디물의 재미를 선보여야 하는 대목에선 과감히 나아가는 극적 대비의 자세를 선보인다. 오랜 리모델링을 통해 2017년 4월에 빈야드 스타일로 재개관한 문화궁전의 음향도 인상적이다. 영상물에는 현장의 생생한 음향이 잘 녹음되어 담겼다. 보너스 필름(13:56/영·독어자막)에는 잔데를링이 말하는 작품론이 수록되었다.

[보조자료] 미하엘 잔데를링(1967~)은 2019년 3월 통영국제음악제의 개막 공연에서 루체른 심포니와 함께 베토벤 '운명' 교향곡을 지휘했고, 같은 해 7월에 그의 수족 같은 드레스덴 필과 함께 내한하여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율리아 피셔)과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선보인 바 있다. 2011년부터 독일 작센주의 주도를 대표하는 드레스덴 필을 이끌고 있는 잔데를링은 2013년부터 꾸준히 내한하는 지휘자인 만큼 한국의 팬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uroArts 2064998 [DVD]

# 1984 브뤼셀 왕립극장 실황 – 베자르 '미래를 위한 대중'

모리스 베자르(안무), 20세기 발레단

## 미래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그린 베자르의 예언작

모리스 베자르(1927~2007)의 숨은 작품 '미래를 위한 대중'의 1984년 브뤼셀 왕립극장 실황물이다. ①'전통세계'(76분), ②'인공의 세계'(60분) 구성의 2부작인 이 작품은 1959년 작 '봄의 제전'과 1960년 작 '볼레로'는 완전히 상반되는 파격작이다. '전통세계'의 군무 씬에선 브라질 전통무예 카포에이라, 일본 등 비유럽적 요소가 등장하고, '인공의 세계'에서 기계사회를 상징하는 무대와 전자음향이 난무한다. 브라질의 대주교이자 해방신학자인 카마라(1909~1999)의 삶과 메시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 작품을 통해 베자르는 "미래에 소외될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류애, 인류 평등, 사람에 대한 헌신 등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보조자료]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의 모리스 베자르(1927~2007)는 20세기 발레의 혁명가이다. 청소년기에 연극과 오페라에 빠졌던 그는 발레를 접한 뒤 방향을 틀었다. 18세에 마르세유 발레단에 입단했고 스웨덴 왕립발레단에서도 활동했던 그는 1960년에 브뤼셀에서 20세기 발레단(The Ballet du XXe Siècle)을 창단한다. 1987년에는 거점을 로잔으로 옮겨 자신의 이름을 딴 베자르 발레 로잔(Bejart Ballet Lausanne, BBL)으로 재출범시켰다. 1984년 브뤼셀 왕립극장 실황이 담긴 영상물로, 베자르의 숨은 작품 '미래를 위한 대중'이담가 있다. 2부 구성으로 크게 (1)'전통세계'(76분)와 (2)'인공의 세계'(60분)으로 나뉜다.



EuroArts 2067978 [8DVDs]

## 베토벤 탄생 250주년 \_ 기념박스물 교향곡 · 오페라 · 미사 · 피아노 소나타 모음집

#### 저렴하고 든든한 '베토벤 네비게이션'

베토벤(1770~1827) 탄생 250주년이 되는 2020년을 앞두고 메이저 레이블마다 보물창고에 쌓아놓았던 베토벤 영상물과 음반을 새롭게 편집하여 박스물로 내놓고 있다.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작곡가였던 만큼 '어떤 작품'을 '누구의 연주'로 감상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라면 과감히 이 박스물을 선택할 것. 8장의 DVD로 구성된 '그레이트 베토벤 베이직스'는 심지어 저렴한 가격으로 발매되어 초심자에게 별 부담이 없다. 영상물은 1975년부터 2018년까지 역사에 남을 명연들을 담고 있다. 아바도가 베를린 필 시절에 남긴 교향곡, 바렌보임이 피아니스트로서 누린 전성기의 소나타, 불후의 콰르텟으로 명성을 남긴 줄리어드 현약 4중주단의 1975년 필름 등 '베토벤'이라는 코드로 20세기 후반기의 연주사를 돌아볼수 있는 의미 있는 박스물이기도 하다(※각 DVD에 표기된 연도는 공연연도).

## [수록곡]

[1DVD]: 교향곡 3번, 9번(카리타 마틸라, 비올레타 우르마나, 토마스 모저, 빌름 슐트, 베를리 필하모닉, 클라우디오 아바도/2002)

[2DVD]: 교향곡 5번(베를린 필하모닉, 클라우디오 아바도/2001)

[3DVD]: 미사 솔렘니스(카밀라 닐룬트, 비르짓 리메르트, 크리스티안 엘스너, 르네 파페, 드레스덴 오페라합창단, 파비오 루이지/2005)

[4DVD]: 교향곡 6번, 바이올린 협주곡(이자벨레 파우스트, 베를린 필하모닉, 베르나르트 하이팅크/바덴바덴 페스티벌/2015)

[5DVD]: 오페라 '피델리오' (자클린느 바그너, 노버트 에른스트, 우즈테크 기에르라흐, 성 갈렌 합창단, 오토 타우스크/2018)

[6DVD]: 피아노 협주곡 4번, 5번(다니엘 바렌보임,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2007)

[7DVD]: 현악 4중주 4번, 7번, 14번(줄리어드 현악 4중주단/1975)

[8DVD]: 피아노 소나타 8번, 14번(다니엘 바렌보임/1983, 1984), 디아벨리 변주곡(보리스 베레조프스키/루르 피아노페스티벌/2006), 에로이카 변주곡(프리드리히 굴다/본 베토벤 페스티벌/1970), 에그먼트 서곡(베를린 필하모닉, 클라우디오 아바도/2002),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1번, 2번(콜야 블라허, 베를린 필하모닉, 클라우디오 아바도/1996)

## Fleur De Son

www.fleurdeson.com



Fleur De Son FDS 58045 [Blu-ray]

## 2016년 영상 '레베카 페니가 연주하는 프레데리크 쇼팽'

레베카 페니(피아노)

### 쇼팽으로 1891년산 스타인웨이의 소리를 들어볼까?

1965년 제7회 쇼팽콩쿠르에서 아르헤레치(1941~)가 우승했을 때, 최연소 참가자 레베카 페니(1946~)는 전례 없는 비평가상과 명예상을 수상했다.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등에서 교육자로 더 인정받아 왔다. 이 영상물(2016년 5월 11 · 12일 플로리다 페테르부르크 컬리지 음악센터)은 레베카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물로 '올 쇼팽'이다. ①소나타 3번 Op.58 ②왈츠 Op.34-1 ③녹턴Op.27-1 · 2 ④자장가 Op.57 ⑤스케르초 3번 Op.39가 수록. 루바토 같은 기교나 양념보다 스타인웨이 'D'(1891년산)의 중후한 음향에 맞춰 '깔끔한 쇼팽'을 선보인다. 4개의보너스트랙에 곡목소개, 연주법, 악기 해설과 그녀의 이름을 딴 '레베카 페니 피아노페스티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 [보조자료]

- 레베카 페니(1946~)는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피아니스트이다. 1965년 제7회 쇼팽콩쿠르에 참석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19살로 참가자 중에 가장 어린 나이였다. 당시 우승을 거머쥔 이는 마르타 아르헤레치(1941~)이었고, 어린 레베카는 그실력을 인정받아 전례 없는 비평가상과 명예상을 수상했다.
- 이후 1972년에 뉴욕 데뷔를 했으며, 같은 해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다. 교단에 서면서도 캐롤 신델(바이올린)과 해밀턴 체페츠(첼로)와 피아노 트리오를 구성하여 실내약에도 매진했다.
- 이 영상물은 2016년 5월 11일과 12일에 플로리다에 위치한 페테르부르크 컬리지 음 악센터에서 촬영된 것이다. 레베카의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물로도 손색이 없 다.
- 쇼팽의 스페셜리스트답게 '올 쇼팽'이다. 레베카는 ①쇼팽 소나타 3번 Op.58 ②왈츠 Op.34-1 ③녹턴 Op.27-1과 Op.27-2 ④자장가 Op.57 ⑤스케르초 3번 Op.39를 연주한다. 루바토나 아고리 같은 쇼팽을 요리하는 특별한 기교와 양념보다는 1891년산 스타인웨이 'D'의 중후한음량과 음향에 맞춰 '깔끔한 쇼팽'을 선보인다. 주관성과 낭만성보다는 객관적이면서도 교과서적인 연주다. 기교를 한껏 걷어내니 들려오는 악기의음색도 솔직하다. 스타인웨이의 음색을 접하고 싶은 마니아들에게도 적극 추천한다.
- 보너스 필름에는 ①영상물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인터뷰(1:46) ②모션과 감정(2:17)③연주와 역사적 접근법(3:27) ④초월, 나의 스타인웨이, 레베카 페니 피아노 페스티벌 (RPPF)(5:35)가 수록되었다.
- 레가시는 자신의 이름을 딴 레베카 페니스 피아노 페스티벌을 운영 중이다. 이 페스 티벌은 3주 동안 18~29세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여 피아노의 기교 외에 연주에 필요 한 학습, 건강, 잠재력, 창의성 등 총체적인 개념을 나누는 장이다.

Naxos

www.naxos.com



Naxos 2,110632 [DVD]
Naxos NBD0097V [Blu-rav]



# 2018 파리 오페라 코미크 실황 – 구노 '피묻은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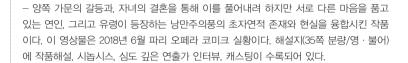
로렌스 에퀼베이(지휘), 인술라 오케스트라, 미셸 스파이너즈(로돌프), 반니야 산토니(아그네스), 마리옹 레베크(피묻은 수녀), 다비드 보뷔(연출)

#### 구노의 공포 오페라

구노의 1854년 초연작으로, 양쪽 가문의 갈등과 이를 자녀의 결혼을 통해 풀어내려하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연인, 그리고 남성을 괴롭히는 유령(피묻은 수녀)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영상물은 2018년 6월 파리 오페라 코미크 실황. 극중 주인공은 피묻은 수녀이다. 무대를 전면 검정색으로 처리한 보뷔의 연출 덕분에 피 묻은 흰 가운을 걸친 수녀의 존재감이 부각된다. 하지만 그녀보다 더욱 눈길이 가는 것이 로돌프의 분량과 활약이다. 1980년 미국 태생의 테너 미셸 스파이너즈가 그 역을 맡았다. 벨칸토 작품은 물론, 프랑스 그랜드오페라로 명성을 날린 그의 진가를 단번에 느낄 수 있다. 해설지(35쪽 분량/영ㆍ불어)에는 작품해설. 시놉시스, 심도 깊은 연출가 인터뷰, 캐스팅이 수록.

## [보조자료]

- 샤를 구노(1818~1893)의 오페라 '피묻은 수녀'는 국내에 '피투성이가 된 소녀' '핏빛의 수녀' 등의 잔인한 이름으로 번역되는 작품이다. 초연은 1854년 파리.



- 남작의 딸인 아그네스와 뤼도르프 백작의 아들인 테오발드의 결혼을 통해 두 가문의 혈투를 중단하려 하지만, 아그네스는 다른 남자인 로돌프를 사랑한다. 로돌프는 그런 아그네스에게 성의 망루에서 만나자고 한다. 밤을 틈타 아반도주할 작정이다.

- 하지만 아그네스는 망루에 가지 않는다. 그날 밤 전설적인 '피묻은 수녀'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돌프는 그 전설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전설로 인해 성 안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더욱더 도망가려 한다. 시간이 되어 걸어오는 여인(피묻은 수녀)을 아그네스로 착각한 로돌프. 그리고 피묻은 수녀는 로돌프가 자신의 남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밤이 되면 피묻은 수녀는 로돌프의 곁으로 찾아와 로돌프를 괴롭힌다. 로돌프는 피묻은 수녀의 저주를 아그네스에게 비로소 밝히고, 두 사람은 노력으로 피묻은 수녀의 한을 풀어내어 저 세상으로 다시 보내준다.
- 극중 주인공은 피묻은 수녀이다. 연출을 맡은 다비드 보뷔는 무대의 배경과 의상을 모두 검정색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피 묻은 흰 기운을 걸친 수녀의 존재감이 독보적으로 부각된다.
- 하지만 피묻은 수녀보다 더욱 눈길이 가는 것은 로돌프의 분량과 활약이다. 1980년 미국 태생의 테너 미셸 스파이너즈가 그 역을 맡았다. 벨칸토 작품은 물론, 프랑스 그랜드 오페라로 명성을 날린 그의 진가를 단번에 느낄 수 있다.



Naxos 2,110592 [DVD]
Naxos NBD0065V [Blu-rav]

## 2016 샹젤리제 실황

## -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제레미 로헤르(지휘), 르 시클레 드 아모니(오케스트라), 플로리앙 장빼(피가로), 캐서린 트루만(로지나), 미가엘 앤젤리니(알마비바), 피터 칼만(바르톡로), 로랑 펠리(연출)

### 젊은 캐스팅! 무대에 별을 달다

2016년 12월, 파리 상젤리제 극장 실황으로 극도의 미니멀리즘으로 닦은 무대 위에, '21세 기적 피가로'라 불리는 바리톤 플로리앙 장빼의 피가로 연기를 만끽할 수 있는 영상물이다. 1988년 프랑스 태생의 장빼는 파리와 로마를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로열오페라'피가로의 결혼'에서도 피가로 역으로도 데뷔하며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런 그의 피가로 연기는 앞으로 많은 무대의 전형이 될듯하다. 이와 더불어 캐스팅 전반이 '젊은 기운'을 뿜어낸다. 캐서린 트롯만(로지나)도 젊은 기운을 발판 삼아 캐릭터를 밝게 채색해나간다. 투명하고 낭랑한 목소리에 유머 감각까지 더해진 트롯만의 노래는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분노에 치를 떨고 멋들어지게 절망하는 바르톨로 박사 역의 피터 칼만도 인상적이다.

#### [보조자료]

- 2016년 12월 파리 샹젤리제 극장 실황을 담은 로시니(1792~1868)의 '세비야의 이발사'이다. 문제적 연출가 로랑 펠리의 무대는 휑한, 극도의 미니멀리즘이다. 오선보를 형상화한 무대와 등장인물을 비추는 조명뿐이다. 작금의 화려한 연출과 미장센을 원한다면 썰렁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 프로덕션이 화제를 낳았던 것은 21세기의 피가로라 할 수 있는 바리톤 플로리앙 장빼 덕분이다. 그 하나만으로 이 프로덕션과 작품은 모든 것을 말한다.
- 1988년 프랑스 태생의 장빼는 리본 음악원에서 피아노·성악을, 보르도 음악원에서 성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현재 오페라의 중심지 파리와 로마를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일명 '피가로 전문 바리톤'. 샹젤리제 극장에서 '세비야의 이발사'를 선보이던 2016년에는 영국 로열오페라에서 '피가로의 결혼'에서도 피가로 역으로 데뷔했으니, 로시니나 모차르트의 피가로 역의 기준이 될 전도유망한 바리톤이다. 역시나 '세비야의 이발사'에서도그의 젊음과 혈기는 밝고 경쾌한 작품에 예술성과 활기를 더한다.
- '세비야의 이발사'는 1816년 로마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로지나(캐서린 트롯만)는 바르톨로 박사(피터 칼만)의 아름다운 피후견인으로, 박사는 그녀와 결혼할 계획을 세워둔다. 그런데 로지나와 사랑에 빠진 알마비바 백작(미가엘 안젤리니)이 솜씨 좋은 이발사 피가로 (플로리앙 장빼)의 도움을 받아 박사의 집에 잠입한다. 처음에는 그 집에 숙소를 배정 받은 군인으로, 그 다음은 노래 선생으로 변장한다. 알마비바 일당이 바르톨로 집안사람들을 속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박사의 집안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로지나의 사랑을 얻으려 하면서 이야기의 재미가 더해간다.
- 캐스팅 전반이 '젊은 기운'을 뿜어낸다. 로지나 역의 캐서린 트롯만도 그 젊은 기운을 발판 삼아 캐릭터를 밝게 채색해나간다. 투명하고 낭랑한 목소리에 유머 감각까지 더해진 트롯만의 노래는 너무나도 매혹적이다. 피터 칼만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자존심에 상처 입 고, 절망하는 바르톨로 박사를 완벽하게 표현해낸다.
- 해설지(27쪽 분량/영·불어)에는 트랙, 시놉시스, 캐스팅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Naxos 2,110637 [DVD]
Naxos NBD0099V [Blu-rav]

# 2019 테아터 안 데어 빈 실황

- 바그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1841버전)' 마르크 민코프스키, 루브르의 음악가들, 아놀드 쇤베르크 합창단, 사무엘 유(홈렌더), 잉겔

#### 사무엘 윤의 진화하는 홀렌더!

(연출)

바그너(1813~1883)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1843년 드레스덴 버전은 16세기 노르웨이한 항구가 배경이고, 1841년 버전은 스코틀랜드가 배경이다. 2015년 11월, 테아터 안 데어 빈(Theater an der Wien) 실황으로 민코프스키 특유의 시원하게 밀고 나가는 급진적인 해석과 진취력, 올리비에 파이의 파격적인 연출, 한국이 자랑하는 바그너성악가 사무엘 윤이함께 한 프로덕션이다. 2013년 바이로이트축제 개막작이기도 한 이 작품을 틸레만과 함께해치웠던 그답게 이 영상에서도 홀렌더의 아우라를 보여준다. 해설지(24쪽 분량/영·독)에 연출가 파이의 깊이 있는 인터뷰가 이해를 돕고 있다. 사무엘 윤이 주연한 이 작품의 영상물(2013 Opus Arte/2016 Harmonia Mundi)을 소유한 이라면 본 영상물도 함께 갖추어 사무엘 윤만의 '홀렌더'를 수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라 브림베르크(젠타), 라르스 볼트(도널드), 베르나르트 리히테르(게오르크), 올리비에 파이

## [보조자료]

- 총 3막으로 구성된 바그너(1813∼1883)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은 1843년 드레스덴 젬퍼오퍼에서 초연되었다. 16세기 노르웨이 한 항구를 배경으로 신의 저주를 받아 죽지 못하는 유령선의 선장이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 2015년 11월, 오스트리아의 음악 수도 빈에 위치한 테아터 안 데어 빈(Theater an der Wien)에 오른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은 노르웨이 설정이 아닌, 1841년 스코틀랜드로 설정된다.
- 바그너는 원래 파리에서의 공연을 위해 이 작품을 구상했고, 뜻밖에 무산되었다. 그의 한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마르크 민코프스키와 그의 수족 같은 오케스트라 '루브르의 사람들'이 연주를 맡았다. 고전에 대한 고증보다는 바그너 특유의 무게감을 시원하게 밀고 나가는 민코 프스키의 급진적인 해석과 진취력이 돋보인다. 급진적인 콘셉트와 시각물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연출가 올리비에 파이도 함께 하여, 음악에 힘을 실어준다.
-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이 일군 프로덕션이지만 그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주인공 홈렌더 역의 '사무엘 윤'이다. 그는 2004년 처음으로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파르지팔'로 데뷔했다. 2005년 '탄호이저'로 발판을 다지고, 2010년 '로엔그린'의 헤럴드 왕을 맡아 열연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새로 제작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서 홈렌더 역을 맡아 대단한 화제를 모았다. 2013년 역시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의 첫 공연인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타이틀롤과 '로엔그린'에 동시에 출연하면서 '바그너 바리톤'으로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 2013년 바이로이트 개막을 장식함과 동시에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함께 했던 영상물(Opus Arte), 2016년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극장에서 연광철과 함께 한 영상물(Harmonia Mundi)를 소유한 이라면 본 영상물과 함께 소장하여 '사무엘 윤'의 특별한 '홀렌더'를 수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사랑으로 홀렌더를 구해내는 운명의 여인 젠타 역은 스웨덴 소프라노 잉겔라 브림베르크가 맡았다. 해설지(24쪽 분량/영·독)에 연출가 파이의 깊이 있는 인터뷰가 작품과 프로덕션의 이해를 돕는다.



Naxos 2,110638 [DVD]
Naxos NBD0100V [Blu-ray]

## 2018 파리 오페라 코미크 실황

- 글룩 '오르페와 유리디스(1859 베를리오즈 버전)

라파엘 피송(지휘), 앙상블 피그말리옹, 마리안느 크레바사(오르페), 엘린 귀메트(유리디스), 오를레앙 보리(연출)

#### 글룩의 원본보다 강한 베를리오즈 편집본

2018년 10월 파리 오페라 코미크 실황물로 일명 '1859년 베를리오즈 버전'이다. 글룩 전문 가이던 베를리오즈(1803~1869)는 글룩(1714~1787)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1774년 파리 버전을 기본으로 글룩을 능가하는 자신만의 버전을 개발했다. 국내에 잘 알려진 크레바사(오르페)의 보이시하고 시크한 매력이 돋보이며, 파리의 차세대 소프라노 엘렌 귀메트(유리디스)도 만날 수 있다. 보리의 연출 하에 성악가들은 서사와 줄거리를 보여주는 배우가 아니라, 한명씩 무대에 올라 아리아를 독창하고 퇴장하여 음악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 해설지(27쪽 분량/영ㆍ불어)에 지휘자ㆍ연출가 인터뷰가 작품 이해를 돕는다.

## [보조자료]

- 크리스토프 글룩(1714~1787)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1762년 빈 궁정극장에서 초 연됐고, 1774년 파리 공연을 위해 수정됐다. 파리 공연을 위해 제목도 프랑스어인 'Orphée et Eurydice'라고 고쳤고, 이탈리아어 대본을 피에르 루이 몰랭이 프랑스어로 바꾸었다.
- 2018년 10월 파리 오페라 코미크 실황을 담은 이 영상물(작품)은 일명 '1859년 베를리오 즈 버전'이다. 글룩 전문가이던 베를리오즈(1803∼1869)는 폴린 비아르도(콘트랄토)를 위해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자신만의 에디션으로 개정한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버전의 장점을 결합시킨 베를리오즈 버전은 1774년 파리 버전을 기본으로 하되, 오르페오의 음역만 이탈리아 버전을 사용했다. 그 결과 이 작품은 프랑스어로 발음되는 '오르페와 유리디스'로 재탄생되었다.
- 이후 베를리오즈 버전은 뛰어난 개작이라는 평과 함께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다. 1870년 부터는 그가 3막으로 각색한 악보가 널리 퍼졌고, 1889년 리코르디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글룩을 능가하는 인기 버전이 되기도 했다.
- 오르페오 역의 마리안느 크레바사는 여러 음반(Erato)들을 통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메조소프라노이다. 고음악 스페셜리스트인 그녀는 보이시한 매력을 잘 살려낸다. 남성정장을 입고 짧게 쳐올린 헤어스타일로 시크함은 보여 주면서도 음악적인 섬세함으로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 에우리디체 역의 엘렌 귀메트도 눈여겨 볼 것. 여성스럽게 가녀린 이미지의 그녀는 현재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차세대 소프라노이다.
- 오를레앙 보리의 연출은 화려한 배경이나 무대이미지 구현보다는 음악에 집중하게 만든다. 성악가들도 서사와 줄거리를 이어나가는 역 할보다는 한명씩 무대에 올라 배역의 아리아를 독창자처럼 들려주고 들어가는 방식이다. 지휘자 라파엘 피숑은 강약의 악센트를 대비적으로 가져가고, 고음악 특유의 거침없는 진행보다는 성악가들의 편의를 배려하는 휴머니즘적 연주로 호흡을 맞춘다.
- 해설지(27쪽 분량/영·불어)에는 트랙리스트, 작품해설, 시놉시스, 지휘자·연출가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Arte OA1167D [DVD]
OpusArte OABD7166 [Blu-rav]

## **OPUS ARTE**

# 2018 글라인드본 실황 – 푸치니 '나비 부인'

오메르 메이르 벨버(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글라인드본 합창단, 올가 부슈요크 (초초 상), 조슈아 구에레로(핑커톤), 미쉘 사무엘(샤플레스), 카를로 보쉬(고로), 엘리자베스 데숑(스즈키), 아닐레세 미스키몬(연출)

## 초초 상, 사랑보다는 자존심!

몰도바 출신의 올가 부슈요크(b.1986)가 초초 상으로 화제를 낳았던 2018년 영국 글라인 드본 실황으로, 2019년 6월 출시돼 새로운 소프라노의 탄생을 맛볼 수 있다. 노르웨이 연출가 미스키몬은 입센(인형의 집)의 후예답게 기모노를 벗기고 현대식 복장을 취한 초초 상으로 강한 여성상을 보여준다. 사랑과 연정이 아닌 여성적 자존심이다. 이스라엘 출신의 벨버의 지휘는 로얄 오페라 음악감독 안토니오 파파노의 2017년 '나비부인'(Opus Arte OABD7244 D)과 견줄 수 있는 수준급. 핑커톤이 떠나는 장면(14트랙)을 흑백 필름에 담은 연출가의 재치도 돋보이는, 눈과 귀가 즐거운 영상물이다.

### [보조자료]

- 2018년 영국 글라인드본 오페라극장 프로덕션으로, 현재 이탈리아의 여러 오페라극장 을 수놓고 있는 소프라노 올가 부슈요크가 초초 상을 맡아 화제를 낳은 공연이다. 2019년 6월에 출시되어 새로운 소프라노의 탄생을 맛볼 수 있다.
- 노르웨이 연출가 아닐레세 미스키몬은 초초 상을 대변하던 기모노를 벗기고 현대식 복장을 취하게 한다. '인형의 집'을 남긴 입센과 동향의 후예답게 초초상은 핑크톤을 향한 연정과 기다림에 지쳐 목숨을 끊기보다는 여성의 자존심을 위해 자결하는 강한 이미지로 대변된다. 근대 일본풍의 무대미술과 디자인으로 '동양적 분위기'를 강조했던 기존 연출가들의 프로덕션과 달리 주인공의 지조와 내면에 더 초점을 둔 것이다. 루마니아의 뛰어난 성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올가 부슈요크는 1986년 생으로 동양적인 마스크와 애절한 표현력으로 연출가의 의도에 최적합화된 캐릭터를 보여준다. 부슈요크는 2011년 몰도바 국립오페라극장 데뷔 이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활약하다가 점차 이탈리아의 중요 극장과 페스티벌로 명성과 무게를 옮기고 있다. 그중 2016년 글라인드본에서 선보인 '나비부인'은 일생일대에 중요한 방점을 찍은 출연작이다.
- 핑커톤이 떠나는 장면(14트랙)을 흑백 필름에 담은 연출가의 재치가 돋보인다. 간주와 함께 흐르는 영상에서 1904년의 근대 일본 주택의 풍경과 시대상을 만날 수 있다.
- 이스라엘 출신의 오메르 메이르 벨버의 지휘를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다. 로얄 오페라하우스 음악감독인 안토니오 파파노의 2017년 로열 오페라 실황 '나비부인'(Opus Arte OABD7244 D)과 견줄 수 있는 수준급이다. 초초 상과 핑커톤이 첫날 밤에 함께 부르는 '사랑의 이중창',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초초 상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어느 맑게 갠 날', 핑커톤의 죄책감을 담은 솔로곡 '안녕, 꽃들의 피난처여', 죽음을 택하는 초초 상의 '명예롭게 죽다' 등의 대표 아리아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이를 바탕으로 부슈요크와 파트 너 테너 조슈아 구에레로(핑커톤 역)의 목소리가 더욱 살아난다.



OpusArte OA1287D [DVD]
OpusArte OABD7257 [Blu-rav]

## 2018 로열발레 실황

## - 케네스 맥밀란 '마이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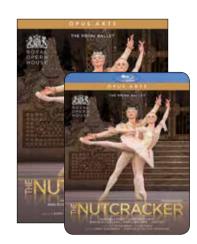
케네스 맥밀란(안무), 스티븐 맥레이(루돌프), 사라 램브(마리 베체라), 리스트(음악), 코엔 케셀스(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 맥밀란이 집착했던 역사물과 에로스의 뜨거운 결합

케네스 맥밀란(1929~1992)의 1977년 안무작 '마이얼링'은 1889년 1월 30일 오스트리아의 궁정의 사냥터 마이얼링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 루돌프(당시 31세)가 정신적 압박을 못 이겨 17세 소녀 마리 베체라와 권총 자살한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고, 루머가 돌기도 했다. 이 영상물은 2018년 10월 로열오 페라하우스 실황으로, 로열발레를 중심으로 리바이벌되고 있는 '마이어링'으로 스티븐 맥레이(루돌프)와 사라 램브(마리 베체라)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영상물이다. 이들의 뜨거운 사랑의 파드되는 강렬한 성적 표현에 몰두했던 맥밀란의 면모를 느끼게 한다. 작품 소개, 파드되 연습, 맥레이의 부상 회복기가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 [보조자료]

- 케네스 맥밀란(1929~1992)은 존 크랑코(1927~1973)와 더불어 '드라마 발레'라는 장르를 완성시킨 세기의 안무가이다. 역사적 소재, 연극적인 줄거리, 강렬한 성적 표현에 몰두했 던 그의 예술인생은 오늘날 그 특유의 실험정신으로 대변된다.
- 1977년 안무작 '마이얼링'은 구체적인 역사적 소재를 묘사한 드라마 발레다. 1960년대에 발레리나 린 세이모어를 총애했던 맥밀란은 여주인공 마리 베체라 역에 그녀를 염두에 두 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
- 작품이 다루고 있는 실화는 1889년 1월 30일 오스트리아의 궁정 사냥터 마이얼링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이다. 유전적 정신질환에 시달리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 루돌프(당시 31세)는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17세의 소녀 마리 베체라와 권총 자살한다. 그가 왜 자살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당시에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교인 가톨릭의 교리상 자살은 교회에 묻힐 수도 없고 장례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인은 심장발작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었고 수많은 루머가 돌기도 했다. '마이어링'은 로열 발레의 무용수들이 가장 추고 싶어 하는 문제작이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새 자료가 없었는데. 2010년에 15년만의 긴 시간을 깨고 리바이벌 버전이 나왔고, 그 뒤를 이번 버전이 있고 있다.
- 이 영상물은 2018년 10월 로열오페라하우스 실황이다. 맥밀란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억압적인 세계와 세기말적 분위기를 리스트 (1811~1886)의 음악에서 전폭적으로 인용한다. 근사하게 콧수염을 기른 스티븐 맥레이는 로열 발레의 간판스타답게 기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캐릭터를 소화해낸다. 주인공이 루돌프지만, 당대 최고의 발레리나를 염두에 두고 안무한 작품이었던 만큼 마리 베체라 캐릭터와 이를 소화하는 사라 램브가 인상적이다. 백옥 같은 피부의 사라 램브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발레리나인데, 후반에 이를수록루돌프와 격하고 진한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아우라를 뿜어낸다.
- 작품상으로나 공연영상물로나 음악의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 케네스 맥밀란이 만든 '리스트 모음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악의 구성은 물론 연주의 결도 지금까지 나온 로열 발레의 그 어떤 실황물보다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역사에 충실한 사극인만큼 궁중의 음악회를 연출한 장면에서는 실제 소프라노가 무대에 올라 노래하기도 한다.
- 작품 소개(5분), 린네 벤자민(발레 코치)이 그려내는 맥레이와 램브의 격정적인 사랑의 파드되 연습장면(3분 30초), 맥레이의 부상 회복기 (2분 30초) 영상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OpusArte OA1290D [DVD]
OpusArte OABD7259D [Blu-ray]

## 2018 로열발레 실황

## -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피터 라이트 버전)

차이콥스키(작곡), 마리우스 프티파(안무), 피터 라이트(재안무), 베리 워즈워스(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마리아넬라 누에즈(수석발레리나/설탕요정), 바딤 문타기로프 (수석발레리나/공주), 안나 로즈 설비앙(수석발레리나/클라라), 마르첼리노 잠베(수석발레리노/호두까기인형)

### 엄마가 원하는 우아함. 아이를 위한 재미를 모두 잡았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호두까기인형'이 유럽에 전래되는 데에는 1934년 로열발레단의 유럽 초연이 한 몫했고, 그 역할을 피터 라이트가 했기에 로열발레단은 오늘날까지 이른바 '피터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이고 있다. 안정된 작품성을 토대로 매공연마다 캐스팅을 바꿔가며 마니이들의 흥분도를 높이는데, 이 영상(2018년 12월 3일 실황)에서는 누에즈(설탕요정), 문타기로프(공주), 드로셀마이어(마술사)가 그 주인공. 이중 드로셀마이어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몇 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화질 활영에 고급서라운드로 녹음되어음악적인 만족도도 높다. '바흐트랙'지는 "관객의 손에 차이콥스키 악보를 들려있는 듯 모든 음악을 훤히 비춰주었다"라며 워즈워스(지휘)를 칭찬했는데, 실제로 감동은 그 이상이다. 캐스팅 갤러리, 작품소개, 로열 발레스쿨 연습광경이 보너스필름이고, 해설지(19쪽 분량/영·독·불어)에 수록된 라이트의 인터뷰가 작품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 [보조자료]

- 로열발레단 공연 대부분이 막이 내린 후 수많은 호평을 받는 편인데, 이 공연은 좀 더 특별하다. 2018년 12월 3일 공연 실황으로 '더 타임 즈'지는 "호두까기 인형에 관해서, 이 프로덕션을 이길 무대는 없다"고 했고, '더 인디펜던트'지는 "바딤 문타기로프와 누에즈의 화려한 그 랑 파드되의 대화" "마술사 드로셀마이어 역의 게리 아비스는 밝고 자신감 있는 춤으로 관객의 마음을 흔들었다"라고 평을 쏟아냈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믿고 보는 호두까기인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호두까기인형'은 1892년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마리우스 프리파와 레프 이바노프의 공동안무로 초연된 작품은 바실리 바이노 덴, 존 그랑코, 존 노이마이어, 롤랑 프티, 조지 발란신 등 전설적인 안무가들에 의해 수많은 버전이 나왔다. 그중 피터 라이트의 버전은 로 열발레단만의 전매특허 버전이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호두까기인형'이 유럽에 전래되는 데에는 1934년 로열발레단의 유럽 초연이 한 몫했고, 그 역할을 라이트가 했다. 따라서 그의 숨결이 묻은 로열발레단이 쥐고 있는 '호두까기인형'의 지분은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놉시스, 작품역사가 담긴 해설지(19쪽 분량)에는 피터 라이트의 작품노트, 인터뷰(4쪽 분량・영문으로만 구성)가 수록되어 있어서 작품이해를 돕는 깊이 있는 자료가 된다.
- 로열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이제는 안정적으로 오르는 공연이지만, 매 공연마다 새로운 캐스팅을 통해 마니아들의 흥분도를 높인다. 이번 무대에서도 문타기로프와 누에즈의 호흡이 만족도를 높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가 있으니, 수석 캐릭터 무용수 가리 애비스이다. 마술사인 드로셀마이어 역을 그는 매해 꾸준히 수행하며 작품의 주가를 높이고 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이 영상물을 택한다 해도 된다고 적극 권한다.
- 고화질로 촬영하여 서라운드 사운드로 녹음되어 음악적인 만족도도 높다. '바흐트랙'지는 "로열 발레의 전 음악감독 베리 워즈워스는 관객의 손에 차이콥스키 악보가 들려있는 듯 모든 음악을 훤히 비춰주었다"라며 호평했다.
- 보너스 영상에는 ①캐스팅 갤러리 ②단원들이 말하는 작품 소개 ③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로열 발레스쿨에서 지도하는 다르세이 버셀을 만날 수 있다.



OpusArte OA1280D [3DVD Set]
OpusArte OABD7209 [3Blu-ray 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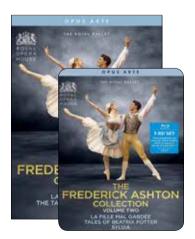
## 프레드릭 애쉬톤 컬렉션 Vol. 1

## 영국 무용계의 전설, 프레드릭 애쉬톤이 가장 사랑한 아홉 개의 짧은 발레 컬렉션 모음.

봄의 소리의 가볍고 경쾌한 활기참. 세자르 프랭크의 교향적 변주곡과 함께 하는 완벽에 가까운 순수한 고전의 아름다움. 애쉬튼의 작품 중 가장 열정적이며 로맨틱한 '마그리트와 아르망'(2013,2017 공연 수록), 나탈리아 오시포바, 스티븐 멕레이가 출연하고 라흐마니노 프의 파가니니주제에 의한 광시곡 Op.43을 그대로 담아낸 애쉬톤의 마지막 작품 '랩소디', 앙드레 메사제의 음악과 함께 로렛 컷버슨과 바덤 문타기로프, 후니 카네코가 출연한 '두 마리의 비둘기' 그리고 로열 발레단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 작품들인 라 발스, 타이스의 명상곡, 단조(Monotones I & II) 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너스 영상으로 무용수와의 인터뷰(제나이다 야노스키/마르리트와 아르망 2017), 두 마리의 비둘기, 꿈 안무 다큐멘터리 등이 포함되어있다.

- '랩소디', '두 마리의 비둘기': 라흐마니노프와 앙드레 메사제의 음악, 로열발레의 몸짓
- '꿈', '교향적 변주곡', '마그리트와 아르망': 로열발레와 만나는 멘델스존, 프랑크, 리스트
- "라발스', '타이스의 명상곡', '봄의소리', 모노톤 I & II: 애쉬튼을 기념하는 화려한 갈라 무대



OpusArte OA1281D [3DVD Set]
OpusArte OABD7212 [3Blu-ray Set]

## 프레드릭 애쉬톤 컬렉션 Vol. 2

## 전설이 창조하고 최고의 무용수가 표현한 프레드릭 애쉬톤 스타일의 정수

영국 무용계의 전설 '프레드릭 애쉬톤' 그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짧은 발레들로 구성되었던 Vol.1과 함께 프래드릭 애쉬톤 Vol. II 는 그의 스타일을 반영한 세 가지 발레 작품들을 최고의 무용수들이 선보인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범한 안무로 인해 그다지 인기가 없던 '실비아'는 애쉬톤의 손끝 발끝을 거쳐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박스에는 2005년 로열 발레 창단 75주년을 기념하여 펼쳐진 공연으로 영국이 탄생시킨 최고의 발레리나다르시 버셀이 주연을 맡아 요정 역 실비아를 연기하였다. 한국의 발레리나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마리아넬라 누네즈와 쿠바 출신의 카를로스 아코스타가 출연한 가족 사랑의전원 발레 '고집쟁이 딸', 그리고 영국의 국민적 동화작가 베아트릭스 포터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랑스런 동물 친구들을 무대로 불러모아 온 가족이 함께 동화 속 세계로 여행을떠나는 '베아트릭스 포터이야기' 까지 가장 영국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쉬톤의 작품 세 편과 함께 다르시 버셀이 이야기하는 실비아 등이 포함된 보너스 영상이 들어있다.

#### - '고집쟁이 딸' :

희극이면서도 콧등이 시큰할 만큼 감동적인 모녀 사랑의 가족발레

- '베아트릭 포터의 이야기': 베아트릭 포터의 동물 동화를 발레로 만나는 최고의 선물
- '실비아':

영국이 사랑하는 국민 발레리나, 다르시 버셀의 매력에 빠져드는 발레!

## **Tonkunstler**

## www.tonkuenstler.at/de



Tonkunstler Ton 4002 [Blu-ray]

# TONKUNSTLER

## 2018 엘프필하모니홀 실황 - 말러 교향곡 5번

유타카 사도(지휘), 토퀸스틀러 오케스트라

#### 일본 차세대 마에스트로의 말러 도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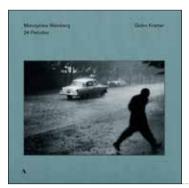
2019년 3월,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의 독일 투어 중 하이라이트인 함부르크 엘프필하모 니홀 실황(3월 16일)이다. 1913년 창단되어, 빈 무지크페어라인홀을 비롯한 저명극장과 축제의 상주 악단으로 활동 중인 톤퀸스틀러의 감춰진 면모를 밀러의 대작을 통해 깊이 호흡해볼 수 있으며, 오자와 세이지의 총애를 받는 차세대 일본 마에스트로 유타카 사도 (1961~)의 대작 도전기이다. 말러의 텍스트에 한없이 객관적이고 이지적이다가도 어느 순간 서정미를 포착해내는 놀라운 지휘력. 브장송 콩쿠르(1989), 번스타인 예루살렘 콩쿠르(1995)에서 입상한 사도는 라무르 오케스트라(1993~2011)를 거쳐 2015년부터 톤퀸스틀러를 이끌고 있다.

## [보조자료]

- 2019년 3월,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의 독일 투어 중 하이라이트인 함부르크 엘프필하 모니홈 실확(3월 16일)이다.
- 유타카 사도의 지휘로 선보인 이 공연은 1부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소량 협연)과 2 부 말러 교향곡으로 구성됐다. 영상물에는 이중 말러 교향곡만 수록되었다. 해설지(39쪽 분량/독·일·영어)에는 상세한 작품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 1913년, 빈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진 톤퀸스틀러는 현재 빈의 무지크페어라인홀부터 북동부 도시 장크트푀엘텐의 축전극장과 그라페넥 페스티벌까지, 음악의 중심지부터 휴양지에 걸쳐져 있는 유명 극장과 축제에서 상주 오케스트라로 활동 중이다. 톤퀸스틀러는 그간 씨메이저(Cmajor) 레이블을 중심으로 그레페넥 페스티벌 실황을 부지런히 발매해왔다. 자연과 최고의 성악가들이 함께 하는 야외 갈라 실황물들이었다.
- 이번에 발매된 말러 교향곡 5번은 보다 깊이 있는 호흡과 자세로 톤퀸스틀러를 살펴볼 수 있는 영상물이다. 사도의 지휘와 이들의 연주를 보면 이들이 오스트리아 중심지부터 유명 페스티벌을 '독점'한 이유를 알게 된다.
- 교토시립 예술대학에서 플루트와 지휘를 공부한 이력만으로 유럽의 저명 악단을 지휘하는 유타카 사도(1961~)의 내공은 정말 뛰어나다. 탱글우드 페스티벌에서 오자와 세이지(1935~)로부터 지휘 훈련을 받고 세이지의 지원사격을 받는 차세대 일본 마에스트로로 급부상 중인 이유가 단번에 느껴진다. 일본어로 된 해설지를 통해 일본음악계와 자본이그를 얼마나 지원사격하는지 느낄 수 있다.
- 브장송 콩쿠르(1989)와 번스타인 예루살렘 콩쿠르(1995)에서 입상한 사도는 라무르 오 케스트라(1993~2011)에서 기반을 닦은 후 2015년부터 톤퀸스틀러를 이끌고 있다. 사도는 말러의 텍스트를 객관적이고 이지적으로 관조한다. 그러면서도 4약장 아다지에토에서 섬 세함으로 느린 약장의 서정미를 포착해낸다. 들으면 들을수록 끌리는 매력에 이 오케스트 라의 내력과 역사를 들춰보게 된다.

## Accentus LP

www.accentus.com





ACC40476 [LP]

바인베르크: 24개의 전주곡(바이올린 편곡)

기돈 크레머(바이올린)

## 현악기의 다양한 표현과 인상을 수록한 현악 음악의 팔레트

최근 바인베르크의 음악을 집중 소개하고 있는 기돈 크레머는 무반주 첼로를 위한 '24개의 전주곡'을 바이올린으로 편곡하여 녹음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연주하고 있다. 이 곡은 다양한 작곡법과 연주법을 망라한 현악 음악의 팔레트와 같은 작품으로, 로스트로포비치가 초연했던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과 '첼로 소나타', 보리스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 그리고 그의 레퍼토리였던 슈만의 협주곡을 인용하는 등, 로스트로포비치를 염두에 두고 작곡되었다. 현악기가 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과 인상을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훌륭한 보고이다.

## Berliner Philharmoniker LP

www.berliner-philharmoniker.de





BPHR190262 [LP 180a. Vinvl] [한정발매]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의 첫 신호탄!

베를린 필하모닉 교향악단 / 키릴 페트렌코(지휘)

- \* Half-Speed Mastering
- \* Limited Edition
- \* 2019년 8월 베를린 필 상임지휘자로의 발걸음을 내딛을 키릴 페트렌코와의 첫 공연
- \* 20 page 북클릿
- \* 고해상도 다운로드 코드 24bit/up to 192KHz
- \* 디지털 콘서트홀 7일 무료이용 바우처 포함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 키릴 페트렌코의 진가가 발휘된 '비창'

2019년 8월부터 베를린 필의 수석지휘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의 첫 공연 의 LP가 공식적으로 발매되었다. 이 공연은 2015년 여름 키릴 페트렌코가 차기 베를린 필 수석지휘자로 선출된 이후 첫 객원 지휘의 공연 실황(2017년 3월 공연)을 녹음한 것이다. 러시아 옴스크지방에서 태어난 키릴 페트렌코는 18세때 바이올린 연주자인 아버지와 음악학 연구가인 어머니를 따라 가족 전부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하였고 빈에서 체계적인 음악과 지휘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그를 러시아와 서방세계 양쪽의 전통을 모두 흡수한 음악가라고 부를 수 있다.

빈 시민오페라, 마이닝겐 극장, 코미쉐 오퍼 베를린에서 활약한 그는 2013년부터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극장의 음악 총감독으로 재직하였고 2006년 베를린 필 지휘 첫 데뷔 이후 단 3회 객원 지휘 공연(2006년, 2009년, 2012년)만으로 차기 지휘자로 선출된 것이다. 그의 음악적특징으로서 그의 레퍼토리는 특정한 희귀 곡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자신의 연주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녹음된 연주가 출시되는 것을 원하지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밀도가 높은 리허설과 철저하고 엄밀한 곡에 대한 해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매력은 그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공연에서는 들끓는 감정의 변화로 변한다는 점이다. 키릴 페트렌코 본인은 '리허설 내내 억제해온 감정 변화의 순간들을 연주회에서 최대로 남김없이 분출하게 된다'라고 표현한다. 이번 앨범의 비창에서도 그런 감정의 범람을 어김없이 나타내었는데 그의 표현력이 베를린 필이 가진 강력한 음악성과 일치하여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었다.

#### 키릴 페트렌코의 약력:

2019년 8월부터 베를린 필의 상임지휘자를 맡게될 키릴 페트렌코는 1972년 러시아 시베리아지방의 옴스크에서 태어났다. 18세에 온 가족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하여 펠트키르히-포랄베르크 주립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공부하였고 빈 음악 대학에서 지휘를 배웠다. 졸업 후에는 1997년 비엔나 폭스오퍼의 조수 겸 카펠마이스터로 경력을 시작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독일 마이닝겐 극장의 음악 총 감독을 맡았다. 2001년 동 극장에서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를 통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1년 빈 국립오페라에서 드레스덴 젬퍼오페라, 파리 국립오페라, 로열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2005년 프랑 크푸르트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유수 극장에서의 지휘로 짧은 시간에 경력과 명성을 쌓았다. 2013년부터 3년간 바이로이트 축제에 서는 새로운 프로덕션의 '니벨룽의 반지'를 지휘하였다. 베를린 필과는 2006년 바르톡과 라흐마니노프의 프로그램으로 데뷔 연주회를 가졌으며 2015년 치뤄진 차기 음악 감독 선출 투표에서 차기 수석 지휘자로 선출되었다.

# Divine Art LP

www.divineartrecords.com





DDL12401 [2LP]

#### 쇼팽 모음집

부르카르트 슐리스만(피아노)

- \* Recorded at Teldex Studios, Berlin (24-bit)
- \* Cutting & Pressing : Pallas, Berlin



## 나만의 특별한 LP. 잊지 못할 쇼팽을 만나고 싶다면

독일 피아니스트 부르카르트 슐리스만이 워싱턴 음악제에 제출할 용도의 데모가 그의 첫 레코드가 되어 1988년 독일음반비평가상을 수상했 다는 사실은 그에게 따라붙는 유명한 일화다. 디바인 아트(Divine Art)에서 나온 이번 앨범(2LP)에는 그의 장기 중 장기인 쇼팽의 총망라한 것으로 발라드 1·3·4번, 판타지 Op.49, 스케르초 2·4번, 전주곡 Op.45, 뱃노래 Op.60, 폴로네이즈 7번이 수록되어 있다. 쇼팽은 무엇보다 도 그가 끊임없는 탐구의 시간을 바친 작곡가이다. 19세기와 낭만주의기의 전형적인 피아니즘을 구현하는 그의 쇼팽은 날카로우면서도 사 랑을 속삭이듯 나긋나긋하기도 하다. 고급스런 디자인의 게이트폴드 슬리브(양면재킷)로 된 한정반이고, 음질은 따뜻하면서도 명징한 사운 드를 제공한다. 24비트 고음질로 녹음되고 마스터된 최고의 사운드와 쇼팽의 명곡을 매력적인 해석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다.

#### [Disk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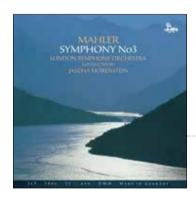
- 1. Ballade Nr. 1 g-moll op. 23
- 2. Fantasie f-moll op. 49
- 3. Scherzo Nr. 2 b-moll op. 31
- 4. Scherzo Nr. 4 E-Dur op. 54

#### [Disk 2]

- 1. Ballade Nr. 3 As-Dur op. 47
- 2. Prélude Nr. 25 cis-moll op. 45
- 3. Ballade Nr. 4 f-moll op. 52
- 4. Barcarolle Fis-Dur op. 60
- 5. Polonaise Nr. 7 As-Dur op. 61 "Polonaise Fantaisie"

# Silk Road LP

www.silkroadmusic.net





SRM045 [2LP 180a] [강력추천]

소장하는 순간, 말러의 '성서'를 쥐게 된다 (1970년 녹음본\_유니콘) 독일제작

야샤 호렌슈타인(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노르마 프록터, 윌리엄 랑(플뤼겐호른)

Pre-mastering Engineer: Hans-Jorg Maucksch, Pauler Acoustics, Northeim, Germany Performer: Jascha Horenstein (conductor), London Symohony Orchestra, John McCarthy(conductor),

Ambrosian Singers Russel Burgess (conductor), Wandsworth School Boys" Choir,

Norma Proctor(contralto), William Lang (flugelhorn), Dennis Wick (trombone)

1925년 빈에서 말러 교향곡 1번을 통해 지휘자로 데뷔했던 거장 야샤 호렌슈타인(1898~1973). 그는 1960년대 세계 정상급의 말러 해석가로 군림했다. 특히 말러 교향곡 3번에 있어서 런던 심포니와 함께 1962년 몽퇴르 페스티벌 녹음과 1970년 영국 페어필드홀 녹음(Unicorn)은 전설적인 명반으로 남았다. 본 음반은 1970년 음반을 LP 재발매한 것으로, 2013년 복각된 몽퇴르 페스티벌 본과 함께 1970년의 '전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음반이다. 당시의 원본 자체가 뛰어난 해상도와 음장감을 자랑했기에 1970년 버전은 시대를 뛰어넘어 마니아들 사이에 레전드로 통용되던 음반이다.

# 2019 베를린 발트뷔네 콘서트

# 소키예프 & 크레바사





'이야기

투간 소키예프 지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리안트 크레바사 메조소프리노

2067798 [ DVD ]

2067794 [ BD ]

## 발트뷔네 콘서트는 시즌 마지막에 '숲의 무대'에서 개최하는 베를린 필만의 콘서트이다.

해마다 테마와 주제를 달리 하는데 이 공연의 2019년 주제는 '이야기가 흐르는 밤'

현재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 태생의 예조소프라노 마리언트 크레바사가 라벨의 '세해라자데'와

'세 개의 시'(\*한글자미를 통해 '프랑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볼쇼이극장 음악감독인 소키예프는

프로코피예프의 '키제 중위' 모음곡과 '로마오와 줄리엣'으로 '러시아의 이야기'를 돌려주는 시간이다.

'Conductor CameralPicture in Picturel' 기능도 있다.

스크린 왼쪽 상단에 소키예프의 정면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 감상의 재미를 더한다.

해설지에는 간략한 곡목이 수록되어 있다.



표지사진 2019 서울시향 올해의 음악가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CD

〈아울로스뉴스〉 2019년 10월호

통권 제 81호 발행 2019년 10월 1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호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e-mail aulos@aulosmusic.co.kr

**주소 (04782)**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전화 02-922-0100(代) 팩스 02-922-2522

현대테라스타워 E동 1404~5호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106 아울로스뉴스 제 81호 www.aulosmedia.co.kr 107